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전통조경

심화연구자 신 상 섭(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연구원 장일영(우석대학교 외래교수, 박사), 보조연구원 고여빈(우석대학교 대학원)

CONTENTS

제1부 연구개요

- 1장 연구배경 및 목적
- 2장 연구방법 및 내용

제2부 전통조경사례 연구 및 분석

- 1장 전통조경에 작용된 한국인의 사상
과 가치관
 - 1절 한국인의 자연관
 - 2절 전통조경에 작용된 배후사상과
가치관
- 2장 전통조경을 통해 본
경관 미학적 가치
 - 1절 전통조경의 미적가치
 - 2절 전통조경에 작용된 조형의식과
토지예술
 - 3절 전통조경의 경관미학
- 3장 전통조경에 작용된 풍토조건과
사회적 배경
 - 1절 풍토적 요인
 - 2절 사회적 요인
- 4장 전통조경의 문화사적 변천

제3부 대표 디자인

- 1장 전통조경에 작용된 선조들의
사고와 정신
 - 1절 녹색 사상 : 친환경 생태주의
 - 2절 전일적 사고 : 천지인의 유기체성
 - 3절 중용적 가치 : 불확정성
- 2장 한국인의 조형적 의식이
잘 투영된 전통조경 사례
 - 1절 창덕궁 후원 : 비원
 - 2절 담양 소쇄원
 - 3절 강릉 선교장
 - 4절 선조들의 지혜
: 전통조경 디자인 요소
- 3장 전통조경의 디자인적 가치가
발현된 현대조경 사례
 - 1절 서울 파리공원
 - 2절 용인 회원
 - 3절 서울 선유도 공원

제4부 소결

- 1장 연구결과
- 2장 연구결과의 요약



제 1부 연구개요

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전통문화는 역사성을 갖고 전승되어온 국가와 사회적 집단의 정체성이며, 그 시대의 문화와 조경양식을 지배하는 규범적 의의를 지니는데, 이러한 규범 내지는 가치관이 조경 영역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전통조경 또는 작정(作庭) 기법이라는 정체성으로 실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조들이 경영한 외부환경조건 그리고 조경공간의 경관적 짜임새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를 일깨우게 한다.

우리나라 전통조경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환경 풍토조건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는 가운데 환경조건에 조화되도록 터를 잡아 가꾸는 것으로, 건축시설물이 지형에 밀착되어 인지제의(因地制宜) 라는 한국인의 자연관에 부합되도록 놓고 짜인 결과가 전통조경에서도 ‘자연과 인공의 유기적 조화’ 그리고 ‘도법자연(道法自然)’ 이라고 하는 명제가 동일하게 표출된 결과라 하겠다.

빠어난 자연 가운데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그것을 관조하는데 불편이 없고 자연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과 약간의 시설물을 포치시키는 정도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조경 기법이 작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원은 산수형국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선택하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완상하기 위한 매개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내부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의 문제보다 어떠한 곳에 자리 잡느냐의 ‘터 잡기’가 정원의 본질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¹⁾.

특히, 우리 선조들은 시각적 아름다움 이상의 미적 경지를 지향하여 형이상학적 가치를 인간 삶의 목표로 삼는 정적(靜的) 경지를 추구하였고, 자연과 인간을 유기체적 일원체로 이해하였으며, 존재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신뢰하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내적 능력의 함양과 외적 조화의 방법론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오늘날 수천 년간 지속되어 이어온 전통적인 삶의 형식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현대화라는 미명아래 서구적인 형식의 디자인(건축과 조경 영역 등)으로 대체되고 무국적적 작품들이 건축, 조경, 예술 영역에서 다양하게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적해 보면 조경영역에서도 서구의 디자인 이론이나 기법, 일본의 작정기법 등에 매료되어 상대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조경기법 등이 경시되거나 단절되어 왔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식 정원기법 그리고 서구적 조경양식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부작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찾기에 부합되는 토지이용, 공간구성, 소재사용, 디자인 기법 등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차제에 우리의 전통

1) 조정승, 2006, 조경·미학 디자인, 도서출판 조경

경관 및 조경공간 속에 내재된 의미와 미적 가치를 추적하는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며, 전통조경의 미적 개념들과 가치 있는 설계기법 그리고 설계요소들의 추적 성과들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과 전통조경문화의 건전한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장. 연구방법 및 내용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문화는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세계화와 지역화라고 하는 양방향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각각의 문화권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본능적인 요구이자 필연적인 현상이기도 하다²⁾.

이러한 시대상황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전통문화’라는 복합적인 연구 영역(건축이나 조경과 같은 각각의 디자인 분야, 예술 영역 등)에서 연관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 또는 비교 연구가 미진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학제적인 연구과정을 통하여 한국적인 전통문화예술과 디자인 영역의 연계성을 추적하고, 세부 영역의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한국문화의 원형질을 심층적으로 밝히는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적인 전통조경의 설계론적 정체성 관점에서 그 속에 내재된 설계개념과 원칙, 미의식, 사상 등을 추적하여 전통조경 작정법(作庭法)과 경관 구성 체계, 경관을 취하는 취경(取景)기법 등을 도출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 응용할 수 있는 조경설계기법 등을 추출하여 주요 키워드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조경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산자수명한 자연의 아름다운 환경을 존중하고, 비교적 인공을 겸양하면서 자연 그대로 높고 낮게 층절을 두어 자연과 조화되도록 구성한데 있다. 이러한 자연성을 지향하는 미적 가치는 마당과 뜰이라고 하는 분절된 영역 다양하게 감지되는데, 앞뜰, 뒤뜰, 안뜰 곳곳에서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자연과 뜰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소박성, 포용성, 탈기교성을 표출하는 정체성으로 다가온다.

조경 영역에서 이러한 전통 설계기법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 응용하기 위한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첫째 단계로 전통조경에 내재된 선조들의 사상과

2) 권영걸, 2005, 한중일의 공간조영, 15쪽, 도서출판 국제

의식을 추적하여 한국의 미적 가치와 디자인적 요소를 발굴코자 하였고, 둘째 단계로 전통조경 디자인에 작용된 풍토환경조건과 시대사적 배경을 추적코자 하였다.

셋째 단계로 한국인의 가치가 잘 투영된 대표적 전통조경 공간 사례(궁궐의 후원인 창덕궁 비원, 강릉의 선교장 사대부 저택, 담양의 소쇄원 별서 원림) 분석, 선조들의 선천적 대의성과 창조적 지혜가 엿보이는 전통조경 디자인 재료와 조형의식, 기법의 추출, 그리고 넷째 단계로 전통조경을 현대적 디자인 가치로 표현한 대표적 사례(서울 파리공원, 용인 희원, 서울 선유도공원) 분석을 통하여 현대조경설계에 발현되기 위해 필요한 전통적 디자인 요소를 의미적 코드와 시각적 코드로 분류하여 맥락적 연계성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코자 하였다.

이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한국전통공간 특히, 전통조경 영역에 함축된 문화적 틀을 기반으로 의미적 코드와 시각적 코드로 구분하여 이론과 실제적 양상으로 설계원칙을 제시코자 한다. 여기에서 의미적 코드의 하위 키워드 개념으로는 유기체적 특성, 사이의 미, 자연과 인간의 조화 틀을 제시하

였고, 시각적 코드의 하위개념으로는 담장, 후원, 다당과 뜰, 식물, 화계와 화오, 정자, 연못, 경관석, 석지와 돌확, 취병 등 10개 요소가 현대조경 표현체로서 어떻게 작용되었는가 하는 연계성을 추적코자 한다.

3장. 연구결과의 요약

한국 전통조경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환경조건을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 터를 잡아가꾸는 것으로, 종교와 사상(자연숭배사상, 음양오행사상, 신선사상, 도가적 은일사상, 유가적 은둔사상, 풍수지리사상, 불교적 자연관 등)을 접합시켜 환경설계 원리로 승화시킨 선천적 대의성이라고 하는 자연관을 발견할 수 있다.

전통조경의 공간디자인 개념은 개방감과 위요감이 동시에 고려되는데, 시각디자인 개념으로 전개되는 경관기법은 사실적 경관인 실경(實景)과 의미적으로 느껴지는 경관인 의경(意景), 자연을 시지각적으로 즐기며 감상하는 가운데 학문 활동, 뱃놀이와 상화연(賞花宴),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 거문고, 낚시, 말타기, 그네타기, 활쏘기, 바둑 등의 행태가 어우러진 유락과 풍류행위가 다양하게 도입되는 유경(遊景), 멀리 조산과 안산은 물론 가까이에서 펼쳐진 만가지 꽃과 나무, 연못 등 원근(遠近) 경물은 물론 꽃구름과 신선숲, 무릉도원,

봉황숲, 동천세계 등 상상의 경관을 취하여 즐기는 차경(借景) 기법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정물 감상의 주 대상이 되는 식물소재로는 낙엽활엽수 위주였으며 화목과 과실수가 주종을 이루었다. 특히, 상징적 측면이 고려되었는데, 풍수사상이나 신선사상, 음양사상, 유교적 규범(소나무, 매화, 국화, 대나무, 난초, 연꽃 등), 안빈낙도의 생활철학(국화, 버드나무, 복숭아나무 등), 은둔사상과 태평성대 회구사상(오동나무, 대나무 등) 등에 의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렸다. 즉, 고아, 부귀, 지조와 의리, 운치, 품격 등을 부여하고 손님과 벗으로 의인화하는 등 정신세계와 함축적인 윤리관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소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신갈나무, 오동나무, 대나무 등이 건물주위에 도입되었고 뜰과 후원에는 복사꽃, 매화 등의 화목류와 괴석과 가산, 석연지, 화계, 누정 등이 도입되기도 하였는데, 선경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신선풍의 작정미학을 곳곳에서 감지하게 된다.

전통조경에서 드러난 선조들의 환경설계기법에 대한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즉, 작정기법과 관련한 관념세계의 경우 ① 현실적 차안의 세계 : 은일, 은둔처, ② 초현실적 이상향의 세계 : 선경, 풍류처, ③ 종교적 피안의 세계 : 극락정토, ④ 현세 발복과 미래낙원의 세계 : 낙토 복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작정미학과 관련한 디자인적 요소는 ① 자연과 화합하는 터 잡기 예술 :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산수융결(山水融結)한 낙토(樂土), ② 형이상학적 관념체계가 반영된 작정 원칙 : 임원(林園), 비원(秘園), 지원(池園), 화원(花園), 의원(意園), 선경풍류처(仙境風流處), ③ 율동적인 경관인식 체계 : 경관과 관경(觀景), 차경(借景), 실경(實景)과 상징경(象徵景), 유경(遊景), ④ 환경윤리가 반영된 조경 재료 : 자연녹지축에 가꾸기 한 수목석토(水木石土)의 생태정원, ⑤ 은유적 탐미관이 반영된 작정기법 : 방지원도(方池圓島), 화계와 화오, 누정(樓亭), 차경(借景), 조산(造山)과 괴석으로 어우러진 축경원(縮景園), 부등변 삼각의 식재 및 배석법 ⑥ 자연의 관입(누정, 살창, 헛담, 취병, 곡수로, 비구, 물레방아, 샘 등) 그리고 ⑦ 채포(菜圃)와 과포(果圃), 약포(藥圃)를 가꾸며 연못, 과학기기(양부일귀, 풍기대, 일영대, 측우기 등)가 도입된 실사구시의 실용 정원 등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조경 설계원칙과 작정기법 등의 원형적 인자 추출을 위한 과정은 함축된 문화사상적 틀을 기반으로 의미적 코드와 시각적 코드로 구분하여 이론과 실제적 양상으로 설계원칙을 제시코자 한다. 여기에서 의미적 코드의 하위 키워드 개념으로는 ① 유기체적 특성(자연형태 모방, 유기적 통일성), ② 사이의 미(차경기법과 시지각적 연속성, 공간의 침투성), ③ 자연과 인간의 조화(자연주의적적 이미지 즉, 지모사상(地母思想), 지형순응, 형이상학적 의미경관 창출) 틀을 제시하였고, 시각적 코드의 하위개념으로는 ① 담장(살창과 헛

담 포함), ② 후원, ③ 마당과 뜰(庭), ④ 식물, ⑤ 화계와 화오(화단 포함), ⑥ 정자, ⑦ 연못, ⑧ 경관석(괴석, 석가산 포함), ⑨ 석지와 돌확, ⑩ 취병(생울타리 포함) 등 10개 요소를 추출하였다.

특히, 이들 10개 요소로 대별되는 조경설계 키워드를 중심요소로 설정하여 현대조경 표현체로서의 양식화, 추상화, 재현, 그리고 은유적으로 대입시킨 사례를 연역적으로 분석하였는바, 현대 조경디자인에 발현될 수 있는 타당성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① 전통조경 디자인의 현대적인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풍수적 관점에서 중요시 다루었던 주변의 자연환경자원(山水, 바람)을 유효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원형지(生土)를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 ② 생태적이며 쾌적한 문화공간 구축을 위해 물 순환 시스템을 응용한 자연형 배수체계 그 자연소재(水, 木, 石, 土 등)의 적극 사용, ③ 경관 측면에서 주변의 자연경관을 생활공간 속으로 관입시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정자와 연못, 마을숲, 녹음수 등을 활용하여 경관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기법, ④ 정사진 뒤뜰을 시각적으로 가꾸면서 기능적으로 토양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화계조성 및 대숲, 소나무숲 등의 군락식재기법, 자연과 인공을 유기적으로 잘 이어주며 엮어주는 담 밑의 화단 조성, ⑤ 자급자족적 친환경 거점공간인 텃밭과 장독대, ⑥ 생태적 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연못과 마을숲, 생태적이며 실사구시적인 소재로 활용된 식물요소와 수경시설, ⑦ 자연을 축약한 축경형 점경물 등 전통조경 설계요소들은 시대를 뛰어넘는 현대적 디자인 가치성 측면에서 건전한 문화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를 계승하는 온고지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
제 2부

전통조경 사례연구 및 분석

1장. 전통조경에 작용된 한국인의 사상과 가치관

한국의 전통조경에 작용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산자수명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종교와 사상을 접합시켜 환경설계 원리로 승화시킨 선천적 대의성이라고 하는 자연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자연숭배사상, 음양오행사상, 신선사상, 도가적 은일사상, 유가사상, 풍수지리사상, 불교적 자연관 등이 설득력 있게 작용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다.

1절 한국인의 자연관

한국은 예로부터 산고수려(山高秀麗)하여 ‘고려(高麗)’라 했고, 산자수명(山紫水明)하여 아침이 맑은 고요한 나라라 하여 ‘조선(朝鮮)’이라 했다. 자연환경 조건은 요란하거나 도도하지 않고 웅장하지도 않은 평화로움 그 자체인데, 자연경관의 특성을 살펴 볼 때 4계(季)가 뚜렷하고 산세가 좋아서 水, 木, 石 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훌륭한 자연풍광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선조들은 아름다운 자연과의 접촉을 위해 도전하거나 변형시키기보다는 생토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애착을 갖고 생활하는 지혜를 터득하였다.

즉, 자연과의 일체, 조화, 융합원칙에 근거하여 자연과 교감을 나누는 생활공간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지형지세에 순응하고 자연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관념 하에서 좋은 자리를 찾고, 특유의 자연정취를 잘 이용하였다. 또한 지형적 특성에 덧붙여 소박한 미를 추구하는 심성으로 한층 더 자연적인 미를 갈구하였고, 자연현상을 자기 자신의 전개로 보는 몰아일체의 관념으로 자연을 해석하고 대입시키는 자연관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주의 사상은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그 속에 축조되는 건물과 조형시설 즉, 건축과 조경 역시 살아 있는 유기체적 생명체로 파악했다.

건축과 조경의 만남으로 형성되는 전통공간 구성 체계는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원형경관을 바탕으로 동식물 등의 생물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自然-터-自然이라고 하는 연속된 경관짜임 체계를 형성하면서 내외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융합되고 동화되는 중용지치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특히, 지형적 특성에 맞추어 건물이 배산(背山)하여 자리하게 되면 자연히 일조에 유리한 남향 방위를 갖게 됨으로서 남향선호와도 합치되는 좌향(坐向)이 이루어졌고 지형의 고저, 향, 방위, 경관 조건에 따라 아름다운 사계절의 자연과 문화경관을 취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입지적 상대성이 존재하게 된다.

즉, 한국의 전통조경에는 선조들의 자연주의사상이 그대로 작용되어 변화



그림 2-1. 화천변에 자리한 안동 하회마을 전경
그림 2-2. 화양구곡의 제4곡 금사담과 암서재

있는 지세에 목적 공간 및 시설이 자리하게 되고, 직선과 직각의 활용에는 무리가 따르게 되므로 지형과 주변 산세에 따라 똑같은 것 없이 불규칙하게 보이면서 잘 조화되는 자리잡기와 경관짜임, 그리고 작정기법과 같은 경관보완이 이루어 졌다. 더욱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려는 민족성과 사상적 관점이 상승작용을 하여 목적공간으로 선택된 지형조건은 단순한 의미의 세속적 공간이 아니라 자연에로의 회귀를 위한 유기체적 중용공간으로서의 조건이 갖추어지도록 공간을 가꾸는 것이었다.

2절 전통조경에 작용된 배후 사상과 가치관

1_ 음양오행사상

음양설은 음양이기(陰陽二氣)로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원리이며, 오행설은 생활에 필요한 민용오재(民用五材)의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 즉 앞에 있는 것에서 뒤에 있는 것이 생긴다는 오행상생(五行相生) 그리고 토목금화수(土木金火水), 즉 뒤에 오는 것이 앞의 것을 이긴다는 오행상승(五行相勝)의 원리이다. 이러한 음양설과 오행설이 습합되어 형성된 음양오행사상은 생활문화에 다양하게 파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 조경, 시설, 경관짜임원리 등으로 깊숙이 작용되었다.

음양적 시각에서 보면 사물에는 반드시 짝이 있는데, “짝에는 반드시 상(上)이 있고 하(下)가 있으며, 좌(左)가 있고 우(右)가 있다. 반드시 전(前)이 있고 후(後)가 있으며, 표(表)가 있고 리(裏)가 있다” 하여 우주 만물은 물론 인간의 사회적 관계도 하나의 짝을 이루며 구성된다고 한다. 주자(朱子)에 따르면 “음양이란 하나의 기에 지나지 않는다. 음기가 유행하면 양이 되고 양기가 응집하면 음이 된다. 정면에 대립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음양은 상대적 이항관계에 있지만 상보적(相補的) 관계임을 설명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음양론적 시각이 형태를 나타낼 때는 공간의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궁궐의 배치에서 ‘전조후침(前朝後寢)’의 제도에 따른 조정은 양(陽), 침전은 음(陰)을 상징한다. 사직단과 종묘의 제례처에서 주신(主神)과 배신(配神)으로 짝하여 모셔진다거나,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원구단은 원형의 형태로, 땅에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은 네모난 형태를 취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한편, 전통공간에서 건물과 마당, 살림집에서 ‘채와 마당’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공간 구성, ‘천원지방(天圓地方)’으로 상징되는 전통조경 연못의 형태는 음양의 접합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례가 된다.

특히, 전통조경의 방지원도(方池圓島)형 연못 조성기법은 네모난 연못에 둥근 섬을 쌓아 올려 땅과 하늘 즉, 음양의 결합에 의한 만물의 생성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며 사람은 삼각을 이룬다는(天=陽=○, 地=陰=□, 人=中庸=△) 상징적 의존관계로 파악한 천·자·인의 삼재사상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 음양오행사상은 인간을 자연에 순응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전통 조경의 식재설계는 물론 토지이용과 동선체계에서 원(圓)·방(方)·각(角) 및 주·종·침의 생성 원리로 작용되었다.



그림 2-3. 논산 윤증 고택 바깥뜰에 도입된 방지원도(方池圓島)형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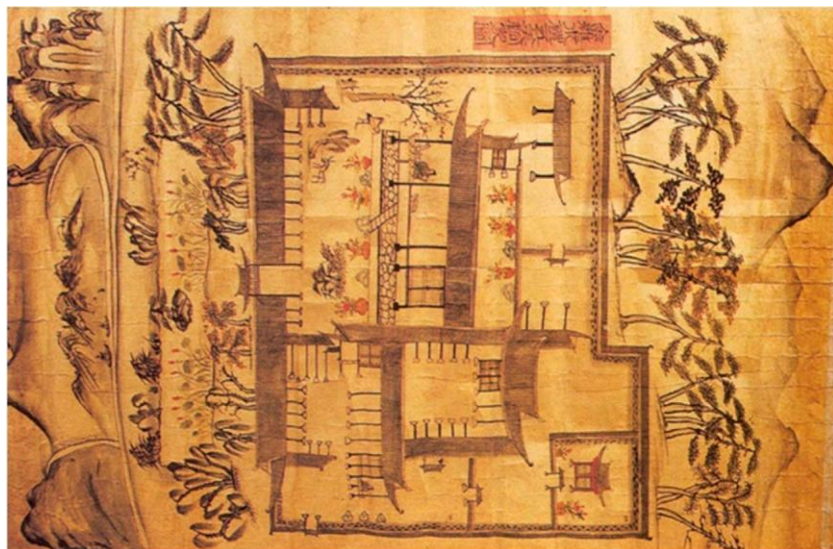


그림 2-4. 전라구례오미동가도(구례 윤조루 살림집과 경관, 1776, 1922년)

2_ 신선사상과 도가사상

‘선(仙)’의 어원은 ‘인재산상(人在山上)’에서 비롯되는데, 예로부터 선가에서는 신선들의 거처가 산위에 있다고 믿어 왔다. 『사기(史記)』 「봉선서(封仙書)」의 기록을 보면 “신산에는 선인이 살고 불사의 약이 있으며, 신산의 모습은 구름과 같아서 가까이 가면 금시 바다 밑에 있고, 더욱 가까이 가면 바람이 몰고 가버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신선사상은 선인(仙人)을 동경해서 현세를 초월하고 불로불사약을 얻어 천지와 시종(始終)하고 하늘을 나는 등 행동과 생활의 실현을 염원하는 사상을 일

낀다. 〈사기〉에 삼신산(三神山)은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州)이고, 풍파가 심해서 다가가기 어려운 곳인데, 선인이 살고 불사약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학설을 계승·발전시킨 도가사상은 천도자연관(天道自然觀)을 기반으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道)를 본받아야 함을 강조하여 도는 천지(天地)의 시작이며 만물의 어머니로서 우주의 생성원리이자 대원칙이라는 존재론적 관념으로서 ‘도’와 ‘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천계(天界)와의 관련성을 중요시하며 교혼을 이끌어내고 생활문화의 품위를 높이려는 기저사상이 전승되고 있었는데, 도교가 유입됨에 따라 이러한 전래 신선사상과 습합하여 이상향의 낙토(樂土)관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삼신산, 십장생 등은 불노장생을 염원하는 상징경관으로 전통조경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누정과 같은 조경시설에도 삼신산 관련 명칭을 부여하거나 연못에 섬을 두고, 괴석과 조산, 십장생을 소재로 한 경물을 도입하는 등 신선사상의 영향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도가사상은 조선시대 은일 및 은둔적 자연관으로 발전하여 조경문화에 깊숙이 작용되었는데 바 관직에서 물러나 유배지에 조영한 사대부들의 별서와 누정 등에서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 부여의 ‘궁남지’ 방장선산(무왕(AD 634) : 穿池於宮南 引水二十餘里 四岸植以楊柳 水中築島嶼 擬方丈(仙山)), 삼신선도와 무산십이봉으로 상징화된 신라 경주의 안압지, 조선시대 경복궁의 경회루원 만세산 신선도, 남원의 광한루원 삼신선도, 강릉의 선교장, 해남의 다산 정약용의 다산초당 등은 연못을 파고 신선도를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외에도 ‘불로장생’과 관련된 십장생(十長生) 굴뚝이나 각종 길상문자(吉祥文字), 창덕궁의 불로문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신선의 수행지로 회자되는 ‘동천석실(洞天石室)’이나 ‘동천복지(洞天福地)’, 그리고 거북바위, 오동나무와 대나무가 연계되는 봉황사상, 뜰에 도입된 학과 소나무, 남원 광한루의 토끼와



그림 2-5. 경주 안압지는 해안풍경, 선경의 이상세계를 반영한 연못안의 삼신선도, 인공적인 조산, 경석 등 신선경의 풍모를 엿볼 수 있다.

거북 장식, 괴석과 석가산기법, 석연지, 풍경이 아름다운 승경지에 자리한 누정문화 등은 신선사상이나 도교와 연관되는 대표적 전통조경 사례들이다.



그림 2-6. 성리학적 세계관을 잘 반영한 죽계구곡 경(敬)자 바위글씨



그림 2-7. 영양의 서석지에는 경정(敬亭)과 사우단(梅, 松, 菊, 竹)을 두었다.

3_ 유가사상과 성리학

유가사상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이자 윤리학이며 종교인데, 정치는 법률이나 형벌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교리와 언행을 통해 백성을 선도하는 것이며, 먼저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이 요건이 된다는 이론이다. 특히, 고려 말부터 일어난 우리나라 유학진흥은 주자의 성리학이 관학적 위치를 차지하였고, 정치체계의 기반이 되었다. 고려 말 전래된 성리학은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신진 지식층의 사상적 무기로 수용되어 이후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문화변동을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새 사회를 지향하는 신흥 사대 부들이 중심이 되어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우고 사회질서의 구축을 시도하면서 조선 왕조의 기본 이념과 주도적 사상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리학에 의한 사회질서 유지는 현실사회의 신분적 질서를 합리화 시켜주며 상하신분 질서로 표출되며, 계층작신분작수직적으로 위계화 하는 것이 우주질서와 합치되는 것이라는 명분을 획득하게 된다.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유가사상과 주자로 대표되는 성리학이 전통조경문화에 끼친 영향을 실로 막대하였으며, 특히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에 의하여 조선시대의 조경문화는 유학(신유학으로서 성리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특히, 조선의 흥유승례(興儒崇禮) 정책은 전국적으로 향교와 서원이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궁궐, 향교와 서원, 민가 등의 시설배치에서 남녀유별, 신분상의 위계에 따라 공간 분할이 이루어 졌다. 종법의 준수, 가례의 보급, 가묘의 장려 등 대가족제도의 기초가 되었으며, 동족마을의 경우 종가를 중심으로 양반층과 상민층의 거처가 차별화되는 배치구조로 구성되었고, 사당은 집안의 동쪽에 자리 잡았다. 안살림과 바깥살림을 엄격히 구별하고, 남성과 여성의 공간(사랑채와 안채)은 채와 마당(사랑마당과 안마당 또는 사랑뜰과 안뜰) 단위로 구분되어 상호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되었다.

구체적으로 전통조경에서 소나무와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 학자수와 삼공수를 상징하는 수목의 도입, 매란국죽(梅蘭菊竹)으로 회자되는 사군자 상징 식물과 연꽃, 강학처와 제향처에 도입된 은행나무와 향나무 같은 식물소재는 유가적 규범이 뜰에 도입된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성리학이 조경문화의 발달에 미친 양상은 서원과 정사와 같은 제향 및 강학처의 위계적 공간구성, 격물치지를 위한 자연관 및 의미경관의 구축, 승경지에 인생 삶의 경로 등을 대입시킨 팔경(八景)과 구곡(九曲)의 경영, 수많은 사람들에 의한 조영된 누정과 별서 원림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한편, 윤선도가 경영한 보길도 부용동 정원이 있는 보길도의 주 봉우리를 격자봉이라 이름한 것은 성리학의 격물치지 개념과 주자의 자양서원을 연결시킨 것이다. 윤선도가 낙서재 뒤쪽 바위를 소은병(小隱屏)이라 하고, 양산보가 소쇄원의 정자와 당의 이름을 각각 광풍각 · 제월당이라 부르고, 이황이 연못 이름을 광영당이라 한 것 등은 모두 주자나 주돈이 등 성리학과 관련된 인물의 행적이나 사상을 흠모하여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양 서석지 정원 누정의 이름을 경정으로 지은 것이나, 함안 무기연당 풍욕루의 편액에 “敬자 한 글자를 써놓은 것은 “경이란 글자는 성학의 처음이자 끝이 된다.” 라고 한 주자의 말과 연관이 있다¹⁾.

4_ 풍수지리사상

자연환경과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관 짓는 풍수지리의 기본 논리는 땅속의 생기를 접함으로써 복을 얻고 화를 피하자는 것으로, 지상(地相)을 판단하는 이론인데, 산 · 수(水) · 방위 · 사람 등 4요소를 조합하여 구성하고, 주역(周易)을 준거하여 음양오행의 논리로 체계화되었다. 특히, 풍수지리적 논리구조는 도읍이나 군 · 현 또는 마을의 터를 잡는 양기풍수 뿐만 아니라 집터를 잡는 양택풍수, 그리고 묘터를 잡는 음택풍수로 구분되는데, 형국론(形局論) · 간룡법(看龍法) · 장풍법(藏風法) · 정혈법(定穴法) · 득수법(得水法) · 좌향론

1) 허균, 2002, 선비가 거닐던 세계, 다른세상

(坐向論) · 길흉론(吉凶論) 등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림 2-8. 풍수적 사신사 구조와
육녀산발형 명국처로 회자되는 순천
낙안읍성 옛 지도(1872년)



그림 2-9. 풍수적 연화부수형 길처로 회자되는 안동
하회마을은 북서쪽 허한 기운을 비보하기위해
화천변에 만송정 송림을 가꾸었다.

양택풍수는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국도와 도읍풍수, 마을과 살림집, 누정과 같은 원림의 터 잡기와 가꾸기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었다. 조선 개국 초 수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계룡과 한양에 대한 풍수적 명당설과 결함에 대한 지적 등은 풍수지리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아산 외암, 안동 하회, 경주 양동마을, 순천 낙안읍성 등은 풍수지리가 마을과 읍성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깊이 관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전통원림의 입지와 조성에도 풍수지리가 관련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보길도지(甫吉島識)』에 나타나는 고산 윤선도의 부용동 원림, 석문 정영방이 조성한 영양 서석지원 등은 풍수적 사신사 구조와 내외명당수를 갖춘 전형적인 풍수적 자리잡기와 경관짜임 사례이다.

살림집의 자리잡기와 가꾸기에도 풍수적 사고가 다양하게 개입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논산 윤증 고택의 경우 노성산을 배산하여 남향으로 자리잡았고, 주작의 오지에 해당하는 남서쪽에 연못을 파서 땅의 기운이 쇠하는 것을 방지하는 비보책을 강구하였으며, 좌청룡과 남주작에 해당하는 조산(造山)을 의도적으로 구축하여 느티나무와 소나무로 수림대를 이뤄 살림집의 지기를 보강하는 풍수적 사신사(四神沙) 구조의 경관짜임을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풍수지리는 도성, 사찰, 향교와 서원, 마을과 주택 등의 자리잡기와 배치는 물론 담장, 연못, 수목의 위치, 인수와 득수 등 전통조경 영역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고을과 마을에 숲으로 도입된 읍수(邑簋)와

동수(洞簀), 살림집 뒤뜰의 경사지를 활용한 화계와 연못조영에 기본원리가 되었고 나쁜 환경조건을 누르는 염승과 허술한 환경을 북돋우는 비보(裨補)라는 경관 짜임을 통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게 하는 배경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오늘날 풍수지리는 땅과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전통적 토지이론으로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균형 측면에서 볼 때 경관생태학과 같은 환경과학논리에 부합된다 하겠다.

5_ 불교사상

약 2600여 년 전 인도의 북동부 지역 카필라바스투라는 작은 왕국에서 태어난 싯달타가 생로병사의 번뇌에서 해탈하고자 오랫동안의 수도 끝에 각자(覺者, Buddha)가 되어 종교화된 불교는 동양사회의 핵심적인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공인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고구려의 소수림왕 2년(372년), 백제의 침류왕 원년(384년), 신라의 법흥왕 14년(527년) 때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가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지대한 영향으로 작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건축, 조경 및 정원문화, 예술 등에 끼친 영향 또한 지대한데, 사찰의 자리잡기와 경관짜임, 즉 공간구성과 가람의 배치, 도입 시설 등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정신문화를 선도하였다. 특히, 조경적 측면에서 삼국시대 후기에 성행된 정토사상과 선종사상은 우리나라 풍토조건과 불교적 자연관에 어울리는 정토사원과 선종사원, 그리고 다원(茶園)과 같은 작정공간의 자리 잡기와 가꾸기에 영향을 주었으며, 불교미술품이자 경관예술품으로서의 석등, 석탑, 석지, 석비, 부도 그리고 조경설계 조형물로서의 계담과 영지, 석단과 석계, 상징 식물 등 수많은 환경예술품을 남겼다.



그림 2-10. 불교적 만물일체론에 기반하여 화엄일승법계도 에 의해 꽃으로 장엄한 공동체 세계를 구현한 순천 송광사(승보사찰) 전경



그림 2-11. 송광사의 계담(溪潭)인 낙하담은 영지(影池)로서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연기론적 입장에서 불교의 자연관은 모든 삼라만상이 서로 얹혀 우주 안의 한 덩어리. 즉 한 생명체인 유기적 공동체로 파악한다. 또한 시공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으며 시작도 끝도 없다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자연현상이나 생명현상의 본질을 자유로 보고 상대적 존재를 인정하면서 대립개념에도 집착하지 않는 초월적 일원론을 견지한다.

따라서 불교의 자연관은 형태나 색채 등이 없는 듯 있음으로 해서 마음으로 관찰하고 인식하고, 인식되는 은근함과 세련됨에 끌리게 되는 미를 지향하는 가운데, 소박성, 포용성, 탈기교성을 추구하는 미적표현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만물 일체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감정 이입이나 자연과 인간의 합일,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합일을 추구하는 표현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음양, 풍수지리 사상	도교, 신선사상	유교, 성리학	불교, 토착신앙
자연순응	불확정성	상보적 생성	생명순환
비보생태	無爲自然	격물치지	관조성
환경질서	이상세계	의미경관	만물일체론
인간+장소변영	인간+장소변영	장소+인간변영	장소+인간변영

그림 2-12. 전통조경에 작용된 배후사상과 의식

2장. 전통조경을 통해 본 경관 미학적 가치

1절 전통조경의 미적 가치

문화를 때로는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전통문화는 생활양식 면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역사 속에서 발전한 농경생활문화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자연의 섭리 가운데 삶을 영위한 생활문화 질서이기에 자연에 대한 깊은 정감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의식 내지 예술과 건축, 조경 등 디자인 영역에서 자연과 같은 환경적 인자는 전통미 추적이라고 하는 가치 측면에서 미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되며, 정체성 있는 문화가 오랜 기간 전승되어 형성되기까지에는 자연환경과 풍토적 기반이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나라와 지역을 막론하고 고유한 자연환경과 풍토문화의 특수성이 있고, 자연환경이 인간의 기질 내지는 민족성에 영향을 주어 고유의 미의식 또는 예술의식을 규정하는 중요한자가 된다.

한국의 전통미를 “자연의 미”, “무기교의 미” 또는 “선의 미” 라고 한다. 조용한 가운데 돌출되지 않으며 물과 나무, 돌과 흙 등 자연재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연에 부딪치지 않는 부드러운 조화미를 추구하며 단아한 아름다움과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美이다. 이렇듯 한국미의 특색은 자연에 순응하는 조화, 평범하고 조용한 효과, 자연이 만들어낸 것 같은 인공적 요소의 융합, 조화와 평형을 탄생시킨 무기교의 기교라고 할 수 있으며, 전통공간에는 이러한 미의식을 바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가치가 디자인적 요소로 다양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의 전통공간은 위계성, 이원성 등 부분적으로 대비의 양극현상을 찾아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융합되어 평형상태를 이루는 중용공간을 구현하고 있음을 추적할 수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조화되는 전통문화공간(건축 + 조경 또는 조경 + 건축)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생활문화공간 자체가 대자연의 일부처럼 보이는바 일본처럼 국간 국면을 축소시키거나 지나치게 加工하지 않고 인위적인 기교를 최소화시키면서 자연을 받아들여 조화시키는 공간설계 원리이다.

원생 자연에 밀착되어 아름다운 풍경미학을 표출하는 조경 공간은 다양한 구성요소(水·木·石·土 등)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동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생물사회의 공생원리를 응용하는 생태미학 원리를 곳곳에서 감지하게 된다. 특히, 부담스럽지 않은 미적 비례개념이 작용되어 살림집 마당과 뜰의 규모, 연못, 정자와 별서의 위치선정 등에서 인간적 척도를 헤아릴 수 있으며, 점경물의 외관이 아담할 뿐 아니라 위요된 공간이라도 친근감이 부여

되는 조영성을 내포한다. 예쁘장한 뒷동산을 배경으로 작성된 자연풍경식 정원의 연못은 섬과 수목들에 의해 수면이 분할하면서 하늘로 연계되는 율동적 아름다움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주변 자연경관을 위에서 또는 아래에서 차경(借景)하거나 정자와 관련된 연못, 괴석, 의인화한 수목 등을 도입하여 상징적 의미경관 취경(取景), 마당과 뜰의 점진적인 레벨차이, 크고 작은 디딤돌의 배치 또는 곡수로와 같은 물길의 흐름 등 곳곳에서 생동감 넘치는 율동미를 감상할 수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공간조형의 정신적 토대는 그들의 세계관을 포함한 철학과 미학에 기반한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유방식, 자연과 경관을 취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한 방법 등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동양과 한국인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전일성(全一性)을 강조하며 일원론적 유기성을 견지하는데, 인간 삶의 현장은 자연이자 우주와 다름없는 하나의 ‘터’가 된다. 한편, 초월세계에 가치를 찾기보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가치를 구현하였으며, 삶의 도(道)를 추구하는 가운데 윤리학을 발전시켜 왔다. 변화하는 일체의 것을 아우르는 ‘도’, 그것은 진리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보다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상황의 이해가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그림 2-13. 정자와 연못, 배롱나무와 소나무 숲이 자연에 관입되어 물아일체의 조형정신을 공유하게 되는 담양 명옥헌 별서 원림

이러한 유기론적 세계관과 상황에서 가치를 구현코자 했던 전통 조형정신은 상황에 따른 조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며, 지형지세 등 입지조건에 따라 가변적이고 상황적인 경관짜임을 시도하였는바 자연과 인간, 건축과 조경 등의 상호 관계성을 공간조영의 기본 정신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공간의 사유방식에 있어서도 변화성, 관계성, 모호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를 보지 않으면 개별향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을 내포하며, 자아인식과 관련한 조형의 생성 또한 주와 객이 하나 되는 과정의 산물 즉, 화(和)로 이해된다²⁾.

따라서 한국의 조경에서는 이것이 조경이고 저것이 자연이라는 구별이 모호할 뿐 아니라 구별이 불가능한 측면도 다분히 상존한다. 즉, 조경적 작정관은 자연을 재단하는 주체적 자아로 구성되지 않음은 물론 자연의 주인이라는 주관적인 입장을 취하지도 않는 형이상학적 공간의식과 조형정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절 전통조경에 작용된 조형의식과 토지예술

전통조경과 연계된 문화적 산물로 표출된 대지조형은 풍토환경, 종교와 사상, 정치사회, 경제, 예술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 전승되는 문화현상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조경에 작용된 토지예술의 조형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성적인 외형적 형태뿐만 아니라 내면적 정신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대지를 즉물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나 상징물, 즉 생토(生土)로 보았으며, 여기에 토속신앙과 신선사상, 음양오행사상, 풍수지리사상 등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다양한 조형물이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상존하는 수평적 스펙트럼으로 전승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조경은 토지예술로 이해되는 대지조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1_ 관념체계로서의 토지예술

특정한 가치와 의미가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을 정신문화로서 관념이라고 한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동양의 음양이나 풍수지리사상, 민간신앙과 도교, 유교, 불교의 사상이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예절이나 관습, 그리고 문화를 통해 그 영향이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자연환경과 풍토조건에 부합되는 비보풍수 관점은 수동적으로 지세에 의지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산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는 방법 등 경관보완 내지는 제한적인 경관짜임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마을입구에 연못을 만들거나 마을 전면과 측면에 안산이 없거나 지형지세가 취약하여 허할 때 조성하는 마을 숲과 조산 등의 경관짜임은 한국적 비보풍수의 전형적인 건전성 사례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 백제 무왕 35년(634년) 기록에는 궁 남쪽에 연못을 파고 네 지안에 버드나무를 심었고 지중에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을 상징한 섬을 만들었다. 통일신라 문무왕 14년(674년)에는 궁 안에 못을 파고 진금기수와 기화이초를

2) 권영걸, 2006, 한중일의 공간조영, 도서출판 국제



그림 2-14. 백제 무왕 조(634년)에 조영된 부여 궁남지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못 가운데 방장선산을 상징하는 섬을 두었다.



그림 2-15. 임실 방동마을 비보숲 장제무림(방수팔경 중 제8경)은 하천변 띠 숲의 환경적 건전성을 보여준다.

가꾸었고(삼국사기), 안압지에는 무산십이봉을 본 딴 석가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금기수를 길렀다(동사강목)는 기록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조형성은 신선사상에 기저를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정원은 동산이 있고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기암괴석 등 수목석이 어우러진 승경지에 터를 잡아 이른바 낙토(樂土)를 가꾸었으나 안압지와 궁남지처럼 평면 지형에 못을 파고 주위에는 가산을 만들며 못 가운데

의도적으로 신선도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풍수적 관점에서 산, 수의 형세와 방위가 인간의 길흉화복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여 분묘, 사찰, 서원, 촌락, 읍성과 도성 등 모든 공간 영역에서 지덕을 손상하지 않기 위한 경관짜임이 강구되었고, 자연의 지세를 자르거나 바꾸는 것을 금기시 하는 등 대지조형의 의미를 더하고 지형의 생명성을 강조하였다.

2_ 생태체계로서의 토지예술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자연스러움 이라는 미적가치에 기반을 두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로운 목적공간을 구축하기 용이한 터를 잡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토지예술의 원리를 체득하고 있었다. 특히, 선천적 대의성과 자연관, 그리고 음양오행과 풍수지리사상 등은 자연 지형을 이해하고 이것을 조형적 측면에서 활용하고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내재된 잠재의식에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관조의 대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고 적응하려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꾸며 보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정원을 만들더라도 토질이 습지이면 습지에 알맞은 나무를 심었으며, 꽃과 나무를 심더라도 인공적인 모양을 내지 않았으며,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순리이기에 돌아 흐르게 하거나 넘쳐흐르도록 하고 작은 폭포로 떨어지도록 하여 중력의 관성에 맡기었다. 이러한 자연관과 생태체계에 기초하여 우리의 선조들은 목적공간을 자리하며 가꾸었다. 살림집의 경우 뒤뜰의 경사지를 활용하는 화계를 일구거나, 앞뜰의 지당과 수로, 낙엽수 위주의 수목 도입, 조산기법, 마을숲과 뒷동산 등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공생할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을 구축하였다.



그림 2-16. 논산 윤증 고택 화계에는 장독대를 두고 죽림을 가꾸었는데,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생태미학의 사례가 된다.



그림 2-17. 물길과 마을길, 흙과 돌과 나무의 물성이 존중된 전통마을 토속경관은 자연에 순응하는 대지예술의 대표적 사례가 된다.

한편, 전통공간에서 나타나는 곡선의 미학은 한국인의 자연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전통정원에서 곡선의 미학은 더욱 밀접하게 자연지형과 관계를 맺고 있다. 부드러운 곡선이 지배하는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기위해서 물길에 맞추

어 동선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세를 허물거나 직선적인 계단을 내는 일은 가급적 피하면서 길을 만들었다. 즉, 길은 산세나 계류를 따라 자연스럽게 돌아 오르내리게 하여 그 길을 걸으면서 율동미를 부여받고 편안한 자연 속에 동화되도록 하였다. 전통조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누각이나 정자 역시 지형지세에 아늑히 안기어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용이하게 외부경관을 취할 수 있도록 절묘하게 조영하였다.

특히, 대지조형의 매체인 흙과 돌과 나무를 사용하면서도 각각의 물성을 존중하였다. 흙과 돌을 고르고 다져 흙집과 돌담장을 만들면서 너른 마당과 뜰을 가꾸었다. 즉, 흙과 돌은 인체의 근육이고, 살이며, 피부로 인식하였다. 흙과 돌 그리고 수목의 색과 결이 다르고 땅의 깊이가 다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환경설계 철학은 풍토환경조건과 생태체계에 얼마나 잘 순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이처럼 우리의 대지예술은 인위적인 힘 보다는 자연의 모습과 관성에 따라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며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생태미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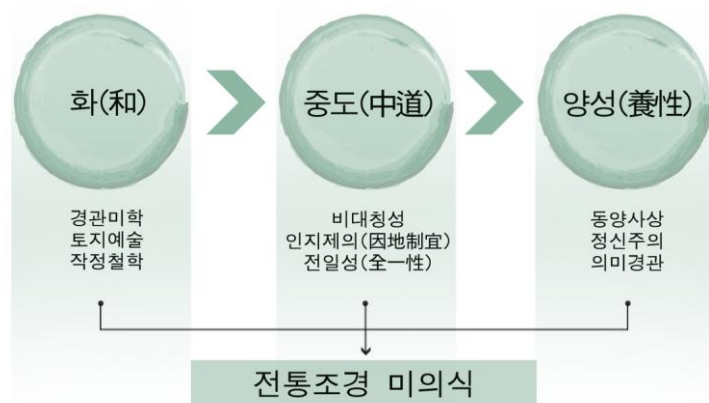


그림 2-18. 전통조경에 작용된 미의식과 키워드

3절 전통조경의 경관미학

1_ 차경(借景) 기법

조경과 같은 환경설계 영역에서 제한된 공간영역을 외부 자연경관까지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기법인 차경(借景)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적극적인 교섭으로 받아들이는 취경(取景) 원리이다. 차경은 인공적으로 구축된 제한적인 공간에서 가시적인 외부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자연환경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한다. 특히, 차경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부경관의 차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3) 이상석, 2007, 오늘 옛 경관을 다시 읽다, 80-87쪽, 도서출판 조경

경관을 바라보는 조망자가 감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빌려온 경관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경관을 체험함에 있어 자연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이입시켜 비가시적인 심상경관영역까지 심리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비로소 능동적으로 빌려온 경관, 즉 진정한 의미의 차경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공간의 아름다움이 생태적인 질서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가변적인 것이라는 점과 자연을 정복하기 보다는 순응하며 융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차경은 전통조경의 내적규율을 잘 표현한 경관 획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조경에서 부담스러운 경관은 울타리와 담장, 수목 등으로 차단하고 그 너머에 있는 농경지와 하천, 마을에 펼쳐진 살림집과 숲 등 문화경관, 앞산(안산과 조산) 등 양호한 경관을 시야에 포착되도록 전개시키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주변에 펼쳐질 경우 인위적인 장치물 없이 자연 경물을 그대로 취할 수 있도록 비워둠의 미학, 즉 허(虛)의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조망하기에 좋은 고지대에 누정을 짓거나 대(臺)를 만들어 즐기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살림집 안대청에서 뒤뜰의 화계와 뒷동산을 양경(仰景)으로 차경하거나, 담장에 살창을 내어 내부공간에 외부의 자연환경을 끌어들이며 보이는 것 뿐 만 아니라 시간적인 변화 그리고 소리까지도 자연을 느끼게 하는 오감만족 작정기법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건물의 창호와 문틀을 마치 그림틀이나 사진틀로 활용하여 아름다운 외부 경관을 관조하는 가운데 즐기며 적극적으로 시각효과를 높이는 기법 등 다양한 양상으로 차경기법이 애용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이상이 산지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산이라는 존재는 시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관요소가 되며, 건물이 입지하고 목적공간의 정면성과 배면성을 갖추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통도시들은 사신사 구조 속에 자리잡아 조산과 안산을 갖게 되고, 자연과 조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경관을 차경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누정을 높은 곳에 입지시켜 허(虛)의 개념으로 투시성을 연출하는가 하면, 백리형국(百里形局)에 입지시켜 보여지거나 보이는 경관요소를 피간(彼看)과 간(看), 또는 경관 관찰점과 관경점(觀景點)으로 설정하는 대지예술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또한 작정 소재는 물론 자연 지형지물, 그리고 양각이나 음각으로 처리한 정원 속의 암반 글귀와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인간의 가치와 의미 등 형이상학적 심상경관의 차경 등 곳곳에서 차경정원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2. 허(虛)와 여백의 미

한국의 조형은 ‘사이(間)’의 개념을 중요시 하는데, ‘사이’의 크기는 공간능력과 그 조형물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변하며 유동적이다. 그것은 기본적



그림 2-19.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에서 차경되는 성주봉 전경



그림 2-20. 인동 병산서원 존덕사 앞마당 : 사람의 개입과 참여에 의해 공간의 본질이 완성되는 여백의 미학

으로 공간(空間)에 관한 개념이지만 시간(時間)과 인간(人間)의 개념을 포괄한다. 서양의 조형이 내적 구성 및 폐쇄적 조직을 강조한 객체적 형태를 추구하였다면, 동양의 조형은 그 객체의 형태와 그것이 놓이는 상황 및 자연환경과의 어울림을 통해 미(美)를 추구하였다. 한국의 공간은 허(虛)한 마루를 두고, 열린 마당을 두어 공간에 무(無)또는 여백의 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개입과 참여에 의해 공간의 본질이 완성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허(虛)’는 ‘실(實)’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서양의 빈(void) 공간과는 달리 기(氣)를 모아 가두는 충만한 공간이 된다. 즉, 한국의 조형미는 조형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자연과 조형물, 조형물과 조형물, 조형물과 이용자 ‘사이’의 관계 설정에 있으며 자연과 인간을 향해 개방된 중용의 시스템을 지향한다.

한국의 전통공간은 독창성과 같은 집념의 아름다움 보다 자연의 도(道)와 기(氣)를 연결하는 정신적이고 미학적인 경험의 설정에 관심을 두었다. 한국에서의 독창성은 다른 공간과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본질에 근원적으로 접합됨으로써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랜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삶 자체가 자연 의존적이던 한국인의 대표적 특성은 환경 친화적인 자연관에 있었다.

전통 조경 관점에서 선조들의 자연의 형태적 질서와 유기적 요소의 원용과 은유를 통하여 조형적 형태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넓게는 조형물의 외관이나 내부공간, 평면계획 등이 동적(動的)이거나 자연성을 느끼게 할 때 이를 유기적 형태라고 하는데, 이 형태는 조형의 모듈이나 규칙성으로부터 해방된 조형 언어를 가지며 환상적이고 감성적으로 지각되는 효과를 갖는다. 조형 형태와 더불어 조형재료의 선택에서도 주변의 자연과 조화되고 순응하는 풍토적인 재료, 즉, 석재, 목재, 흙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살리고 인공을 겸양하는 것이나, 주위의 지형지세에 순응하는 것 등도 유기적 조형 의도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전통조경에서 건물과 마당 또는 건물과 뜰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요소의 조합 그리고 은유적으로 작용되는 사이와 비워둠의 미학 즉, 중용의 미학은 또 하나의 정체성 깊은 경관미학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3_ 부등변삼각의 삼재미(三才美)

윤평섭(1998)은 삼재미란 동양에서 우주를 하나의 완전한 미로 보고 하늘과 땅과 인간의 3형태로 나누고 이것이 만물을 제재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이 세 가지는 3극을 이루어 함께 존립할 때 극치를 이룬다고 하였다. 한글의 창제 원리 또한 삼재(찬·자·인)를 바탕으로 한 음양오행의 기운을 갖춤으로써 ‘하늘의 글’이며 만물의 생성과 변화, 소멸 등 우주의 이치와 법도를 투영시킨 진리의 문자라 하겠다. 동아새국어사전(1991)에 의하면 천지인의 삼재를 기본으로 음양의 조화가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숫자는 오랜 옛날부터 길수 또는 신성수라 하여 우리 민족의 생활과 철학에 깊숙이 배어 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주공간의 삼대요소인 찬·자·인과 음, 양, 중성 등 우주만물을 생성하는 삼(三)의 원리는 조정설계 식재기법의 기본형인 ‘삼각’의 뜻과 상통한다. 우리 민족의 심층의식에는 셋(三)에 대한 관념이 뿌리 깊은 바 그 관념은 고조선의 단군신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⁴⁾. 단군신화를 보면 삼위태백(三危太白), 천부인의 삼, 환웅이 이끈 무리 3천명과 풍백

4) 리영순, 2006, 동물과 수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훈민

(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 3인 등 3의 기록이 수 없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3을 ‘길수(吉數)’ 또는 ‘신성수(神聖數)’로 여겼으며, 고구려의 ‘삼족오’ 숭배신앙도 동일한 양상으로 추적할 수 있다.

불교에서 셋은 삼보(三寶), 삼불(三佛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삼각(三覺), 삼장(三藏), 삼선(三善), 삼성(三性)등을 일컫는 신성수이다. 사상적 사유의 상징으로서 하늘, ‘二’는 땅, ‘一’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세상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인데,

‘주자가례’가 강화되면서 귀착된 삼강오륜(三綱五倫),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삼일장(三日葬), 삼배(三拜), 삼탕(三湯), 삼색과실(三色實果) 등이 그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한자를 풀어서 ‘일(一)’과 ‘이(二)’를 합한 것을 ‘삼(三)’으로 보았다. ‘삼’을 거꾸로 세우면 ‘천[川(泉)]’이 되어 ‘셋’과 ‘샘’은 어원도 같고 무궁무진함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문자가 생성되던 상고시대부터 3은 늘 완벽의 상징이었다. 이는 천·지·인으로 입체면에서 볼 때 한 물체를 상·중·하로 나누어 상부에 해당되는 선을 하늘(天), 중간부분의 선에 해당되는 것을 인간(人), 하부의 선에 해당되는 것을 땅(地)으로 상징하였다.

이러한 사유체계 하에 성립된 삼재미 구현은 높이의 비례미를 4 : 3 : 2와 3 : 2 : 1의 비율을 띠며⁵⁾, 정원석의 배석이나 동양식 꽃꽂이 등에서 애용된다. 특히, 삼재미 원리는 경관석을 도입하는 평면에서 삼석(三石)을 배석할 때도 응용되는데 부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 삼석을 배석하므로 바람직한 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림 2-21. 수원 화성행궁 정문 앞 느티나무 세 그루의 품자형 식재는 부등변 삼각의 미학이 표출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5) 地坊專永, 1972, いけばな, 保育社



그림 2-22. 섬 안에 소나무 세그루를 식재하여 천지인 삼재사상을 잘 반영한 사대부 저택 강릉 선교장 전경

민경현(1987)이 설악산 계조암 서쪽 능선 북쪽에서 발견하여 연구한 ‘극락현(極樂峴) 삼존석’은 국내 최초의 수석(樹石)정원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삼존석은 가장 키가 큰 선돌형의 돌을 중앙에 세워 아미타불을 상징하고 좌우에 산형석의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을 상징하고 있는데, 평면 형태는 천지인(天地人)의 삼재사상을 반영하여 주석, 종석, 첨석으로 구성된 품자형(品字形)을 이루고 있다⁶⁾. 한편, 윤평섭(1998)이 조형소재를 이용하여 삼재미를 추적한 연구에 의하면 조형물은 평면과 입면으로 볼 때 부등변 삼각을 이루는 비례구성이 월등히 높은 선호도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천지인의 높이 배치는 균형미에 의해 축으로부터 거리나 크기, 부피, 무게감, 색채의 농담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되는데, 이 때 천의 위치는 정 중앙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약간 중앙을 비껴 놓는 것이 선호되었고 평면상에서 부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 배치한 것이 선호되었음을 입증한 바 있다.

다양한 문화에 녹아 있는 상징체계에는 특정한 현상, 사물, 관념 등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담겨 있다. 고대 동양의 석조기법은 사실적 자연묘사 방법과 함께 상징적 배석기법을 통해 자연경관을 상징적으로 처리하거나 특정한 사물이나 관념을 상징화하고자 하였다. 그 중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에 의해 구성되는 이치를 상징한 수석기법(樹石技法)은 주석(主石), 종석(從石), 첨석(添石)으로 이루어지는 삼산석(三山石)과 삼존석형(三尊石形) 그리고 품자형(品字形)으로 표현되었다. 이 때 세 개의 정원석은 주석과 종석, 음석(陰石)과 양석

6) 노재현, 이규완, 장일영, 고여빈, 2010, 古代 磨崖三尊佛에서 찾는 三才와 不等邊三角의 미학-서산마애삼존불의 형식미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 제28권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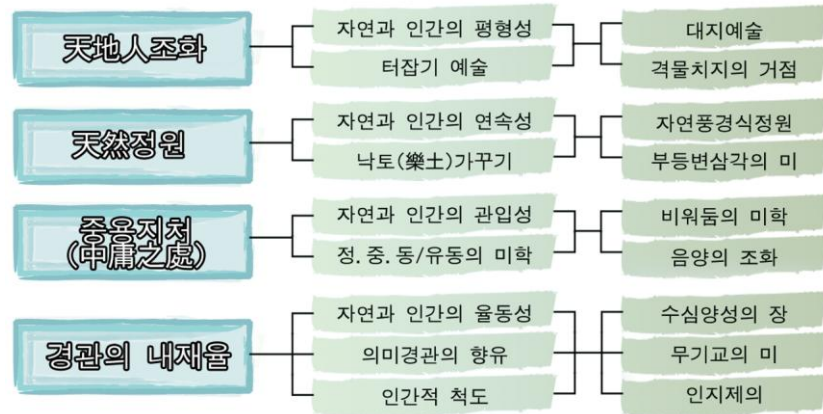


그림 2-23. 전통조경의 환경설계원칙과 경관 미학

(陽石)에 또 하나의 돌이 첨가된 형태인데 첨석이 첨가된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중용석(中庸石)이 더해져 삼재를 이루게 됨으로서 이들 세 개의 돌 사이에는 부등변삼각형상(不等邊三角形上)의 균제미(均齊美)와 함께 심경미(深景美)가 나타나게 된다⁷⁾.

3장. 전통조경에 작용된 풍토조건과 사회적 배경

전통공간의 자리잡기 그리고 전통조경과 같은 가꾸기에서 제반 구성요소들은 시대 및 지역에 따라 차별성을 나타내며 풍토적, 사회적 요인이 깊숙이 작용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풍토적 요인(지리, 지형 및 지질, 기후와 기상, 산출재료 및 생물상 등)은 지역 및 시대에 따라 전통조경 및 시설 조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많았으며, 사회문화적 요인은 풍토적 요인에 차선하여 작용되지만 사회제도, 경제상태, 풍습, 종교, 민간신앙, 민족성 등을 들 수 있다.

1절 풍토적 요인

어느 지역이건 그 지역에는 고유한 자연풍토의 특수성이 있게 마련이다. 자연환경은 그 속에서 생을 영위하는 생활주체로서의 인간의 기질내지는 민족성에 영향을 주고 이를 규정하며, 나아가서는 고유한 미의식 내지 예술의식을 비롯한 제반 문화현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

7) 민경현, 1998, 숲과 돌과 물의 문화, 도서출판 예경

경적 인자의 중요성은 18세기에 Dubos(1670-1742), Herder 같은 학자가 풍토(climat)를 예술적 개화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용인한데서 볼 수가 있다.

지리적으로 한민족의 활동영역은 북방한계가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통하여 변화하였으나 조선시대이후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한반도로 확정되었다. 대륙의 나라 중국과 섬나라 일본을 인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반도적 지리환경이 주는 양면성으로 정치적, 문화적 특질은 우리 민족에게 평화성과 격정성, 적응성과 보수성, 수용성과 완속성을 주었다.

조선시대 이증환이 쓴 택리지(擇里志) 복거총론에 보면 사람의 집터는 양명한 곳이 제일 좋고, 주산은 전면에 들이 펼쳐지고 수려, 단정하며 청명, 아담한 것을 상으로 보았다. 토질은 사토로서 굳고 조밀하며 우물이나 샘물은 배수(背水)하여 맑고 차야함을 언급하였다.

지형상으로 볼 때 한반도는 전국토의 75% 정도가 산록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는 남저북고형의 고저기복이 완만한 노년기 지세로 되어 있다. 산은 많으나 둥글둥글한 저산지가 대부분이어서 가파르고 돌출된 산세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지형에 따라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조건에 위치한 전통공간 자리잡기 형태가 많이 발생하였고 도처에 경사가 완만한 소구(小丘)가 있어 배산지형을 선정하기가 쉬었던 관계로 최소한의 환경조절을 통하여 자연경관구조에 순응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넓은 사적 외부공간의 창출, 건물의 남향배치에 따른 양호한 일조와 통풍 등을 합리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전통공간의 환경수준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산세에 관한 산경표(山經表)를 보면 백두대간은 백두산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틀어 인체의 척추처럼 남진해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기본골격임을 알 수 있다. 산자수명한 금수강산 자연환경을 우리 선조들은 산을 생명의 젖줄로 삼고 흐르는 물을 약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삼았다. 땅의 정기를 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은 한민족의 운명과 사상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풍수지리사상으로 체계화되고 계승되고 있다.

기후조건은 낮과 밤의 변화가 많고 여름과 겨울이 길며 연교차가 커서 더위와 추위의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인데, 강수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며 강우형식은 하기 집중호우형이다. 이처럼 불규칙한 기후조건이지만 온대지역으로 사계가 뚜렷하고 여름에는 적당한 강우와 바람으로 더위를 가시게 하고 겨울에는 삼한사온이 있어 추위를 견딜만한 조건이 된다. 바람은 여름철에 남동풍, 겨울철에 북서풍이 주 풍향으로 부는데 건물의 남향구조 배치를 통하여 기후인자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거나 제어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으며 겨울을 위한 온돌구조, 여름을 위한 대청, 정자, 별서, 정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재료 및 생물상은 자연히 전통공간 조영 및 조경에 영향을 주고 형태와 양식을 제한하기도 한다. 전 국토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

조경소재로 적극 활용되었고 이것이 건축, 토목, 조경 시설의 주구조재로 사용되는 가구식(架構式)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토질은 산성 토양이라 성목을 한번 벌채하고 나면 식림에 적당하지 못하였고 또한 조선시대의 임정(林政)은 무주공산제(無主公山制)를 실시하여 산의 이익은 국가가 점유했으므로 서민들은 금벌이 강요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 석재는 전국토에 분포된 화강암이 널리 쓰였고, 가공하거나 자연스러운 돌, 기이한 돌 등이 전통조경 및 정원시설요소로 쓰여 졌다. 또한 석회석, 모래, 점토, 백토 등이 많이 산출되어 조경 소재로 널리 활용되었다.

한편, 식물상의 경우 상록활엽수림대(후박나무, 동백, 사철나무 등), 낙엽활엽수림대(느티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 등), 침엽수림대(가문비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등), 고산대(눈잣나무) 등으로 대별되는데 자생식물은 3,070여종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상의 경우 자연이 수려하여 많은 종류가 서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고, 조류 및 어류, 곤충, 양서파충류 또한 다양하게 분포하는 등 이러한 생물들이 전통조경 공간에 다양하게 포착되거나 활용되어 변화무쌍한 계절감을 취하면서 경관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출재료 및 생물상으로 해서 한국의 건물구조는 목조로 일관하면서 별다른 변천을 보이지 않았으며, 전통조경과 같은 외부공간 도입소재 역시 인공을 조금 가하거나 천연재료를 그대로 활용하였고 동식물요소와 같은 생물상이 목적 공간을 침경하는 수준으로 작용되었다.



그림 2-24. 설화산을 배산하여 비산비야(非山非野)의 난양지터에 계류를 끼고 자리한 아산외암마을 전경



그림 2-25. 초세적 은일과 도피적 은둔의 보금자리였던 담양의 소재원 별서 제월당과 광풍각

2절 사회적 요인

조선은 고려 말 귀족과 결탁한 불교의 폐해를 딛고 승유억불정책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유교라는 정치이념에 따라 중앙집권적 양반 관료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치기구도 문반과 무반으로 운영되었다. 지방행정조직은 크게 팔도로 구분하여 하부에 부목군현을 두었다. 사회적 신분구조는 고려 때부터 계승되어 온 양반, 중인, 양인, 천인 계층으로 구분된다.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였던 지배층인 양반은 문무의 관직을 독차지한 관료계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지주로서 공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특권층이었다.

조선왕조는 전통사상과 신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성리학에 절충함으로써 고려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독자적인 문화를 건설하였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한국적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겸재 정선(1676-1759)을 필두로 선비들의 탐승과 문인화가들의 기행 사경(寫景)은 기행시와 사경한 그림을 조화시킨 독특한 화풍을 이룩하였다. 사색당쟁사회가 지속되면서 당시 상류계층은 명철보신하며 한적으로 강호가도(江湖歌道)를 창도하는 사회문화상을 표출하고 있다. 절로 된 자연 그대로를 즐기면서 몸을 그 자연 가운데 던져 자연과 더불어 절로 늙어 가리라는 은일과 은둔의 가치관은 우리 민족의 자연관으로 승화되었으며, 동시에 자연을 이해하고 관조하는 방식이 되었다⁸⁾.

특히, 한양중심의 유교문화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누정, 서원, 향교, 별서와

8) 최기수, 2007, *오늘 옛 경관을 다시 읽다*. 도서출판 조경

같은 유교문화경관이 도처에 펼쳐지게 되었다. 유가의 도는 인류도덕 실천의 근본이며, 도가의 도는 자연의 질서 자체를 인간정신의 근원으로 파악한 것인데,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신선사상에 의한 은일적인 이상향의 세계를 회구하게 되었다. 이는 천-지-인(선경-은거지-복거)으로 표상화 할 수 있는데, 경승처에 펼쳐진 수많은 팔경구곡처, 서원, 정사, 별서와 누정 원림의 경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루어진 산수화와 시, 구곡도(九曲圖)와 팔경도(八景圖), 현존하는 곡과 경 등 사례를 통해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와 승경을 보는 관점, 경관의 짜임과 작정활동, 당시의 원형경관과 풍류문화, 생활모습 등을 복합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즉, 인간자신을 하나의 소우주로로 생각하여 설정된 삶터도 소우주 체계로 구성코자 하였다. 이러한 소우주 체계가 목적공간 속에 투영되어 상호 고리모양으로 연결, 순환되어 전체적 소우주를 형성시키는 설계 개념은 구조적으로 기승전결, 계절적으로 춘하추동 등과 같은 경관짜임 체계를 보여준다.

또한, 조선시대 신분사회구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에 기준이 되고 있는 바, 신분계급에 따라 가대(대지), 가사(살림집) 등이 제한되고 또한 중, 상류 주택(중인, 양반층 주택)에서는 가구원이 양반+천인 이라는 복합적 혼거구조가 형성되었다.

대지규모의 제한은 인구의 증가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의 대체적인 규모는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경국대전을 보면 서인(庶人)이 2부(負), 56품(品) 8부, 34품 10부, 12품 15부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바, 1부가 오늘날 약 39평 정도이므로 대지는 서인이 약 78평, 56품 312평, 34품 390평, 12품 585평 정도가 된다. 한편, 살림집 규모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간수 및 크기와 기둥높이 등의 규제와 마름돌, 단청(丹青) 등의 사용제한 내지 금지로 나타난다. 전통시대의 산업구조는 농경사회이었으므로 공간조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구당 경제력은 생산, 이윤, 분배에 대한 척도라 할 수 있는 토지제도에 기인되는 바 크다. 즉, 과전법을 기본적인 토지제도로 삼았는데 경제적 여건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았으며, 하층계급과 상층계급 간의 차이가 심했다. 그 결과 동일 지역에서도 풍토적인 이외에 신분과 비례하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살림집은 물론 누정, 별서원림과 같은 전통조경 문화공간 및 시설의 평면 내지는 양식이 차별성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정치사회 구조적 영향으로 조선시대에는 풍치가 수려한 자연 속에 은거하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내면서 문사철(文史哲)과 시서화금(詩書畵琴)을 논하며 풍류를 즐기기도 하는 이른바 별서정원문화의 꽃을 피우게 된다. 이러한 별서원림은 사화와 당쟁의 심화로 초세적 은일과 도피적 은둔의 풍조로 인하여 세상의 이목을 피하여 번거로움 없이 지내려는 피세의 보금자리였다. 대표적인 별서정원의 현존 사례로 송시열의 남간정사, 양산보의 소쇄원, 정영방의

서석지, 오희도의 명옥현, 윤선도의 부용동 정원 등을 들 수 있다.

4장. 전통조경의 문화사적 변천

한국은 예로부터 산고수려(山高秀麗)하여 고려라 했으며, 4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산수자연풍광을 간직하고 있음으로 해서 선조들은 자연의 질서 속에 순응하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복거공간을 구축코자 하였다. 특히 한국의 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지형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생토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적지에 자리 잡아 터를 가꾸는 일이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으로부터 시작되는 고조선 관련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의 기록에 의하면 환웅이 3,000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정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내려 신시(神市)를 열었다는 개국설화가 전해지는데, 이는 천신 숭배사상과 수목신앙이 결합된 형태라 하겠다. 한편 〈수산집〉에 ‘제천단은 강화도 마니산에 있으니 단군이 혈구(穴口)의 바다와 산의 언덕에 성을 둘러쌓고 단을 만들었다...하늘은 음을 좋아하고 땅은 양을 귀하게 여기므로 제단은 수중산(水中山)에 만드는 것이요, 위가 네모나고 아래가 둥근 것은 하늘과 땅의 뜻을 세운 것’이라 적었다.

고구려(BC 37 ~ AD 668)의 대표적인 정원으로는 동명왕릉의 진주지(평안남도 증화군)를 들 수 있는데 못 안에는 4개의 신선도를 두었다. 장수왕 때(427년)에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면서 안학궁을 조성했는데, 대성산성 남쪽 기슭에 방형의 성벽을 쌓아 건립했다. 한 변의 길이가 620여m 규모이고 동쪽과 서쪽



그림 2-26. 백제 무왕 35년(634년) 기록에 근거해 복원된 부여 궁남지(못 가운데 방장선산을 두었다)

에 해자를 둔 안학궁의 공간배치는 외전, 내전, 침전이 일직선 축선 상에 대칭으로 자리잡는 건물구조인데, 특히, 남궁 서쪽에 연못을 중심으로 정자와 조산, 신선도 등 크고 작은 궁원(宮苑)이 조성되었다.

백제 제 15대 진사왕 7년(391년)에 궁실을 중수하여 연못을 파고 가산을 쌓아 진귀한 물새를 키우고 화초를 가꾸었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있는데, 이곳은 경기도 광주의 동부면 춘곡리 하남 위례성 권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동사강목”에 의하면 30대 무왕 때(634년) ‘신선풍의 궁원을 꾸몄는데, 20여리 밖에서 물을 끌어들여 궁 남쪽에 연못을 만들어 못 가운데 방장선산(方丈仙山)을 상징하는 섬을 쌓았고 못 가에는 능수버들을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부여에 복원된 궁남지(宮南池)는 불노장생을 희원했던 신선사상의 작정 기법이 반영된 대표적인 조경관련 유구이다.



그림 2-27. 현존하는 최고의 조경유적 경주 안압지는 삼신선도를 둔 신선풍의 궁원 사려가 된다.

신라(BC 57 ~ AD 935)는 금성과 월성에서 1천년 가까운 도읍을 경영했는데, 월성은 경주의 남천 북안 구릉에 자리 잡았고 궁성의 형태가 반달모양이어서 반월성으로 불렸다. 성곽을 쌓고 주위 동, 서, 북쪽에 해자를 조성하였으며, 남천은 자연의 해자기능을 하고 있다. 월성의 북서쪽에 신림(神林)인 계림과 대능원이 자리하고 동북쪽으로 동궁이 배치되었으며, 현존하는 최고의 조경유적 안압지(雁鴨池)가 자리한다. <삼국사기>에 안압지는 674년(문무왕 14년)에



그림 2-28. 풍류문화의 대표적 사려인 경주 포석정(전북모양의 유상곡수거)

‘궁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쌓아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라 하였고, 동사강목에는 ‘궁내에 연못을 파고 돌을 쌓아 무산12봉(巫山十二峰)을 본뜬 가산을 만들었는데 서쪽에 임해전이 있으며 연못을 안압지라고 부른다’라는 기록이 있다. 연못 주위와 3개의 섬 안에는 괴석들이 역동감 있게 심어져 있는데 일본의 축경식 정원과 고산수식 석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신선풍의 궁원 사례이다. 경주 남산 서쪽 기슭에 자리한 포석정(鮑石亭, 9세기 이전에 조영되어 정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풍류를 즐겼다는 유상곡수연 유배거(流盃渠)인데, 전복(鮑)처럼 생긴 굴곡진 타원형 수로의 돌 짜임을 보인다.

고려시대(918~1392)에는 왕도를 결정하는데 <주례고공기>에 근거한 궁성의 좌조우사면조(左祖右社面朝) 원칙과 풍수지리에 부합되는 배산임수의 원칙이 반영되었다. 개경의 만월대 왕궁은 전조후침(前朝後寢)의 건물 배치원칙을 따랐으며, 궁원에는 진금기수를 사육하고 누각을 곁들인 동지(東池)가 조성되었다. 모란꽃으로 유명한 사루(紗樓), 청연각의 연못과 석가산, 상춘정의 곡연(曲宴), 팔선전의 화원(花園) 등이 꾸며졌다. 특히, 고려사에는 수창궁 북원에 괴석을 쌓아 가산을 꾸미고 만수정을 세웠으며 격구장을 두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러한 석가산기법과 화원, 곡수연, 격구놀이 등은 불노장생사상과 풍류놀이의 면모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산수경개가 수려한 명승지에 수많은 정자를 지었는데, 자연의 절경을 즐기며 음풍농월 할 수 있는 누정 중심의 원림문화를 경영하였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왕도를 한양으로 정한 데에는 음양오행사상과 풍수지리사상 등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한양은 풍수적으로 북악을 주산하여 청룡인 낙산과 백호인 인왕산, 명당수인 청계와 객수인 한강, 그리고 안산을 남산으로 설정하여 정궁인 경복궁을 자리 잡았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단을 두고 전면에 관청을 두는 삼문 삼조의 궁궐배치를 따랐다. 정궁인 경복궁은 전조후침(前朝後寢)의 공간구조인데, 엄격한 규범성을 나타내고 있다. 왕비의 정침인 교태전 후원은 장대석으로 단을 쌓아 선산인 아미산을 상징하는 화계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초화를 심었고 괴석, 석지, 물확, 꽃 벽돌로 쌓은 굴뚝, 해시계 등을 두었다. 대비전인 자경전의 꽃 담장에는 거북, 모란, 매화, 국화, 연꽃 문양이 그려졌고 후원 굴뚝에는 십장생 무늬가 화전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궁내에는 경회루와 향원정이 아름답게 조성되었는데, 경회루의 방형 연못 안에는 세 개의 방형 섬을 두어 만세산이라 불렀고, 가장 큰 섬에 경회루를 건립하였다. 방지원도형의 섬 가운데 조영된 육각형 정자 향원정은 주립계의 애련설에 나오는 향원의청(香遠益清) 글귀에서 차용한 것인데, 못 속에 연꽃을 심었고 주위에 배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 등이 수림을 이루었다. 1405년 별궁으로 창건된 창덕궁에는



그림 2-29. 연못 안에 삼신선도(경회루와 소나무를 식재한 만세산을 둔 경복궁의 경회루

자연지형을 잘 활용하여 인공이 결합된 절묘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금원을 조성하였다. 30만㎡ 규모로 조성된 이곳 비원(秘苑)에는 부용정과 애련정, 관람정, 주합루 등 30여동 이상의 아름다운 누정과 사대부 민가를 재현한 연경당이 있으며, 계류를 따라 정교하게 접합된 곡수거(옥류천 소요암), 6개소의 연못을 두었는데, 정자와 연못가에는 석분에 심은 괴석을 두어 불노장생을 희원하는 경물로 애용했다.

민가조경의 경우 살림집은 채 1동(棟)과 마당 1정(庭)이 결합된 구조인데, 동쪽에 바깥주인 영역인 사랑채+사랑마당을 두고 북쪽에 최상의 위계를 나타내는 사당이 배치된다. 서쪽에는 안주인 영역인 안채+안마당을 두었고, 하인영역인 행랑채+행랑마당 등이 바깥쪽에 자리한다. 살림집 뜰 가꾸기에는 생토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순응적 방식과 지나친 기교와 인위를 싫어하는 대의성이 작용되었다. 신앙과 자연관, 상징적 세계관 등을 반영하여 수심양성의 장을 구축코자 하였으며, 불노장생의 회구, 지조와 은일 등 상징적 표현을 곁들였다. 내정(內庭)과 외정(外庭), 내원(內園)과 외원(外園)을 가꾸었고, 정자와 수정시설, 화오(花塢)와 화계 등이 애용되었다. 의장 재료 및 색조에서 자연과의 동질성 추구, 낙엽수와 유실수 위주로 상징성과 풍수적 측면이 고려된 재식이 고려되었다.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차경법과 경관 속에서 노니는 유경법이 활용되었고, 경물의 사진틀 효과, 선별적이며 은유적으로 경관을 취하는 태도, 가주의 품격이나 윤리관을 반영한 의미경관의 반영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별서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전남 담양의 소쇄원(瀟灑園)은 1530년대 양산보

(1503~1557)가 은거하며 조성한 곳이다. 소쇄원도 목판본(1755년)에는 김인후가 당시 소쇄원의 정경을 읊은 48수 시제가 새겨져 있다. 소쇄원의 공간구성은 대숲으로부터 전개되는 전원(前園), 5곡 계류 중심의 계원(溪園), 제월당 중심의 내원(內園) 등으로 구분된다. 전원은 대봉대와 상하지(上下池), 물레방아, 애양단으로 이루어지며, 계원은 오곡문 담장으로 부터 오곡암 폭포와 계류 중심부에 자리한 광풍각, 광풍각 대하(臺下)의 석가산 등으로 꾸며졌다. 내원에는 제월당과 오곡문 사이 2단 화계인 매대(梅臺)가 일구어 졌는데 매화, 동백, 산수유 등이 심어졌다. 오곡문 옆으로 자라바위인 오암이 있고, 광풍각 뒷편에 복숭아나무가 심어진 도오(桃塢)가 꾸며졌다.

한국사찰의 입지유형은 첫째, 왕경의 평지에 자리하는 형태로 초기 불교수용의 주체가 되는 왕실 중심의 사찰이 대부분 해당된다. 둘째, 왕경 외각의 산록에 자리하는 형태로 통일신라이후 교리를 배경으로 한 사찰이 해당된다. 셋째, 지방의 산지에 자리하는 형태로 통일신라 후기에 성행한 선종의 영향과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백성들의 지지기반을 얻기 위해 지방호족들이 불교와 관련을 맺게 되면서 사찰입지가 산속으로 정해졌는데, 영지(靈地)신앙으로서의 산악숭배 그리고 풍수지리사상 등이 영향을 끼쳤다. 공간배치는 금당과 탑의 배치를 기준으로 탑 중심형, 탑금당 병립형, 금당 중심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탑 중심형은 탑이 중심이 되어 사찰의 전체 공간구조가 결정되는 형식이고, 탑금당 병립형은 중문, 금당, 강당이 남북 축선 상에 위치하며, 금당 전면에 동탑과 서탑이 남북축으로 동일한 거리에 배치되는 구성이다. 금당 중심형은 삼문과 누문을 지나 중심공간에 이르는 진입체계를 갖는데, 중심공간은 주요건물에 의해 둘러싸인 방형을 이루며 통일신라 후기 이후 완성되었다.

사찰의 공간구성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 계층적 질서 추구, 공간 상호간의



그림 2-30. 도산과 낙천을 배산임수하여 자리한 안동 도산서원

연계성, 인간적 척도의 유지 등 원칙이 작용되었고, 사찰이 입지한 지형적 특성과 공간 규모, 성격에 따라 남북 방향을 중심축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강조되었다. 조경적 측면에서는 정토정원, 선정원, 다정(茶庭) 등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경사구간의 단차조정을 위한 석단과 석계, 영지신앙과 못물을 상징하는 못과 담(潭), 화계와 화오, 석연지, 석등과 석탑, 사리탑, 누각 등을 시설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불교적 교리의 상징 식물로 보리수나무, 피나무, 연꽃, 치자나무, 매화나무, 대나무, 모란, 동백, 상사화, 불두화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조경의 대표적 사례로는 궁궐조경의 경우 부여 궁남지, 경주 안압지와 포석정, 경복궁의 경회루와 향원정, 창덕궁 금원(비원 : 秘苑) 등을 들 수 있다. 민가 및 별서의 경우 강릉 선교장(船橋莊)과 논산 윤증 고택, 구례 운조루, 서울 석파정(石坡亭)과 성락원, 보길도 부용동(芙蓉洞)원, 담양 소쇄원과 명옥헌, 식영정, 영양 서석지(瑞石池)와 봉화 청암정(靑巖亭)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서원의 경우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그리고 사찰의 경우 경주 불국사, 순천 송광사와 양산 통도사 그리고 합천 해인사, 영주 부석사 등을 들 수 있다. 산수 및 풍류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누정대(樓亭臺)의 대표적 사례로는 삼척 죽서루, 남원 광한루, 진주 축석루, 밀양 영남루, 수원 방화수류정, 정읍 피향정, 진안 영모정, 함양 거연정, 예천 초간정, 양양 의상대, 강릉 정포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 승경지에 경영된 팔경구곡처 사례로는 관동팔경, 단양팔경, 경포팔경, 그리고 죽계구곡, 화양구곡 등을 들 수 있다.



제 3부

대표디자인

1장. 전통조경에 작용된 선조들의 사고와 정신

1절 녹색사상 : 친환경 생태주의

서양은 경험론과 합리론 논의의 기초가 존재론으로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는 반면, 동양은 자연과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박상환(2002)은 자연에 대한 서양철학의 근간을 ‘현존재의 실존’, ‘본질’에 대한 실체론으로, 동양 철학을 유기체적 관계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동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유기체적 관계론 입장에서, 서양은 자연과 인간을 존재론적 다른 개체로서 파악한다. 또한 홍윤순(2002)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유로 치환하면서 서구사유의 근간을 실재론으로 동아시아 사유의 근간은 관계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실재론과 관계론을 대입시킨 주요 관점 중에 하나로 생태를 상정할 수 있다. 생태(生態)의 어의를 한어대사전에 근거하면 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냄, ② 생동적인 모습, ③ 생물의 생리특성과 어우러진 생활 습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생태라는 단어는 생기나 생동감, 생명 등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삶의 꼴을 의미한다. 생태개념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설정에 있다는 점에서 서구와 동양의 인식론적 관점의 차이는 생태개념이 우리의 사고에 기초할 경우 서양과 다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동양의 사고는 자연과 인간의 존재론적 근원을 동일시하는 반면 서양의 경우는 개체의 존재론적 차이를 인정하는 사고를 견지한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분리의 관점이 서양에서 중시된다면 동양적 사고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통합을 상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생태개념의 핵심적 내용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흔히 사용되는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 및 유기적 관계라는 것은 표현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일 뿐, 보다 면밀한 의미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독립된 개체로서 상호관계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존재론적 동질성의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

친환경 녹색사상이라 할 수 있는 생태주의적 입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추출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전통문화경관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은 일정한 유역 규모에서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던 에너지와 물질, 생물, 그리고 정보와 같은 객체들의 내부순환으로 보장되었다. 묘지나 농경지로부터 식수원을 보호하고, 마을숲과 연못, 둠벙, 조산 등과 같은 경관보완을 통하여 건전성을 지켜나갔던 것이다.

한편, 전통조경 식물로 애용되는 소나무와 잣나무, 대나무는 의리와 지조의 상징으로 인식되는데, 추운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생태적 속성에 기인한

다. 매화와 연꽃, 난초와 국화 등은 은은하게 후각을 자극하면서 계절미를 대변하는 식물로 선비들의 유교적 윤리관 및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의인화되고 이상화 되면서 정원식물로 애용되었다.

2절 전일적 사고 : 천지인의 유기체성(화 : 和)

한국의 전통사상은 서구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달리 전일적이며 유기체적인 세계관에 근거한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의 대립도 없으며 내용과 형식간의 모순이나 부조화가 발생되지 않는 내적 동일성의 상태를 지향한다. 자연을 생명체로 보고, 부분과 전체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고하자는 유기체적 특성은 전통사상의 자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유기체 성장 원리의 모방은 자연계 현상의 성장개념을 전통공간의 성장 과정으로 인식하여 구성하는 표현원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기체는 이미 완성된 것처럼 자신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으로 스스로 발전하면서 전체 속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공간에서는 자연순환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전체와 개체라는 상대적 개념으로 분리되어지고, 개체를 이루는 단위공간들은 각각 독립된 기능을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구성 원리에 의해서 전체와 결합되고 있다. 이들 전체는 상호 긴밀한 역동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체는 개체대로 전체는 전체대로 각기 자연에 대한 흡인력과 견인력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체간의 대립을 용인하고, 역동적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는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한국전통공간에서 조정영역은 자연과 인간 문화가 잘 융합되어서 자연 그 자체의 일부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 예로 전통마을과 살림집의 광역환경 체계를 보면 극명한 추적이 가능하다. 풍수적 사신사구조하에 정주환경의 외형국은 내형국을 포함하고, 마을은 단위 살림집을 포함하면서 작은 소우주공간에서 보다 커다란 대우주공간으로 나아가는 유기체적 경관짜임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한국 별서정원의 대표사례가 되는 소쇄원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진입부의 대숲을 지나 점진적으로 열린공간을 체감하게 되는데, 과정적 체험동선에서 조우하게 되는 100척 길이의 담장은 공적 영역과 사적(私的)영역을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면서 이어주는 유기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담장을 따라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꺾임과 시지각적 변화, 물의 흐름을 존중하여 헛담장을 축조하여 담장 밑으로 물을 관류(貫流)시키는 작정기법, 계류를 마주하며 자연지형에 기대어 세월당과의 경계에 국한하고 있는 광풍각에서의 열린 시스템은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

고 있는 것이다.

3절 중용적 가치 : 불확정성

한국의 살림집 주변에 펼쳐지는 경관에 눈을 돌려 보자. 뒷동산에 기대어 자리한 주택은 앞뜰과 뒤뜰이 둘러싸고, 안뜰과 바깥뜰이 짝을 이루는 내정(內庭)과 외정(外庭), 내원(內園)과 외원(外園)의 경관짜임 등 지속가능한 생태적 경관요소들이 그물망처럼 네트워크를 이루어 하나의 커다란 자연정원이 구축된다. 또한 건물 내외부 영역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살림집의 대청마루나 텃마루, 누정 등은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양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중용의 미학 공간이 된다. 특히, 전통정원에서 뜰과 마당은 용도와 기능적 측면에서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담장과 건물 외벽으로 규정된 다목적 공간이면서도 자연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외부공간이라는 비결정적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1_ 비워둠의 미학

우리의 전통공간에서 방과 대청, 마당 등의 단위공간은 여러 행위와 활동이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다. 마당은 자연과 많은 사람들의 통로, 작업, 관망, 행사 등의 다양한 행위가 잠재되어있는 장(場)으로서 특별한 장치적 도구가 첨가되지 않은 채 자연 재료와 질감이 노출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마당이란 우리에게 비워있음, 즉 허(虛)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허라는 것은 공간이 아닐 수 있으며, 모든 존재가 존재함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갖는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가능성이고 실현되기 이전의 잠재태이며, 존재의 모든 잠재력인 것이다.

이처럼 전통공간에서 도입된 마당이라고 하는 비워둠의 미학 공간은 잠재력을 갖는 불확정성의 공간이 된다. 불확정성이란 단위공간이 상황에 따라 여러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전용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하나의 단일 기능으로 공간을 정의할 수 없는 특질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따라서 전통조경에서 추출되는 뜰과 마당, 정자의 누마루, 연못과 계류수 등은 다양한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잠재태 영역으로서 특정한 누구의 소유물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격이 주어지지 않는 ‘다양성’, ‘불확정성’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_ 뜰(정원, 마당)의 연속성

담과 벽은 공간을 분할하여 공간의 관계를 만들며, 공간의 사이사이 또는 공간과 형태 사이의 동선을 규정짓는 경계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통공간은 창과 문, 벽과 담, 석단과 화계 등의 명확한 구분이 가변적이다. 전통공간

에서는 고정된 벽보다 문이 벽의 역할, 벽이 문의 역할을 하며 화계와 석단이 경계펜스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각 방에서 마당으로 면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문들은 열고 닫음에 있어서 외부공간의 조망 및 환기의 역할과 통행의 목적으로서 문의 역할을 동시에 수용한다. 들어열게 문은 문의 기능과 벽의 기능을 가지는 요소로서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겨울철에는 문으로서의 기능과 벽의 기능을 수행하고 여름철에는 들어 올려 젖혀 놓음으로써 외부공간으로 확장을 도와주면서 공간의 가변성을 유도하게 된다.



그림 3-1. 영양 서석지 연못과 경정

전통공간은 방의 문을 개폐함에 따라 공간의 확장과 폐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대청의 문을 열어젖히게 되면, 마당과 대청의 공간의 경계가 소실된다. 또한 대청 너머의 뒷마당까지도 공간의 투명성에 의해 공간은 더욱 확장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 구조체의 조작을 통한 내부와 외부의 연속성은 전통공간의 비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부엌이나 창고와 같이 작업과 수납이 주목적인 공간을 제외하고 인간의 주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공간, 즉 단위 공간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문들은 폐쇄적인 문이 아닌 반투과적인 살창이나 창호지문 등이다. 창호를 통해 내부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담게 되고 우리 조상들의 정서는 자연과 언제나 호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통공간에서 추구하는 투명성은 단순히 내부 공간의 외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경계 소멸을 통해 양방향 공간의 연속적 결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연과 인간, 내부와 외부의 개념처럼,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들의 합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속적인 생성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천연정원	➤	생토(生土), 차경(借景)	➤	차경정원
융우자연(融于自然)	➤	방지(方池), 원도(圓島)	➤	연못
自然의 축경(縮景)	➤	가산(假山), 괴석(怪石)	➤	괴석정원
인지제(因地制宜)	➤	화계(花階), 화오(花塢)	➤	후원(後園)
유기적 경물, 풍류처	➤	누(樓), 정(亭)	➤	풍류정원
수심양성(收心養性)의 장	➤	곡(曲), 경(景)	➤	의원(意園)
생태적 상징기호	➤	식물(植物)	➤	화원(花園)

그림 3-2. 한국 전통조경에 작용된 작정기법과 의미요소

2장. 한국인의 조형의식이 잘 투영된 전통조경 사례

1절 창덕궁 후원 : 비원(秘苑)

1_ 개관

창덕궁(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12호)은 1405년에 창건된 조선왕조의 이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룡동 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약 405,636㎡, 후원의 면적은 약 300,000㎡이다. 창덕궁의 후원은 자연구릉지에 왕가의 휴식과 유락을 위해 수경한 원림으로서, 후원(後苑), 북원(北苑), 또는 금원(禁苑)으로 불렸으나, 조선말부터 비원(秘苑)으로 통용되고 있다. 특히, 창덕궁 후원의 원형경관을 추적할 수 있는 동궐도(1830년대 이전에 도화서 화원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가 현존하는데, 오른쪽 위에서 비껴 내려 보는 시각으로 뒷동산과 언덕에 둘러싸인 창덕궁과 창경궁 전각은 물론 후원 일대의 정자와 연못, 수목과 식수대, 연꽃, 괴석, 취병과 판장, 석교, 박석포장 등 세부적 조경요소를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선명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양은 진산이 삼각산으로 그 내맥은 도성 내에 이르러 네 개의 줄기고 갈라지는데, 그 중 도성북쪽의 한 봉우리인 응봉을 주산으로 삼아 그 맥이 닿는 곳에 창덕궁이 조영되었는데, 지형은 굴곡이 많고 불규칙하여 평탄한 곳이 거의 없는 곳이었는데 전체 시설을 한 곳에 배치시킬 때 수반되는 기존 지형의 파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몇 개의 평탄지를 중심으로 분포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창덕궁 후원은 서북쪽이 높고 동쪽으로 트인 형국이 얹으면서도 지형의 굴곡이 지극히 아기자기한 산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산세에 숲이 깊어 그늘진 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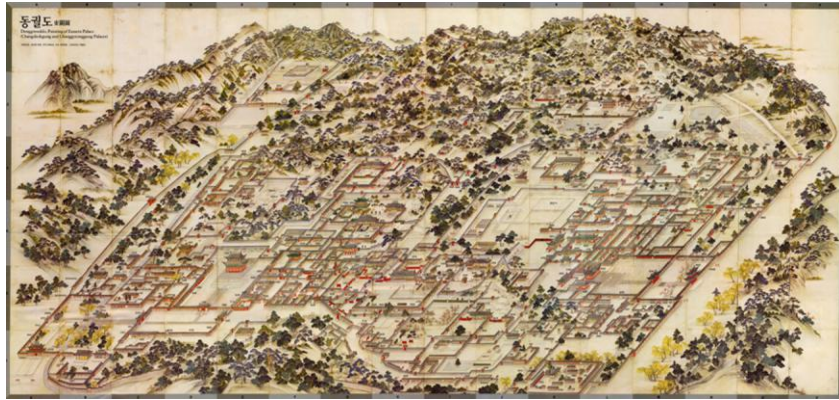


그림 3-3. 조선시대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관도(東關圖), 19C 초,

새소리 따라 걷다보면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비밀의 정원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첫째 단계로 갑자기 펼쳐지는 주합루의 당당함, 주합루와 마주하여 곧고 반듯하게 짜인 연못과 물속에 두 발을 담근 부용정, 높은 대위의 영화당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둘째 단계로 숲속에 숨겨진 원로 모퉁이를 돌아서 오르면 불로문이라는 석문과 애련지를 만나고 계류수와 사각형 연못을 낀 연경당을 마주한다. 셋째 단계로 반도지 주변에 펼쳐진 관람정과 존덕정과 같은 정자를 만나면, 네 번째 단계로 가장 깊은 옥류천에서 태극정, 소요정, 청의정, 농산정 등 수 많은 정자와 조우한다¹⁾.

이러한 시작과 맺음의 연속경관 구성체계속에서 이 비밀의 정원은 그 모습을 미리 드러내는 법이 없다. 부용지에서 연경당, 반도지, 옥류천에 이를 때 까지 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더 인위적인 요소가 없어지며 정자도 더 작아지는 가운데 연못도 인공에서 자연으로 연속적 변화가 의도성을 갖고 짜임 된 것처럼 전개된다. 한국 정원의 가장 중요한 환경설계 원칙, 즉 자연 속으로 관입되는 아름다운 자연의 국면을 12폭 화첩에서 한 폭 씩 펼쳐보이듯 비밀의 정원은 그렇게 펼쳐져 나간다.

2_ 창덕궁 후원에 표현된 경관미학

창덕궁 후원은 영역의 특징에 따라 첫 번째 영역, 부용지·주합루 일원, 두 번째 영역, 애련지·연경당 일원, 세 번째 영역, 반도지 일원, 네 번째 영역 옥류천 일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²⁾.

첫째, 후원의 부용지(芙蓉地)·주합루(宙合樓) 일원은 조선후기 정조 즉위년(1776년) 조성 당시, 임금의 봉안각(奉安閣)과 규장각(奎章閣)으로서 위엄과 엄숙함을 갖고 있었으나, 순조 이후 규장각의 기능이 축소되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이문원으로 넘어가면서 연회나 휴식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나

1) 정영선, 2000, Locus, 조경문화

2) 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동양조경문화사, 149-154쪽, 도서출판 대가

타나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휴게·완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시각적 측면에서 부용지 주합루 일원은 부용정에서 방지 안의 원도로부터 어수문에서 화계석단을 거쳐 주합루에 이르기까지 강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부용정 일원은 축선으로 양분되는 경직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는 주합루의 수문과 화계에 식재된 수목 그리고 부용지 연못 섬에 도입된 수목(소나무와 단풍나무)의 형태로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인공미와 자연미가 상생하며 순응한 사례이다.

부용지·주합루 일원은 내의원을 옆으로 석담을 끼고 북쪽으로 뻗은 언덕길을 지나면 왼편으로 흰하게 펼쳐진 곳이 나타나는데, 이곳은 삼면이 위요되고 중심에 부용지 연못이 자리하며, 동쪽에 영화당이 동향하고 있다. 남쪽으로 부용정이 주합루를 향하고 있으며 서편으로 사정기비각이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어수문이 있고 경사진 석단(화계) 위로는 2층 누각(2층은 주합루, 1층은 규장각)이 있다. 주합루 권역은 긴 장방형인데 동, 서, 북쪽은 담장으로 둘러져 있고 남쪽 전면은 석단 위에 취병이 담장 사이를 연결하여 주합루와 연못을 분할하고 있다. 주합루의 왼편으로는 서향각이 있고, 서향각의 뒤로는 희우정이 있으며, 반대편에는 제월광풍관이 있어 영역성을 형성하는 배치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수목은 주목, 단풍나무, 소나무, 산철쭉, 모란, 앵두나무, 진달래, 철쭉, 옥매 등이 도입되었다.

부용지 연못은 34.5×29.4m 크기의 방지 형태인데, 물이 지하에서 솟아오르며 비가 올 때는 서쪽 계곡의 물이 용두의 입을 통해 입수하고, 출수는 동쪽 영화당 쪽이다. 연못의 중앙에는 직경 8m 가량의 둥근 섬에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도입되었고, 못에는 연을 가꾸었다. 점경물로는 소맷돌, 대석, 괴석, 석함, 석등 등이 도입되었는데, 동궐도에는 화려한 취병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방지원도형 연못을 사이에 두고 부용정과 주합루가 마주하는데, 주합루 전면 화계에는 어수문과 대나무 취병이 펼쳐진다.

둘째, 창덕궁 후원의 주합루 권역에 속해 있는 영화당 왼쪽을 끼고 동쪽 넓은 마당을 지나 애련정 쪽으로 진행하면, 금마문 옆 담장 중간에 담장을 끊고 다듬은 두 개의 주춧돌 위에 통돌을 이용하여 ㄱ모양으로 깎아 세운 불로문에 이르게 된다. 불로문 내측의 공간은 동, 서, 남쪽이 담으로 막혀 있고, 북쪽만이 애련지에 접해 열려 있는 공간구성을 보이는데 이는 애련정에서는 물론 가오현, 의두각에서 애련지로의 조망에 대한 배려에 의한 것이다.

애련지·연경당 일원은 자연 구릉과 계류 등을 활용하여 정자를 세우고, 계류를 막아 사각형 연못을 만들었다. 숙종 18년(1692년)에 애련정을 조영하면서 방지와 정자를 중심으로 한 수경공간을 완성하였으며, 순조 28년(1828년) 후원 내 대표적인 연회행사의 장소였던 연경당을 동쪽과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사대부 저택을 본뜬 민가풍으로 개진하였다. 특히 기오현 뒤쪽에는 경관적으로 의미 있는 대(臺)가 조성되었는데, 오늘날 추성대(秋聲臺)와 초연대(超然臺)라는 암각 각자만 남아있다. 특히, 애련정의 후면은 어수당으로 부터의 평탄한 단이 계속되는데, 이 단의 북쪽은 자연구릉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는 석대에 얹혀진 괴석이 애련정 좌우에 1기씩 대칭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뒤쪽 언덕에는 애련정을 배경으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남향하여 자리한 연경당은 대문(장락문) 앞으로 맑은 물이 흘러내리도록 내명당수인 물길을 도입하였으며, 물길을 가로지르는 석교 양측에는 석분에 괴석을 놓아 월궁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돌다리를 지나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행랑마당에 이르게 되는데, 행랑마당에서는 안마당으로 통하는 수인문과 사랑마당으로 통하는 장양문이 있으며, 정심수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고, 장양문 앞 석계를 사이에 두고 대석이 양쪽으로 놓여 있다. 선향재 뒤편 후원에는 건물 기단과 평행하게 다듬은 사괴석을 사용하여 바른층 쌓기 한 4단 화계를 조성하였는데, 최상단에는 농수정을 두고 석난간을 둘렀다. 사랑마당과 안마당 사이에는 담을 두어 공간을 분절하고 있는데, 담 아래에는 땅에 직접 심은 괴석과 석함에 심은 괴석이 줄지어 놓여 있다. 식물요소로는 갈참나무 군락을 배경으로 느티나무, 소나무, 주목, 음나무, 단풍나무, 주목, 산철쭉, 앵두나무, 진달래, 철쭉 등이 도입되었다.

수공간으로 연경당 서북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행랑채 앞을 돌아 흐르게 만들어 놓은 계류 위에 돌다리가 놓여 있다. 이 계류는 연경당 남쪽 방형 연못으로 흘러들고 이곳에서 나온 물은 판돌 가운데를 우묵하게 파서 만든 물길을 따라 한길 낮은 자리에 놓인 물확으로 작은 폭포가 되어 애련지로 들어간다. 애련정은 전면 1칸, 측면 1칸의 규모로 연못 속에 몸체를 내민 사모지붕 정자로 이곳에 오르면 연못 속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점경물로는 괴석과 석함, 석문, 석누조 등이 위치한다.

셋째, 애련지를 나와 북쪽으로 구릉 밑을 돌아가면 좌측에 자연곡선형의 반



그림 3-5. 애련정은 연못 속에 몸체를 내민 사모지붕 정자로 연못 속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주변에 점경물로 괴석을 두었다.



그림 3-6. 자연의 굴곡을 닮은 반도지 동쪽에 자리잡아 물속에 뜬 것 같은 부채꼴 모양의 관람정(일명 선자정)

도지가 있고, 연못의 동쪽 지안에는 물속에 뜬 것 같은 부채꼴 모양의 관람정이 있다. 궁궐지에는 관람정의 모양이 부채꼴인 까닭인지 ‘선자정’이라 기록되어있다. 반도지는 한반도 모양과 같다 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일제강점기 때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관람정 서쪽 언덕 위 숲 속에는 승재정이 자리하고, 앞쪽으로 기이한 괴석이 놓여있다. 또한 반도지 북쪽 한 단 높은 곳에는 반월지가 있고, 반월지와 반도지 사이 계류에는 단아한 형태의 홍예석교가 설치되어 있다. 석교를 건너기 전 양쪽에는 석함이 좌우에 하나씩 놓여있고, 다리를

건너면 왼쪽에 해시계를 받치던 일영대가 있다.

석교를 건너 들어가면 1644년에 건립된 육각형 정자 존덕정이 자리하는데 지붕은 난간주를 덧대어 얹어 겹처마지붕처럼 보이고, 정조가 자신의 호를 쓴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 편액이 걸려 있다. 석교 아래는 석치처럼 만들고 판석으로 물막이를 하여 계류가 고였다가 넘쳐서 반도지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였으며, 산록에 흘러드는 물은 계간에 폭포가 되어 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존덕정 서쪽 산기슭에는 왕자들이 공부하는 뽕우사가 있는데 주변에 수림이 울창하여 한적한 분위기를 준다.

넷째, 반도지를 지나 북쪽의 울창한 숲 속의 고갯길을 오르면 취규정이 있고 고개 넘어 북쪽 계곡으로 내려가면 가장 깊은 옥류천 계류에 다다른다. 이 계정은 1636년 인조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서 청의정, 소요정, 태극정, 농산정, 취한정 등과 같은 수많은 정자들이 자리한다. 이 중 청의정은 공원 안의 유일한 초정인데, 소박한 지붕과는 달리 내부의 천장은 매우 화려한 무늬와 채색으로 묘한 대비를 이룬다. 한편 청의정 옆 암반에는 인조 때 판 샘물 어정이 있다. 계류의 물줄기는 매봉에서 흘러내린 것이며, 계류 위에는 간절한 판석의 석교가 여러 개 놓여 있다. 어정 밑의 계류에는 거대한 소요암을 C자형으로 다듬어 물줄기가 돌아 흐르도록 하여 유상곡수놀이를 위한 풍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곳 암벽에는 인조가 쓴 ‘옥류천’ 이란 각자와 1690년 숙종의



그림 3-7. 옥류천 계류변에 자리한 청의정은 공원 안의 유일한 초정인데, 친원지방의 우주관이 표출되는 조영성을 보여준다.

“비류삼백척 요락구천래 간 시백흥기 번성만학뢰(飛流三百尺 遙落九天來 看是白虹起 蕃盛萬壑雷)” 라는 ‘오언시’가 새겨져 있는데, “흐르는 물은 삼백 척을 날아 흘러, 아득히 구천에서 내려오누나, 보고 있노라니 문득 흰 무지개 일어나고, 일만 골짜기에 우레 소리 가득하다” 는 뜻이다³⁾.

숙종의 ‘상림삼정기(上林三亭記)’에는 태극정, 청의정, 소요정 등 세 정자를 주된 경관요소로 꼽고 있는데, 모두 인조 14년(1636년)에 지은 정자들이다. 특히, 소요정 계류 암반에서 배풀어졌던 곡수연은 소요유상(逍遙流觴)이라 하여 상림십경의 하나로 전해진다.

상림십경은 제1경 관풍춘경(관풍각에서 임금의 눈을 가는 봄 풍경, 춘당지 일대의 내농포), 제2경 망춘문앵(망춘정에서 듣는 피꼬리 지저귀는 소리, 망춘

3) 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동양조경문화사, 도서출판 대가



그림 3-8. 옥류천 소요암을 C자형으로 다듬어 물줄기가 돌아 흐르도록 하여 유상곡수놀이를 위한 풍류의 장을 마련했다.

은 개나리를 지칭), 제3경 천향춘만(늦은 봄 천향각 주변에서 정치를 논함, 애련정 서북쪽 방향), 제4경 어수범주(어수문 앞 부용지에서의 뱃놀이), 제5경 소요유상(옥류천 소요암 곡수에서 술잔을 돌리는 풍류), 제6경 희우상련(희우정에서의 연꽃 구경), 제7경 청심제월(비 갠 밤 청심정에서 바라보는 맑은 달), 제8경 관덕풍림(관덕정 부근의 단풍구경), 제9경 영화시사(영화당에서 시를 짓는 선비의 모습, 과거를 치르는 광경), 제10경 능허모설(후원의 가장 높은 능허정에서 바라보는 눈 내리는 저녁풍경)을 일컫는다.

특히, 창덕궁 후원에 펼쳐진 경관기법은 사실적 경관인 실경(實景)과 의미적으로 느껴지는 경관인 의경(意景), 자연을 시지각적으로 즐기며 감상하는 가운데 학문활동, 뱃놀이와 상화연, 유상곡수연, 악기, 낚시, 말타기, 그네타기 등이 어우러진 유락과 풍류행위가 다양하게 도입되는 유경(遊景), 멀리 북악산과 남산은 물론 가까이에서 펼쳐진 만가지 꽃과 나무 등 원근(遠近) 경물은 물론 꽃구름과 신선숲 등 상상의 경관을 취하여 즐기는 차경(借景) 기법을 들 수 있다.

한편, 감상의 대상인 식물소재로는 소나무와 소나무 숲, 잣나무, 백련, 모란,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국화 등이 대표적이고, 동물소재로는 물고기, 백학, 원앙, 오리, 앵무새, 매미, 두견새 등을 들 수 있다. 시설소재로는 연못과 섬, 다리, 수문, 가산, 샘, 계류, 논, 우물, 단, 비각, 폭포, 곡수거, 화계, 담장, 굴뚝, 가산, 괴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소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신갈나무, 오동나무 등이 건물주위에 도입되었고 침전건물 뜰과 후원에는 복사꽃, 매화 등의 화목류와 괴석과 가산, 석연지, 화계, 누정 등이 곳곳에 도입되었는데, 선경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신선풍의 작정기법을 곳곳에서 감지하게 된다.

2절 담양 소쇄원(瀟灑園)

1_ 개관

한국의 대표적 명원으로 회자되는 별서 소쇄원은 16세기 전반에 건립되어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문화와 경관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온 조정 문화유산이다. 소쇄원은 양산보(梁山甫: 1503 ~ 1557)에 의해 창건되었는데, 자연계류와 지형조건을 절묘하게 활용하여 작정 미학이 적나라하게 투영된 은둔과 풍류의 공간으로서 당대 문인들과의 교류와 사회활동의 거점공간이었다. 특히, 소쇄원은 목판본 ‘소쇄원도’ (瀟灑園圖)와 제영시문인 ‘소쇄원48영’이 전승되어 선인들의 작정 미학과 조영의도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1614 ~ 167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 소쇄원도는 ‘소쇄원 48영’의 모습과 연계하여 표현된 그린 그림이다. 따라서 소쇄원도는 정원의 실제 평면도로서의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 ‘소쇄원 48영’의 시적 분위기를 그림으로 풀어 본 일종의 도해(圖解)⁴⁾라 할 수 있다. 소쇄원도는 소쇄원의 공간구조는 물론 경물의 실체와 의미경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행위자의 행동변화에 따른 공간구성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 ~ 1560)가 제영한 ‘소쇄원 48영’은 소쇄원 주변경관과 그곳에서 이루어진 완상, 그리고 체험행위를 중심으로 실제 가시적 영역과 보이지 않는 사상, 감정을 형상화한 총체적 대지예술 및 작정미학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즉, ‘소쇄원 48영’에는 날씨와 사계, 밤과 낮, 실경과 허경, 빛과 그늘, 시각과 청각, 정과 동, 자연과 인공경물 등에 대한 노래가 다양한 양상으로 담겨져 있다. 이러한 구성은 48개의 장면을 뽑아 무질서하게 나열한 것이 아닌 소쇄원 전체의 구도적 형상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하나의 경관에 질서와 조화를 꾀고 있다.

특히, 작정자 내면이 갖는 사상과 도의(道義)가 함축되어 있어 당시의 작정 의도를 추적하여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천득염, 1999). 즉, ‘소쇄원 48영’은 각 영마다 요소별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소재로 하여 구체적인 소쇄원의 경관구성들을 짜임새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실제 가시적 영역의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심리적 개입 등을 통해 비가시적 공간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쇄원을 해석하는데 있어 ‘소쇄원 48영’은 공간에서 드러나지 않은 비가시적인 요소와 인간 행위요소를 투영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작정철학이 내재되어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4) 박정욱, 2001, 풍경을 담는 그릇, 서해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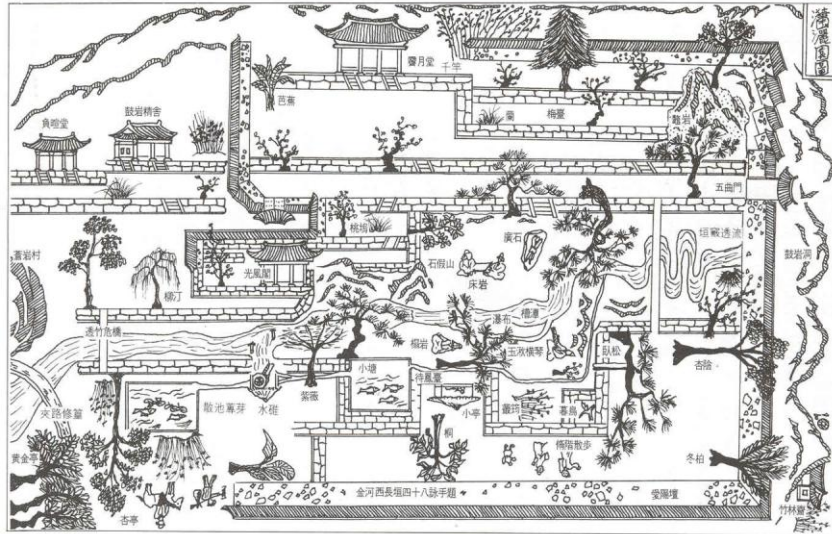


그림 3-9. 담양 소쇄원을 그린 목판본 : 소쇄원도(瀟灑園圖)

2_ 소쇄원에 표현된 경관미학

소쇄원의 토지이용 구조를 살펴보면, 4,200여 m²의 대지에 6개의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연속된 기승전결의 공간짜임을 이루고 있는데, 각각의 영역들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상호 울동감 있게 연계되어 있다. 어느 부분에서도 전체를 인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분 영역의 경관과 행위를 즐길 수 있다⁵⁾. 특히, 소쇄원의 작정미학을 ‘소쇄원 48영’을 분석의 근거로 그 속에 드러나 있는 ‘지각적 경험’, ‘감각적 경험’¹¹⁾을 중심으로 경관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쇄원 실존적 환경의 특징은 열림과 닫힘, 분할과 통합을 이루며 조화롭게 구성되었다는 점인데, 주요 구성요소들은 제월당(霽月堂)과 광풍각(光風閣)과, 광풍각(光風閣)의 안과 밖, 소계곡 화계, 인공물길과 자연물길, 담장과 석단, 투죽위교(透竹危橋)와 약작(略灼), 화계(花階)와 화오(花塢)의 요소 등이 추출된다.

지형을 좇아 자연스러운 단차변화를 보이는 제월당과 광풍각은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 아랫단에 위치한 광풍각은 내부에서 원림을 향하는 시선이 수평적이며, 바람이 이는 것 같이 역동적이다. 주인의 학문과 사색을 위한 정적인 공간으로서 중심부 상단에 자리한 제월당은 항상 아래를 내려다보도록 되어있다. 제월당은 가장 위쪽에 있어 항상 밝은 곳이라면, 광풍각은 손님을 맞아 시기와 주흥을 즐기는 유희의 동적인 장소이며, 그들이 드리워진 수평적 시각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서로 대립으로 재어한다는 느낌보다는, 각각 처지를 지키며 전체와 어울리고 있다.

5) 김봉렬, 2006, 김봉렬의 한국 건축이야기 2, 돌베개



그림 3-10. 열림과 닫힘, 분할과 통합의 대조적 관계속에 조화롭게 구성된 소재원 제월당과 광풍각



그림 3-11. 인공적인 직선의 아름다움을 지형조건에 밀착시켜 일궈낸 소재원 화계(매대)와 담장

광풍각의 공간은 개방성을 갖는 비결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문은 들어 열개문으로 구성되어 소재원의 아름다운 경물을 3면을 통해 시원스럽게 취경할 수 있다. 안팎, 좌우, 전후가 서로 매개하면서 주변의 자연과 건물이 일체가 된 경우이다. 광풍각 내부에 물리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에 한 사람이 개입하면 비로소 시각적인 자연의 둘러싸임이 인식되는 인식의 공간이 형성되고 또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공동체의 장소로서 또 다른 관계형성을 한다. 이와

같이 광풍각에서의 공간은 개체가 살아있으면서 객체와 개체, 전체와 개체 사이에 양방향 교류가 일어나는 중용의 거점이라 할 수 있다.

수(水)의 부분인 계류와 산(山)의 부분인 화계(花階)는 서로 대조를 보이는 공간체계인데, 주로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오곡 계류는 굴곡과 자연미를 최대한 살려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화목이 심겨져 있는 화계는 직선과 인공미를 최대한 살려 구성했다⁶⁾. 따라서 이곳은 계곡이 하향하고 화계가 상향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체가 대비를 이루면서 결합하여 상호작용하고 있다.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오곡문(五曲門)의 아래를 띄워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담장은 담장대로, 물은 물대로 연속성을 유지하게 한다⁷⁾. 또한 소쇄원의 물길은 연못에 물을 대기위한 인공적인 물길과 자연적인 계류수 물길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이 물길을 따라 산책로를 연계시켜 각 공간들을 분절시키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한다. 즉 자연적인 물길에 물리적 조작을 통해 수공간을 확대하여 수목석이 어우러진 계정(溪庭)을 구축하여 자연과 인공의 경계가 소실되면서 자연과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흐르고 고이고 떨어지는 오곡 계류를 통하여 청각을 자극하는 물소리의 향연을 다양한 장소에서 취할 수 있는 오감만족 정원미학을 체감한다.



그림 3-12. 계류수는 내원으로 관입되어 떨어지고, 고이고 흘러 아름다운 계정(溪庭)을 구축한다.



그림 3-13. 계류수는 오곡문(五曲門)의 아래를 흘러 자연스럽게 내원으로 관입되는 연속성을 보여준다.

소쇄원의 영역을 수직적으로 구분하는 요소가 석축이라면, 수평적인 구분요소는 담장이다. 담과 단에 의해서 소쇄원의 6개 영역이 구획되며, 동시에 연속된다. 소쇄원의 담장은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이루도록 설치되어 있지만, 폐쇄된

6) 박정욱, 2001, 풍경을 담는 그릇, 서해문집

7) 권영걸, 2001, 공간디자인 16강, 국제출판사

것이 아니라 양 끝이 개방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구조적인 요소나 건물의 부속 요소가 아니라 독립된 요소이다⁸⁾. 때문에 담장은 안과 밖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를 경계 짓는 벽면으로 인식 할 수 있게 된다.

광풍각과 제월당 영역을 구획하는 요소로서 네 번 꺾인 담장은 안팎 사이의 구별이 불명확하다. 제월당에서 협문을 나가면 밖이 되지만, 3면의 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은 그 자체로 내부적이다(그림 5 참조). 그러나 광풍각 쪽으로 담장을 따라가면 다시 외부임을 느끼게 된다⁹⁾. 또



그림 3-14. 소재원에 구축된 담장은 안팎의 경계요소이면서도 자연과 밀착되어 개방성이 확보된 열린 시스템의 사례가 된다.

한 계곡의 상하에 위치한 다리인 투족위교와 약작은 직류와 곡류에 적합한 다리 형태로 서로 대조를 통해 절묘한 조화를 보이고 있다. 화계와 화오는 계단과 둔덕으로서 모두 화목이 심겨져 있으나, 상하를 수직으로 통합 연결시키고 있다¹⁰⁾.

3절 강릉 선교장(船橋莊)

1_ 개관

강릉 선교장은 이내번(1703~1781)이 명기한 이래 사랑채인 열화당은 순조 15년(1815년)에 이후(1773-1832)가 안채의 서쪽에다 건립하고, 활래정은 1816년 이후가, 별서인 방해정은 1859년 이의범(1802-1868)이 조영하였다.

북고남저 환경사 지형에 서남향하여 자리한 살림집은 행랑채, 사랑채, 안채, 동별당, 서별당, 사당으로 구성되는데 대문 밖 동남쪽으로는 정자(活來亭)가 자리하며 보다 멀리 경포호수가에 별서인 방해정이 위치한다. 방해정은 경포8경의 하나(紅粧夜雨)로 회자되어온 명승지로서 경포호와 동해를 조망할 수 있으며 금잔디를 심고 홍장암 바위에 李家園根石이라는 글씨를 새겼다.

8) 김봉렬, 2006, 김봉렬의 한국 건축이야기 2, 돌베개

9) 김봉렬, 2006, 김봉렬의 한국 건축이야기 2, 돌베개

10) 장일영, 신상섭, 2010, 복잡성 이론에 의한 한국정원의 해석-한국의 명원 소재원을 중심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 28권 2호

행랑채엔 사랑채로 통하는 솥을대문과 안채로 통하는 평대문을 두었는데, 솥을대문을 들어서면 사랑마당에 이르게 되고 북쪽으로 열화당¹¹⁾이 있다. 사랑채는 4칸×3칸 건물로 대청, 사랑방, 침방, 누마루가 일렬로 결합되었으며 뒷마루 앞엔 햇볕을 막도록 차양이 설치되어 있다. 바깥행랑채의 동쪽에 위치한 평대문을 들어서면 몇 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점점 높아지게 된 안마당에 이르고, 안채를 드나들게 된다. 안채는 동별당과 연결되어 겹집 구조의 평면을 보여주고 있다. 동별당은 ㄱ자형 평면으로 안채의 평면과 흡사한데 안채 건넌방 옆으로 난 문을 통해서 서별당에 이르고 이곳에는 중문간 행랑채가 둘러 있으며 중문을 통해 사랑마당에 이르게 된다.

대문 밖 동남쪽으로 약 70m 거리에 조영된 활래정¹²⁾은 두 개의 방과 2칸 규모의 마루가 있는 정자로 주변 산수경관을 시원스럽게 조망할 수 있으며 정자를 지탱하는 기둥 중 4개가 연못에 잠겨 있다. 이곳 연못은 方池方島形으로 한 변의 길이가 32m인데 폭 7m의 섬을 두어 地神을 섬기는 제단인 方澤의 꾸밈새를 보여주고 있다.

2_ 선교장에 표현된 조경미학

대지는 80×50m(比例 1.6:1) 규모이며 마당의 장단변 D(폭)/W(길이)는 안마당 1.08:1, 사랑마당 1.33:1, 행랑마당 2.36:1, 동별당마당 1.12:1, 서별당마당 1.75:1로 분석된다. 즉, 안마당 7.6×7.0 m, 사랑마당 18.7×14.1m, 행랑마당 13.0×5.5m, 동별당마당 7.3×6.5m, 서별당마당 10.5×6.0m, 중문마당 8.7×2.9m 규모로 이루어진 각 공간은 시각적 또는 청각적 인지범위 한계거리인 24m 이내의 과학적인 공간규모 척도로 파악된다. 특히 마당과 뜰에서 건물을 인지하는 D(수평거리)/H(건물높이)는 안채 7.6/5.9m = 1.28, 사랑채 14.1/6.5m=2.16으로 양각 18-27° 범위가 되어 공간적으로 적정 폐쇄감을 느낄 수 있는 친근감 있는 공간구조를 형성한다.

한편, 외별당에 해당하는 활래정은 사랑채에서 약 100m 떨어져있어 살림집 영역을 시지각적으로 규정하는 한계범위(140m)이내에 조성되었고, 별서인 방해정은 정침에서 4km 이내 거리로 용이하게 관여할 수 있는 목적공간으로 자리잡기하는 등 전체적인 공간구조가 인간적 척도의 틀 속에서 짜여 졌음을 알 수 있다.

선교장 초입에 들어서면 규모가 큰(32×32m) 사각형 연못이 있고, 그 안에 방도(方島, 怪石과 石床 도입)를 두었으며 연꽃, 소나무, 배롱나무를 심고 송림이 배경이 되는 정자(활래정)를 배치하였다. 바깥마당을 따라 좀 더 들어가면 행랑채에 딸린 솥을대문이 자리하여 안채로 통하는 평대문 쪽 보다 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행랑채를 지나면 서별당 전면으로 행랑마당이 위치하고

11) 도연명의 시 귀거래사, 悅親戚之情話에서 차용

12) 주희의 시 관서유감, 爲有源頭活水來에서 차용



그림 3-15. 강릉 선교장은 북고남저 원경사 지형에 서남향하여 행랑채, 사랑채, 안채, 동별당, 서별당, 사당이 각각의 마당과 짝을 이루며 위계적인 공간구성 체계를 보여준다.

서쪽으로는 사랑마당→후정→자연, 동쪽으로는 셋마당을 거쳐 안마당과 동별당 마당→사당→후정→자연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짜임을 입체적 깊이감으로 체감하게 된다. 담과 벽이라는 위요상태에 따라 마당의 밀도는 바깥마당의 소밀상태, 행랑채와 서별당 마당의 중간밀도, 중문마당의 과밀상태로 파악했을 때 안마당은 적정밀도상태를 보인다. 이때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또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전개되는 각 마당과 건물의 위요상태는 보행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완→긴장→완충 또는 안도(바깥마당→중문마당→별당마당→안마당)의 보행감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광역경관 인식은 背景(뒷동산)→近景(좌우산세)→中景(平野, 川)→遠景(朝山)으로 분석 되는데 이와 같은 마당의 동선체계와 시각적 경관구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융화되어 울동적인 체험구조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솟을대문에 들어서면 서별당을 정면으로 행랑마당이 나타나고 시선은 사랑마당중심으로 강한 동세를 일으키며 위계가 높은 사랑채로 이동되고, 행랑채에 딸린 동쪽 평대문에 들어서면 내외 벽을 통하여 시선과 동선의 흐름이 분절되는데 이때 안마당 중심으로 동세가 형성된다. 또한 행랑마당에서 사랑마당으로, 행랑마당에서 중문마당을 거쳐 동별당마당과 안마당으로 그리고 안마당에서 서별당마당으로 전개되는 체계 또한 정중동의 또 다른 동세효과가 주어진다. 이러한 공간조영은 한 공간 한 공간 접근할 때 곡전을 통하여 생동감과 깊이를 느끼게 하면서 동적 공간으로 전환되는 울동미학을 반영한 의도로 볼 수 있다.

경관적으로 동서방향과 후원 쪽으로 나지막한 야산이 선교장을 감싸주어 활래정→행랑채→사랑채안채→후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자연에 살림집이 유기적으로 동화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자연 지세를 잘 활용하여 아름다운 sky-line을 형성하는 입면구조를 띠고 있다. 한편, 활래정 연못은 인공과 자연이 화합하는 장소로 의미가 깊고 경관의 펼쳐짐 속에서 자연과의 대화 내지는 관조의 미를 공유하는 경관가치적 특징을 나타내며, 뒤뜰에 화계를 도입하고 죽림과 송림으로 어우러진 뒷동산과 연결되는 자연과의 합일개념은 자연으



그림 3-16. 선교장의 외별당에 펼쳐진 활래정과 사각형 연못은 자연과 유기적으로 융화되는 합일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로 확산, 전개되는 경관적 조화와 연속성을 보여준다.

생토에 의지하여 건물과 마당을 도입하고, 뜰을 가꿈에 있어서 향토수종위주의 식물을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지형조건에 부합되는 생울타리(대나무, 탕자나무)와 울동적인 담을 축조하여 자연과 내부공간을 연결시키고 조영재료의 자연 질감과 색조사용 등 자연친화적 조영의도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6개 영역의 채와 마당으로 결합된 공간은 비대칭적인 구성이나 서별당마당 중심부를 지나 행랑채의 솟을대문으로 연결되는 남북축에 의해 동서공간이 균형을 취하여 전체적인 균제미를 체감할 수 있기도 하다. 한편 살림집은 동서공간은 각기 남성과 여성영역으로 분절되는 이원적 대칭성을 보여주며 풍수적 경관인식구조는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에 대응하는 지형적 요건으로 해서 비대칭적인 균형공간으로 인식된다.

자연경관 조직을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연못, 괴석, 화계 등을 의장요소로 활용하여 산수자연의 완충적 경관요소로 활용하는 등 부분과 전체가 결합되고 사상(음양, 풍수지리, 유가사상, 도가사상 등)이 함축된 형이상학적 균제미를 연출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작정(作庭)기법 및 동선체계에서는 주인영역(사랑마당, 후정, 활래정)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남북축선상에서 조종산→진산→안산→조산으로 이어지는 지형 조건에 의해 또 다른 광역적 흐름의 위계를 갖게 되는데, 주변 환경조직과 같은 경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경관짜임을 인식하게 된다.

한편, 가장 폐쇄적이고 은밀한 내부공간인 안마당에서 사랑마당과 중문마당을 거쳐 행랑마당 그리고 바깥마당으로 전개되는 상호침투성은 규모가 큰 자연경관(농경지와 안산 등)과 어우러져 소극적 공간과 적극적 공간으로 교차 반복

되어 폐쇄→개방으로 승화 전개되는 침투성을 맺게 된다.



그림 3-17. 선교장 안마당에서 사랑마당과 중문마당을 거쳐 행랑마당 그리고 바깥마당으로 전개되는 공간의 유기적인 짜임구조는 비워둠의 미학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교장의 조경은 방지(方池) 중심의 활래정과 사랑채인 열화당 그리고 안채의 화계와 후정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으며 후원은 뒷산의 송림과 어우러져 하나의 큰 자연정원을 연상하게 된다. 후정은 1단 또는 3단으로 처리하여 사과석으로

축조한 화계를 두었는데 회화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엄나무, 앵두나무, 살구나무, 매화, 산철쭉, 박태기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죽림과 탕자나무 울타리를 두어 주위 송림과 조화되게 하였는데 초화류가 바닥을 덮어 자연미를 더해 준다. 활래정 주변에는 배롱나무와 무궁화가 식재되었고 섬에는 소나무를 두었으며 못에는 연을 가꾸었다.

조망에 유리한 입지구조인 사랑채의 경우 행랑채 너머로 안산과 조산이 차경되고, 마당에는 단풍나무, 능소화, 등나무가 정심수로 식재되어 부시(俯視)를 통한 운치를 느낄 수 있다. 대청문을 열어두는 정도에 따라 자연경관을 취할 수 있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화계 쪽을 보았을 때 배롱나무가 보이고



그림 3-18. 연못에 도입된 소나무와 괴석 등이 한 폭의 정물화로 나타나는 연출기법(활래정)

죽림과 송림으로 어우러진 후원이 연결되며, 좌측의 대청문에서는 화계위에 식재된 회화나무를 중심으로 초화류가 어우러진 자연미를 완상하게 된다. 이러한 사진들 효과는 안채 대청에서의 앵두나무와 죽림, 연못에 도입된 소나무와 괴석 등이 한 폭의 정물화로 나타나는 연출기법에서도 인지할 수 있다.

4절 선조들의 지혜 : 전통조경 디자인 요소

1_ 뒷뜰의 화계와 대숲, 솔숲 : 풍토조건을 이해한 지혜

산을 등지고 내(川)를 끼고 자리 잡은 전통 마을에서 집 뒤로는 산이 가까이 내려와 닿게 마련이다. 자연히 집 뒤는 산과 접하게 되고 자연과의 경계가 된다. 산기슭에서 평탄지를 골라 터를 잡는다고 해도 집 뒤로는 어느 정도 경사가 이어지기 마련이어서 경사 처리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국 정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경양식 요소인 화계는 바로 이 같은 경사 처리에 장식적인 처리가 가해진 것이다. 때로는 장대석으로, 때로는 터를 닦을 때 나온 돌을 가지런히 쌓아 단을 만들어 사면을 안정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진 넓지 않은 단에 꽃과 나무를 심었다.

남쪽 지방에서는 대나무 숲이 집 뒷뜰을 차지한다. 집 뒤 사면은 대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조건이어서 한번 심어 놓으면 무성하게 잘 자라고 뒷동산을 대숲으로 채워나가, 멀리 동구 밖에서 살림집의 풍경을 한결 돋보이게 한다. 어릴 적 숨비꼭질하며 뛰어 들어간 짝 들어찬 대나무 숲이 만들어 내는 독특한 분위기로 대낮에도 머리끝을 쭈뼛쭈뼛하게 하여 금세 되돌아 나오곤 했던 곳이다. 무성한 가지와 잎으로 짙은 어둠이 깔려있고 바람이라도 있는 날이면 잎가지가 부딪쳐 소리가 새어나오는 곳이다.

뒷뜰에 대나무를 심은 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넓지 않은 산기슭을 깎아 만든 집터는 큰 비라도 오면 산사태가 날지 모를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곳이다. 대나무의 발달된 근경(根莖)은 서로 얽히고 설켜 효과적인 지면 안정화 장치가 된다. 실제로 지진이 나면 가까운 대밭으로 대피하라는 말도 있듯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 토사 유실을 방지해주는 사방 장치이다. 화계가 경사 처리의 물리적 해결이라면 대숲은 보다 생태적인 해결책인 셈이다. 또 제대로 형성된 대숲은 겨울철 불어오는 북풍을 막기에도 적절한 소재이다. 게다가 생활용품을 만드는 주요 재료가 되고, 대단한 소득원이었으니 경제적인 효용가치도 무시할 수 없었다. 풍치 구성과 사면 안정, 미기후 조성(북풍 차단)에다 경제성까지 고려된 뒤뜰과 뒷동산에 펼쳐진 대숲은 생활 속의 지혜이자 최적의 경관짜임기법이라 하겠다.

2_ 담 밑의 화단

살림집들은 담으로 바깥과 구분된다. 자연과 외부세계에 대한 보호막이라는 의미를 지닌 담장은 한국의 토속성을 대변하는 정겨움의 극치이다. 사용되는 소재가 흙과 돌, 점토, 식물 등 주변의 흔한 소재라 친근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높이가 사람을 압도하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밖에서 안을 보기가 쉽지 않고, 집주인이 안에서 바깥을 내다 볼 수 있을 정도 높이로 쌓은 것이다. 바깥 경치를 집 안으로 끌어 들여오려는 차경(借景)만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사랑채를 두어 손님을 맞이하려다 보면 사랑대청에서 담 너머로 오가는 손을 남 먼저 보고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담은 높지 않아야 했다.



그림 3-19. 함양 정여창 고택 사랑마당 가에 담장을 기대어 펼쳐진 화단은 자연과 인공을 이어주는 중용공간이자 양명한 살림집을 만들어주는 생태미학의 매개체가 된다.

낮은 담은 정감 넘치는 조영체이지만 흙과 돌로 쌓아 그리 단단한 편이 못 되었다. 따라서 흙담이건 돌담이건 아래를 튼튼히 하고 위는 잘 덮어 주었다. 서민계층은 담 머리로 이영을 이어 초가지붕을 만들었고, 양반가는 번듯하게 기와를 올려 모양 추구하고 함께 비바람에 잘 견디도록 하였다. 경사구간은 단차를 두어 자연지형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도록 하였다. 담 아래는 물이 잘 들어 치지 않도록 일정 높이로 돌을 쌓아 기단을 만들었다.

담 아래 기단에 붙여 마당가에 만들어진 화단은 낮은 담 너머로 펼쳐진 바깥 경치(遠景)와 대비되는 마당 안 경치(近景)가 접합되는 무대이자, 담을 비나 물로부터 보호해주면서 지반을 양명하게 안정시켜주는 기초 보강장치가 된다.

3_ 후원의 텃밭과 장독대

살림집 안채를 돌아가면 뒷마당이 나온다. 굴뚝이 서 있기도 하고, 잘 안 쓰이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살림살이가 처마 밑 공간을 차지하기도 하며, 장독대, 채원, 과원, 약포 등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곳은 여인들을 주 이용자로 하는 생산과 작업의 공간이다. 집의 공간 구조상 외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며 때로는 조상을 모신 사당과 담으로 이웃하기도 하는, 조금은 비밀스

러운 곳이다. 자연히 사람의 발길과 눈에서 벗어나 있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
상이다. 이곳에 만들어진 텃밭은 채소와 과실수를 키우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
닌다.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 중 퇴비나 재 등은 헛간에서 숙비로 만
들어져 다시 텃밭에 거름으로 사용된다. 또한 텃밭 자체가 그 면적만큼 잡초가
들어올 만한 자리를 없애 주면서, 수시로 집안사람의 눈길과 손길을 끌어들임
으로써 잡초로 무성해지기 쉬운 후원을 관리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이른 바
집안의 재활용 현장이자 뜰을 관리하는 거점인 셈이다.

장독대는 집안의 장류와 부식원료를 보관하는 장소이다. 장으로 대표되는 밑
반찬을 잘 만들고 저장하는 일이야말로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면서 집안의 입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때로는 찬거리나 약재를 말리기도 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장독대는 집안에서 가장 자연의 기운을 취득하기에 유리한 장
소에 자리 잡는다. 적절한 시간대에 햇볕과 그늘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거
니와 바람이 관류하는 곳이어야 적지인 것이다. 여인네의 손길이 닿는 곳이니
당연히 안채 공간 내에서 부엌이나 우물 등과 가까우면서 통풍과 일조가 유리
한 곳에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른바 기능(동선)과 미기후가 동시에 고려되는 것
이다.

알맞은 일조와 통풍, 그리고 정갈해야하니 돌을 쌓아 낮은 단을 만들고 바닥
에는 널찍한 돌과 자갈을 깔아 습기도 막고 빗물이 튀어 올라 더럽게 되는 것
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일종의 완벽한 배수 포장이면서 틈만 나면 깨끗한 물로
장독을 씻고 닦아 주며 벌레나 잡스러운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하였다. 장독대에 독을 배치하는 데 에는 앞에서 뒤로 갈수록
크기를 크게 하여 작업 용이성 확보와 함께 햇볕을 좋게 하고 바람이 고루 통



그림 3-20. 윤증고택 장독대는 앞에서 뒤로 갈수록 독의 크기를 크게 하여 작업 용이성
확보와 함께 통풍과 햇볕을 좋게 하는 지혜의 산물이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¹³⁾.

4. 연못과 마을숲

전통공간에 도입된 연못과 물길은 미세한 지형지세 조건과 물의 유하 특성 등을 고려한 전통조경의 대표적 조형사례가 되지만 기본 골격은 생활용수의 정화, 방화 및 농업용수로의 활용, 침식 방지와 생물 도입을 통한 자연화, 그리고 경관자원화, 미기후 조절 등 주거쾌적성 제고, 생태적 건전성 등이 된다.

연못가나 물길에 버드나무류(갯버들이나 수양버들)를 심었던 것도 나무뿌리로 토석을 고정함으로써 수변을 튼튼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홍수가 나 무너진 물길을 복구할 때 사용했던 공법(소나무 말뚝을 일정 간격으로 박고 엮어 크고 작은 돌을 다져 채우는 방식)은 현대적 공법(상자나 말뚝에 돌을 채우고 갯버들이나 갈대 등을 식재)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고을과 마을관련 옛 지도를 살펴보면 읍수(邑藪) 또는 동수(洞藪)로 불리는 마을숲을 볼 수 있다. 마을숲은 한국인의 삶속에 조경문화가 설득력 있게 개입된 문화공간이자 고향의 숲이다. 숲을 지칭하는 수(藪)는 ‘수풀 수’로서 ‘초목이 뺏뺏이 우거진 습지나 수풀¹⁴⁾’을 의미하므로 마을숲은 동수(洞藪)라 할 수 있다. 마을숲은 막이, 쟁이, 정, 정자, 정자나무 등으로도 부르는데, ‘막이’와 ‘쟁이’는 지형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되거나 차폐목적인 경우이고, ‘정’이나 ‘정자’는 휴식을 취하는 숲을 의미한다. 실존적 가치와 풍경미학이 잘 결합되어 문화적 산물로 평가되고 있는 마을숲은 토착 신앙적 마을숲, 풍수적 마을숲, 수변 보호숲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서 토착 신앙적 마을숲은 성황림과 당산숲을, 그리고 풍수적 마을숲은 비보숲과 염승림을, 수변 보호숲은 강변숲, 하천숲, 해안숲 등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마을숲은 세 가지 측면에서 존재가치와 경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자연환경과 풍토에 부합되는 생태경관으로, 마을의 영역성을 정체성 있게 표출하는 향토경관으로, 구성원들의 이념과 신앙을 통합하는 상징적 신앙경관으로 우리가 전승해야할 소중한 향토경관문화재가 된다.



그림 3-21. 농촌 풍경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토속 경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마을숲은 마을안팎의 경계 요소로 생태적 건전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13) 성종상, 2000, LOCUS, 조경비평 2, 조경문화

14) 한한대사전, 1966, p.1082. 주례에 ‘牧藪鳥獸’, 민중서관

5_ 식재기법

1) 규범적인 상징성 반영

뜰에 도입된 식물은 미적, 기능적, 생태적 측면, 상징성 등이 고려되었는데, 풍수사상이나 신선사상, 음양사상, 유교적 규범(소나무, 매화, 국화, 대나무, 난초, 연꽃 등), 안빈낙도의 생활철학(국화, 버드나무, 복숭아나무 등), 은둔사상과 태평성대 희구사상(오동나무, 대나무 등) 등에 의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렸다. 특히, 고아, 부귀, 지조와 의리, 운치, 품격 등을 부여하고 손님과 벗으로 의인화하는 등 정신세계와 함축적인 윤리관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그림 3-22. 앞뜰에 애용된 매화



그림 3-23. 뒷뜰에 애용된 대나무



그림 3-24. 연못에 애용된 연꽃

강희안의 양화소록 화목구등품제(花木九等品第)에 의하면 매(梅), 국(菊), 연(蓮), 죽(竹)은 1등급, 모란, 작약은 2등급, 동백, 치자, 노송(老松)은 3등급을 부여하였다. 화암수록의 28友에서 연은 정우(淨友), 죽은 청우(淸友), 매는 방우(芳友), 모란은 열우(熱友), 작약은 귀우(貴友), 송은 노우(老友)로 의인화했다. 박세당의 花30客에는 난(蘭)을 유객(幽客), 계(桂)는 선객(仙客), 정향(丁香)은 정객(情客), 구(葵, 해바라기)는 충객(忠客), 석류는 촌객(村客), 목근(木槿)은 시객(時客)으로 애칭했다. 한편 조선 후기 안민영은 작정자의 취향 및 상징성과 관련하여 “주렴계(周濂溪)는 애련(愛蓮)하고 도정절(陶靖節)은 애국(愛菊)하고 연화는 군자(君子)어늘 국화는 은일사(隱逸士)라 방당(方塘)에 연시 무고”라 읊었다. 상록수 보다는 계절미를 취할 수 있는 낙엽수가 애용되었고 운치 있는 곡간성을 높이 쳤으며, 수형도 자연스러운 타원형을 선호했다. 과실

수(복숭아, 배, 살구, 자두, 대추, 능금, 석류나무 등)와 꽃이 피는 식물을 애용했고 흰색이나 우주만물의 중앙을 상징하는 황색을 좋아했다.

2) 적지적수(適地適樹)의 장소성 부여

식재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심는 경우가 많았는데, 분재, 취병, 절화 등 그릇이나 장치를 곁들이기도 하였으며, 화오(花塢 : 梅塢, 桃塢, 竹塢 등)와 화계를 일구어 화목과 초화류(매화, 앵두, 모란, 작약, 난초, 철쭉, 국화 등)를 심었다. 후원의 경사진 땅에 단을 만들고 축석한 화계는 옹벽과 화단을 겸하게 한 매우 지혜로운 기법인데, 괴석, 석연지, 초화류, 장독대, 굴뚝 등이 어우러진 입체적 공간이 된다.

좁은 뜰이나 추위에 약한 식물(치자나무, 서향화, 동백, 석류 등), 분재형 소나무 등을 가꿀 때 화분이 이용되었다. 양화소록에는 “화분을 놓을 때 꽃나무의 키가 큰 것을 뒷줄에 키가 작은 것을 앞줄에 놓으며, 기왓장이나 벽돌 위에 놓으면 아름답다” 고 했다.

수목을 다듬어 경계를 표시하며 시각적 차폐나 동물의 침입을 막고 공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기법으로 취병(翠屏), 원장(園牆)과 원리(園籬)가 이용되었다. 취병은 화목류와 대나무, 향나무, 주목, 측백, 사철나무 등의 가지를 틀어 올려 담이나 병풍처럼 꾸민 것을 지칭하며, 원장과 원리는 대추나무, 탕자나무, 무궁화, 대나무, 국화 등을 7척정도 높이로 가지런히 다듬은 울타리(檜籬, 竹籬, 菊籬, 棘籬 등)를 지칭한다. 임원경제지의 관병(棺屏)법에는 “대나무처럼 푸른 것을 좁게 심어서 가지를 중형으로 엮어 위로 올리면서 층을 만드는데 옆으로 뻗거나 위로 솟은 가지는 잘라서 가지런히 다듬는다” 했다.

표 3-1. 식재 장소에 따른 의기

장 소	의기	조 경 식 물
문 앞	宜 忌	회화나무, 문정에 두 그루의 대추나무, 버드나무 고수(枯樹) 한그루, 모양이 같은 나무 두그루, 상록수, 수양버들, 청초(靑草)
중정(中庭)	宜 忌	화초류 거수(巨樹), 많은 수목
정전(庭前)	宜 忌	석류나무, 서향화(瑞香花, 千里香) 오동나무, 파초
울타리옆	宜 忌	동쪽울타리 옆에 홍벽도, 국화 참죽나무, 초림(槲林), 벽려(薛荔, 줄사철나무)
우 물 옆	忌	복숭아나무
집 주 위	宜 忌	울창한 소나무, 울창한 대나무 단풍나무, 백양(白楊, 사시나무), 가죽나무
택내(宅內)	忌	무궁화, 뽕나무, 商陸(자리공), 거수, 상록수, 살구나무

수목은 심는 방식에 따라 한 그루만 심는 단식(單植), 고식(孤植),

점식(點植), 두 그루를 마주 보게 심는 대식(對植), 세 그루를 일렬로 심는 삼점식(三點植)과 삼각형 형태로 심는 품자식(品字植), 임의로 흩어 심는 산식(散植), 세 그루이상 줄지어 심는 열식(列植), 여러 그루를 자연스럽게 모아 심는 군식(群植) 등으로 구분된다.

소나무, 매화, 향나무, 벽오동처럼 독특한 생김새와 운치가 있는 수목은 한 그루만 심는 경우가 많았는데, 매화의 경우 저녁 창문에 비치는 그림자를 즐기거나 가지에 걸린 달을 감상할 수 있어 매창(梅窓)이라 불렀다. 대식은 운조루 사당 뜰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천지인의 삼재(三才) 셋은 완성과 안정을 상징하는 길수로 여겼는데,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오동나무 세 그루를 서북쪽에 심으면 길하다”는 내용, 양동마을 심수정에 심어진 회화나무 세 그루 등에서 삼점식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군식은 소나무와 잣나무, 대나무 등을 후원에, 버드나무와 배롱나무 등을 연못가에, 느티나무와 팽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등을 마을숲에 활용하였다. 열식은 무궁화, 탕자나무, 사철나무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거나 시각적 차폐와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그리고 소나무와 잣나무 등은 묘역주변에 기능식재로 활용되었다.

큰 나무를 안마당에 심는 것을 꺼렸으며 소나무와 대나무는 집주위에 심는 것을 권장하였다. 노거수는 정령송배사상이 있어 함부로 자르거나 훼손하기 어렵고, 건물 등을 상하게 한다거나 채광과 통풍을 저해하거나 질병의 원인이 되어 제한하였으며, 좁은 뜰에 2그루 이상의 나무와 상록수를 심는 것도 제한하였고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화목을 많이 심었다.

문 앞에 회화나무 또는 2그루의 대추나무는 대길하고 석류나무를 뜰 안에 심으면 많은 자손을 얻게 되며 문밖 동쪽에 버드나무를 심으면 가축이 번성한다 하여 권장하는 등 대문 앞, 마당 안, 담장 옆 등에 심는 수목의 종류와 위치가 제한되었다.

한편 안평대군(1418~1488)의 사저 비해당(匪懈堂) 뜰에는 아름답고 기이한 모양의 기화요초를 많이 심었고 사슴과 금계(金鷄), 학이 노닐도록 했다. 대문 앞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바깥뜰에는 대밭을 두었으며, 서재 앞뜰에는 꽃밭을 일구어 작약, 모란, 동백 등을 가꾸었고 누각 옆에 배나무를 심었다. 파초를 심어 즐겼고 그늘시렁에는 넝쿨장미를 올렸으며 담장 가에 살구나무와 단풍나무를 심었다. 화오와 대밭 사이에 괴석을 두었고 섬돌 앞에 동산을 만들었으며, 방지(方池)에는 군자를 상징하는 연꽃을 가꾸었다.

3) 생태적 특성 반영

식물을 도입할 때는 장소와 방위 등을 고려하여 권장하는 의(宜)와 꺼리는 기(忌)로 길흉을 연계시켰는데, 풍수지리, 음양오행, 유가사상, 민간신앙 그리고 생태적 특성과 입지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의하면 동쪽에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 남쪽에 매화와 대추나무, 서쪽에 치자나무와 느릅나무, 북쪽에 능금나무와 살구나무를 권장하였는데, 풍수적 비보의도와 생태적 특성이 고려한 식재기법이 된다. 버드나무, 벽오동, 자두나무, 국화 등은 동쪽에, 오동나무, 느릅나무, 치자나무, 대나무 등 그늘을 주는 나무는 서쪽에, 복숭아, 매화, 대추나무는 남쪽에, 뽕나무, 진달래, 살구나무, 능금나무 등은 북쪽에 권장되었다. 동백, 영산홍, 치자, 석류나무 등은 북쪽에 금기되었는데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어려운 생태적 특성 때문이었다. 거수는 시원한 여름바람을 막기 때문에 남쪽에 심는 것을 피하였으나 북서쪽에는 겨울철 추운 계절풍과 여름철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어 권장되었다.

6_ 수경시설 기법

인체의 오감을 자극하여 전통조경 요소로 애용된 수경시설은 상징성 부여, 실용성과 감상효과 등을 위해 연못과 수로, 돌확, 석련지 등이 도입되었다.

1) 연못(池塘)

연못은 못과 용수지를 통칭하는 수경시설로 바깥마당, 사랑마당, 별당마당 등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유구(1764~1845)의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연못은 ‘고기를 기르면서 감상할 수 있고, 논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실용성과 관상 가치는 물론 수양을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쪽을 넓게 하여



그림 3-25. 함안의 舞沂蓮塘圖(1728년) : 장방형 연못, 봉래도, 석기산, 何換亭과 風浴樓, 수로, 老松 등을 두었다.(출처 : 정재훈, 한국의 옛조경, 59쪽)

지당(池塘)을 만들되 작은 연못에는 연을 심고 큰 지당에는 고기를 기르며, 물이 맑으면 물고기를 키우고 탁하면 연꽃을 키우라’ 하였다.

연못 형태는 계담(溪潭)과 석담(石潭), 방지(方池), 곡지(曲池)와 곡소(曲沼), 타원형과 부정형 등 다양한데 작은 섬을 둔 방지원도형이 많이 조성되었다. 둥근 섬은 하늘을, 네모난 못은 땅을 상징하여 음양의 결합에 의해 만물이 생성하듯 우주의 섭리 속에서 가문 번영을 희구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섬은 신령한 삼신산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연못 호안은 자연석으로 가지런히 쌓아올리는

수법이 활용되었고, 바닥은 점토층과 자갈층을 결합하여 차수기능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물고기를 기르거나 연, 순채 등을 심었고 못가에는 버드나무, 배롱나무 등을 심었다.

2) 폭포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소리가 요란하고 급하게 흐르는 물가는 집터로서 마땅치 않다’고 하였는데, 뜰에 도입된 폭포는 높지 않은 낙차를 이용하거나 단상으로 떨어지는 것, 조용히 물이 흘러 넘쳐들게 한 것 등이 있다. 물이 힘 있게 떨어지는 것을 비천(飛泉), 조용히 흘러 넘쳐 떨어뜨리는 것을 괘천(掛泉)이라 했다. 연못과 폭포 등에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한 자일(自溢)법, 물레방아로 떨어뜨려 입수시키는 법, 대나무나 석재로 홈통을 만들어 연못, 석연지, 돌확에 연결시켜 비폭(飛瀑)으로 활용하는 법, 토수구(吐水口)를 높여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도록 한 기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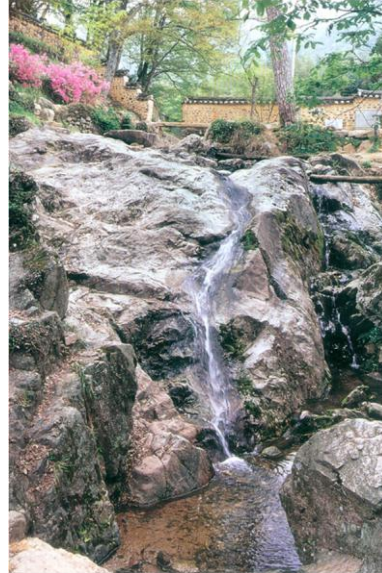


그림 3-26. 소쇄원 오곡계류에 인공적인 물길로 관류시킨 십장폭포

3) 수로

수로의 도입은 투시형 담장을 통하여 집안에서 자연 계류수인 간수(澗水)를 감상하고 즐기는 법, 뜰 안으로 물을 끌어 들여 흐르게 하거나 모아 두어 즐기는 법이 있다. 간수는 돌로 된 계곡을 흐른다 하여 석간(石澗)이라 하였는데 주변 경물에 따라 송간(松澗), 죽간(竹澗) 등으로 불린다. 간수가 뜰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담장아래를 비워 만든 수로가 있고,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대나무 등으로 만든 홈통인 비구(飛溝)가 있으며 음양석을 놓아 곡선형 수로인 곡수거를 만들기도 하였다.

7. 석물의 활용

좁은 뜰에 아름다운 산악을 본뜬 축경형의 조산(造山)을 일컫는 가산은 연못과 수로를 만들 때 파낸 흙을 활용하거나 지기를 보강하기 위해 조성한 인공 산으로 석가산(石假山), 목가산(木假山), 옥가산(玉假山) 등으로 구분된다. 고려시대 성행된 석가산 기법은 감상가치가 있는 돌을 쌓아 산의 형태를 축소, 재



그림 3-28. 함안의 무기연당 사각형 섬에 도입된 석가산 기법

현한 경물로 기세를 느끼게 하며 재질이 단단한 화강암을 쌓아올리는 기법이 애용되었다. 석가산 기법은 사대부가 사랑마당이나 연못가에 도입되었는데, 신선사상, 노장사상 및 도교사상 등과 연계된다. 강희맹의 〈가산찬〉, 서거정의 〈가산기〉, 오도일의 〈조씨석가산기〉, 홍만선의 〈산림경제〉, 정약용의 〈다산화사이십수〉, 김조순의 〈풍고집〉 등 옛 문헌에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중기이후 석가산 기법이 점차 줄어들고 도입이 용이한 괴석(怪石)을 즐기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괴석은



그림 3-27. 석간수 물을 비구로 끌어들여 연못에 유입 시킨 소쇄원

개채미가 뛰어나고 기이하게 생긴 1m 미만의 자연석을 화계와 화오, 연못 주변, 후원 등의 땅에 직접 심어 감상하는 식석(植石) 기법이 애용되었다. 강희맹의 〈양화소록〉에는 색상이 푸르고 깎아 세운 듯한 봉우리와 벼랑, 골짜기에 은은히 구름을 감춘듯한 모양으로 이끼가 잘 자라는 산에서 출토된 경석을 언급하였으며, ‘산림경제’ 와 ‘다산4경첩’ ‘단원도’ 등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괴석을 심기 위해 돌로 다듬어 만든 석분(石盆)은 석함(石函), 괴석대로 불린다. 궁궐 정원에서 애용된 석분은 4각, 6각, 8각, 원형 등으로 만들어 표면에 치장을 하고 상징성이 강한 무늬나 글자를 도입하였는데, 영주(瀛洲)라는 글자를 새겨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불로장생을 희원하는가 하면 물을 상징하는 잔모래를 채우기도 하여 선경의 이상세계를 표현했다.

돌을 다듬어 연못 형태를 축소 재현한 석지(石池)는 석연지(石蓮池 또는 洗心石)라고도 하는데, 물을 담아 연과 부엽식물을 곁들이며 고기도 몇 마리 넣어 키우고 하늘의 투영미를 감상하던 점경물이다. 네모난 형태로 만들어 사랑마당, 안마당, 후원 등에 놓았는데 좁은 뜰에서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지혜로운 수경시설이



그림 3-29. 석지는 물을 담아 연과 부엽식물을 곁들이며 고기도 넣어 키우고 하늘의 투영미를 감상하며 생활용수로도 활용하던 점경물이다.

라 하겠다. 돌화는 석지와 비슷한 용도의 점경물인데 크기가 작고 원형으로 만들어져 안마당, 뒷마당, 화계 등에 놓이며 돌절구, 방화, 생활용수 등 실용성을 겸하였다.

석상(石床)은 평평한 돌 위에 걸터앉아 경물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차를 마시고 바둑이나 장기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며, 석탑(石榻)은 석상과 비슷한 용도를 가지나 규모가 적고 높이가 높은 돌 의자를 지칭한다. 석상은 크고 넓적한 돌을 일정한 두께로 다듬어 네 귀에 받침대를 괴어놓아 앉아 쉬기에 편하도록 하였고, 돌 의자인 석탑은 적당한 크기의 돌을 가공하거나 자연 그대로 치석하여 애용했다.

한편, 야간 조명을 위한 석등(石燈), 말이나 가마를 타고 내리던 하마석(下馬石), 마당이나 계류, 연못에 동선연결을 위해 놓인 디딤돌(飛石)과 돌다리(石橋), 시구와 장소 명을 새기거나, 해시계 역할을 하던 석주(石柱) 등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울타리와 담장(외담과 맞담 형태로 축조)은 수목과 목재, 대나무, 싸리 그리고 흙과 막돌 등을 소재로 생울, 바자울, 죽책, 목책, 토담, 외담, 토석담, 전담, 돌각담 등이 활용되었다.

3장. 전통조경의 디자인적 가치가 발현된

현대 조경 사례

1절 서울 파리공원

1_ 개요

한국과 프랑스는 수교 100주년이 되는 1986년에 우호의 역사를 기리는 기념 사업의 하나로 파리에 서울광장을, 서울에 파리광장을 각각 조성 하였다. 한국

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시가 제2근린공원을 파리공원이란 명명하고 일부를 파리광장으로 꾸몄다. 파리공원은 기념공원으로서의 상징성과 근린공원으로서의 편의성을 가진 프랑스와의 우호, 교류, 호혜, 친목 등의 수교이념을 표상하고 있다.



그림 3-30. 목동 파리공원 기본계획 조감도

주요시설로는 한국의 영역으로서 서울광장, 연못 그리고 프랑스영역으로서 파리광장을 배치하고 한국과 프랑스가 함

께 어우러지는 동반자 개념으로 한불마당을 구성하였다. 서울광장에는 삼태극 무늬로 바닥포장을 하고 벽화 및 벽천을 설치하였으며, 파리광장은 프랑스 정원양식의 무늬화단을 조성하여 기념광장의 특성을 살리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화초류를 심어 장식적,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는 등 양국의 전통 양식을 조화롭게 반영했다.

참고로 프랑스 파리에 코로니 아파트 단지 내에 서울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2. 설계 개념

정남북향의 중심축을 설정하고 한국의 전통적 공간 개념을 살려서 북쪽 끝은 주인이 되는 한국, 남쪽 끝은 손님이 되는 프랑스 영역으로 설정했다. 부지의 북쪽 끝과 동서쪽가장자리를 돈대, 벽감, 구릉 및 수목으로 북돋아 줌으로써 전체 공간의 빈 곳을 에워 싸주고 공원 내부공간의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한편 부지의 중심 공간에는 넓은 마당을 만들어서 한국의 명당과 프랑스의 광장개념을 엮어, 주인과 손님이 함께 어우러지는 개념을 반영하였다. 직선 중심축에는 크고 작은 반원주가 조합된 곡선축이 중첩되는데, 이 곡선 축은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의 패턴을 주조로 하여 토(土)태극과 수(水)태극이 어우러지도록 구성하여 산책, 감상, 명상 등 자유롭고 느긋한 여가활동을 수용하는 산책로가 되고, 동시에 광장과 영지를 둘러싸고 있다.

총연장 150m의 중심축을 3등분하고 결절점에 주요 경물을 설치하여 공간체험의 깊이를 더하였다. 중심축의 가운데 마디는 선형의 상징로가 되며, 남쪽마디는 파리광장을 관통하는 보행축, 북쪽마디는 서울마당과 영지를 관통하는 수경축이 된다. 축의 북쪽 끝은 벽감, 분천, 열주, 영지, 소광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 영역이 되며, 남쪽 끝은 조각, 장식화단, 소광장 등으로 구성된 프랑스

영역이 되며, 중간지역은 상징로, 관리사무소, 대광장 등으로 구성되고 한·불 공유영역이 된다. 그리고 상징로 북쪽과 서쪽의 수립은 한국, 남쪽과 동쪽의 수립은 프랑스의 경관이 연출되도록 조성하였다.

파리공원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국교수교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상징물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상징물은 어떤 뜻을 담고 있고, 그것을 보는 이에게 뜻을 전달하고자하는 목적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상징물의 경우는 권위를 가지고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특히 상징의 내용이 갖는 기념성의 수준에 따라 정도가 달라진다. 파리공원은 근린공원이라는 도시의 기능을 상징으로서의 권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잘 수행하도록 구성되어졌다. 도시의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의 속성을 빌려온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져있다. 도시의 여타 기능이 제자리를 잡은 지금 파리공원은 그 연령과 기념성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원임에 틀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걷고, 앉아 얘기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운동을 하며, 공연도 벌이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곳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인다.

파리공원 설계자가 한국의 조경양식과 프랑스의 조경양식을 서로 조화시키고자 하였음을 밝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미지의 ‘한국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한국적 태도 혹은 상황에 설계의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성’에 보다 더 무게가 실린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조경설계에서 한국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조경부문에서 매우 두드러진 하나의 경향이었지만 대부분의 전통적 조경시설물을 재조합 배치하는 것에 그치던 것에 비교한다면 탁월한 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림 3-31. 파리공원은 남북축을 설정하고 한국 영역은 북쪽에, 프랑스 영역은 남쪽으로 구성했다.

파리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성과 프랑스성을 드러내주는 기호는 태극과 축, 그리고 양국의 전통무늬 및 색채이다. 즉,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호를 접하고 감지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와 프랑스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된다. 태극과 축은 그 기호적 의미 전달의 문법적 뼈대를 구성하고 있고, 좀 더 쉽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하기 위해 태극의 무늬와 색채, 십장생도, 자수화단 등이 수사적으로 덧붙여져 있다.

태극은 파리공원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구성 및 형태 도출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데, ‘태극’을 상징하는 기호로서의 ‘태극무늬’를 이용하고 있다. 사실 ‘태극무늬’는 태극이라는 만물의 근원이 세상을 생성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즉, 태극이 낳은 양의(兩儀)인 음과 양이 서로 맞물려 돌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안으로의 수렴이 아닌 밖으로의 확산을 표시하고 있는 역동성 있는 운동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파리공원에서는 이러한 태극이 의미하는 바를 쫓아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단순히 태극무늬를 바닥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한 공간들을 규정짓는 모티브로 활용함으로써 태극의 본래 의미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어 가는 운동성을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것이 남북방향의 축이며 이 축에 의해 공원의 여러 ‘태극’적 공간들이 하나의 질서 속에 엮여 들어가게 되어 있다. 프랑스의 정형식 정원에 나타나는 ‘축’은 하나의 강렬한 시각적 유희물일 뿐 아니라 실제로 거대한 정원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구성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요소가 축과 만나는 지점에서는 어김없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물이 있다든지, 조각이 있다든지 함으로써 축의 기능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파리공원의 축도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파리공원의 축은 시각적으로 기능적으로 공원의 요소를 엮어 줄 뿐 아니라 남북 방향으로 두고 북쪽을 한국의 영역, 남쪽은 프랑스의 영역으로 놓고 주인이 손님을 맞아 신명나는 축제가 벌어지는 상황으로 기호를 통한 상징의 체계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었다.



그림 3-32. 동적, 정적 활동이 경쾌하게 접속되는 파리공원



그림 3-33. 파리공원 수경시설 공간은 공간의 전개와 리듬감, 경쾌함을 부여한다.

파리공원의 설계에서 축과 태극의 상호작용은 상징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실제적인 공간 구성과 디자인을 풀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된 설계 개념이다. 특히 축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반복되어지는 공간 규모의 변화와 겹침

의 형태, 그리고 겹침 방향의 선화 등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전개와 리듬감은 잘 짜인 한편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경쾌함을 느끼게 한다. 서양의 교향곡 같은 장중함이나 수학적인 치밀함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가락에서 느껴지는 소박한 엇박자의 흥겨움이라는 점이 파리공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념성과 실용성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공간들이 구성됨으로써 개별공간의 기능성이 잘 살아나고 있다. 너른 한불마당, 숲, 동산, 서울광장 등의 공간은 제각각 동적, 정적 활동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상충되지 않으면서 이용되고 있으며, 오랜 세월이 흘러도 기본적인 공간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¹⁵⁾.

2절 용인 희원(熙園)

1_ 개요

호암미술관은 <문화유산의 해>와 개관 15주년을 기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 전통정원 희원(熙園,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을 개원하였다. 희원은 한국 전통정원의 멋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 속에 내재된 원리를 삶의 뿌리로 읽어냈던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이 정원 곳곳에 깃들여 있다. 전통정원 조형미의 근원인 '차경(借景)'의 원리를 바탕으로 옛 지형을 복원하고 석단, 정자, 연못, 담장 등 조경요소를 살려준 희원은 정원과 시설물이 숨겨지고 드러나는 유연한 멋을 통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으며, 실제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 경관이 빼어나다. 희원은 2만여 평의 대지 위에 전통정원의 경치를 재현했으며, 그동안 호암미술관이 수집해온 신라시대의 석탑을 비롯하여 불상, 벽수, 물화 등 귀중한 석조물들과 옛 선비들이 정신수양의 대상으로 삼았던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 사군자를 포함한 자생화초들이 정원 곳곳에 심어져 있어 전통조경을 이해하는 자연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정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과 호수가 접하여 산 그림자를 선명히 담고 있는 호수, 서쪽으로 굽이치며 뻗어가다 버드나무 숲 속에 감추어진 시내, 그리고 저 멀리 구름 아래 연이어진 산봉우리들은 희원에서 취할 수 있는 승경(勝景)이라 할 수 있고, 이 풍경들을 최대한 정원에 끌어들이고자 담과 단, 대의 구성과 높이를 조정하며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봄이면 호수는 벚꽃과 살구꽃을 수면에 그득히 담고, 가을이면 단풍에 취하게 하며, 겨울에는 산과 물이 만나는 그 경계선 사이로 오리 떼들이 몰려드는 풍경을 이와 같이 미술관 앞

15) 박준서, 2005, 환경과 조경 201호, 124-125쪽

에서 혹은 정원의 정자나 찻집에서 향유케 하였다.

희원에서는 호숫가를 따라 뱃나무 사이로 원로를 만들고, 수루 몇 칸 세울 수 있는 대를 물가에 쌓았다. 서쪽으로부터 경로를 여러 번 돌아 감기게 함으로써 마침내 도달할 미술관 앞마당까지, 그리고 후원 담 밖 뒷동산까지 문과 계단, 담, 대, 단 등을 반복하여 엮었다. 즉 호수와 산, 미술관 사이가 비록 짧은 단락의 공간이지만, 가능한 한 깊은 주름들을 지형으로 만들어 점진적으로 경관들을 보아 나가게 함으로써, 유연한 공간의 체험 끝에 끝내는 운심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하여 자신이 어디쯤 소요하는지 쉽사리 찾을 수 없게 구성하였다.

멀고 가까운 경치는 끌어들이고 건물은 숲으로 감싸 안으며 입구에서부터 건물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고 지붕, 용마루, 처마가 서서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형을 다듬는 일이 불가피 하였다. 호암미술관이 건설되기 전의 옛 지도를 상고해 가능한 지형을 원형대로 조산을 하되, 그 높이는 미술관과의 시점 거리를 계산하여 결정하였다. 이 정원의 골격이며 양의 요소인 조산 즉 지형의 조형은 조망과 보아나감과 인차의 경을 얻을 수 있도록 조형하였다. 당연히 원래 있던 정문의 위치가 바뀌었고, 계단과 원형 경사로가 있던 정원의 중앙 부분은 미술관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자연석으로 높이 6미터의 대 석단을 쌓았다. 석축 장인으로 하여금 영주 부석사며 참고할만한 산성들을 돌아보고 고담 하도록 하여 획일적이지 않은 희원만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정원의 혈액 즉 생기를 부여하는 음의 요소인 물은 산에서부터 끌어들이 정원을 감돌아 흐르게 한 바, 모든 물은 중앙의 큰 방지로 계류를 따라 흐르게 되었다.

주변 경관을 산천 모습 원래 그대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뒷산에서부터 아래 호수 속의 섬에 이르기까지 소나무를 심고, 주변에 버드나무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자생수목을 가능한 한 많이 심었다. 그리고 기화요초 역시 들과 산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심어, 저절로 자라 군락을 이룬듯하게 하여 이른 봄부터 이곳 저곳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풍경을 맛보게 하였다.

2. 설계 개념

희원은 몇 개의 공간들이 엮여져 있다. 바깥마당에서 정원의 입구에 해당하는 보화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매화나무 숲을 지나게 된다. 개원 초에는 대숲이었는데 이곳의 기후는 대나무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사군자의 또 다른 하나인 매화가 자리 잡았다. 길은 굽이지며 다음의 공간을 쉬이 보여주지 않는다. 벽수들의 수줍은 표정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오솔길을 벗어나면 또 다른 문을 만나게 된다. 솟을 대문이다. 열린 대문 안을 다른 담이 가로 막고 있고 그 위

로 소원의 정자 지붕이 엮보인다. 문을 들어서면 좁고 긴 공간이 있다. 이름 하여 간정, 정원과 정원 사이에 자리 잡은 사이정원이다.

소원에는 창덕궁 애련정을 본뜬 관음정과 경주 안압지를 줄여놓은 듯한 연못이 중심을 이룬다. 정원을 만들면서 옛 지형을 많이 살려냈는데 이로 인해 정자의 주변으로는 화계가 만들어졌다. 소원에서는 한국 전통정원의 모티브들이 모자이크되어 있어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찾았다. 정자와 연못이 있는 일반적인 정원경관은 연못과 그 속에 두 다리를 담근 정자,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화계의 순이라면, 이곳은 화계, 정자, 연못, 그리고 건너편 소나무의 순이다. 나의 위치가 연못을 사이에 두고 정자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자와 같은 편에 있는 것이다. 내가 정원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된 입장이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전통정원에 대한 많은 이미지들은 정원을 이용하기 보다는 관광하면서 생긴 것들이다. 정원 속에서 정원을 본 모습이기 보다는 바깥에서 정원을 본 모습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희원의 동선은 마음에 든다. 디자인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정원을 관광하지 말고 즐기라는 뜻. 그런 세심함은 좋으나 옥에 티라면 정자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자에 앉아 연못과 그 뒤의 화단, 그리고 멀리 호수와 맞은 편 산을 감상할 수 있게 했어야 했다.

소원이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연못을 중심으로 한 정원이라면, 이어지는 정원은 방형 연못이 중심을 이루는 정원이다. 희원의 주장에 해당된다. 소원과 주장 사이에는 문이 없다. 엇갈리게 겹쳐진 담 사이로 자연스럽게 흘러들도록 되어 있다. 소원이 여성스럽다면 주정은 남성스러운 공간이다. 소원에 비해 세 배나 넓은 이곳은 씩씩한 직선이 장쾌하다. 사실 소원과 주정은 하나의 공간이다. 소원은 음으로 주정은 양으로서 서로 켈레관계를 이루며 서로를 머금고 있는 태극을 연상케 한다. 그러기에 이 둘 사이에는 문이 없다. 경계는 있으되 그 둘은 자연스럽게 열려 있는 것이다. 부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것을 디자인으로 풀어냄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주정의 백미는 목화석으로 만든 대 석단이다. 영겁의 시간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석단은 그 앞에 곧추선 대나무들과 함께 미술관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다. 목화석과 소나무의 물성을 주위 환경과 미술관이라는 목적과 완벽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조경의 손길은 이제 공간 디자인에서 시간 디자인으로 나아간다.

서에서 동으로 수평적으로 전개되던 공간의 흐름은 이곳에서 위로 확장된다. 대 석단 위에는 살짝 숨어 있는 다실이 있다. 드러내지 않고 자리 잡은 모습이 디자인의 세심함을 느끼게 한다. 누군가 그랬다. 마치 지붕이 없는 누 같다고. 내부에서 통유리로 바라본 정원 한 귀퉁이의 디테일도 좋다. 그 뒤로 올라가면 미술관에 이른다. 미술관 앞에는 다목적 잔디밭인 양대가 있고 그 옆으로

는 벉수들이 모여 앉아 있는 월대가 있다. 또 다른 음양의 조화이다. 채워둑과 비움, 흙과 잔디, 소와 대, 야생화와 매란송죽 등 다양한 다이코토미가 디자인에 담겨 있다. 은유와 상징이 숨겨있고, 시적 정취와 조화의 원리가 내장된 정원은 여러 겹의 의미층을 구축하게 된다.

희원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정원 속에 담겨있는 전통의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조경의 담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이다. 서구의 조경 실천 경향에 이목을 집중하였던 조경계의 흐름에 비해 한국적인 것에 대한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개인 정원이 아닌 공공부분에서 한국정원을 풀어낼 프로젝트가 드물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희원프로젝트는 부지의 목적과 환경 조건, 발주자의 기호, 설계가의 강한 의욕 등 모든 요인들이 딱 들어맞았던 이벤트였다.



그림 3-34. 희원의 연못, 낮은담장 그리고 지형조건을 잘 활용한 차경기법의 전형적인 사례

희원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각 재료가 가진 물성을 잘 살려내었다는 점이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온 듯한, 자연스러움이 재료들로부터 느껴지고, 정원이 갖추어야 할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고유섭(1905 ~ 1944)의 ‘무기교의 기교’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희원이 보여주는



그림 3-35. 희원의 담장은 적절한 위요감을 주며 자연을 이어주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물성을 살려낸 세심한 디테일은 한국정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 된다. 또 다른 장점은 전통적 모티브의 도출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문과 담, 정자와 연못, 돌과 재식 등 정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속에서 전통정원의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다. 설계 당시 가동할 수 있는 전통정원에 관한 정보를 총망라한 듯하다.

한편, 전통조경의 조각들이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는 부지의 지형과 경관의 씨줄과 날줄 속에서 결을 따라 용의주도하게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전통정원의 모티브들을 단순히 콜라주하거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의 조건과 미술관이라는 기능에 충실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원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함의득체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에서 보다 돋보이는 점은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화두는 시간이라 할 것이다.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보물들, 미술관 주변에 널려 있는 식물들은 전부 시간의 산물이다. 그리고 정원이 지향한 한국전통조경의 복원과 창조 또한 시간에 대한 성찰을 전제로 한다.

전통정원을 복원 혹은 재창조한다고 하였을 때 전통성이란 단순한 형태의 모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시간을 얼마나 적절하게 담아 내느냐가 키포인트가 된다. 이런 점에서 회원의 디자인은 뛰어나다. 대석단과 그 앞의 소나무에서부터 계류 속에 놓인 돌들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깊이가 느껴지는 디자인을 이루었다. 회원을 통해 조경가의 손길은 공간만을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기는 내용의 시간에까지도 미쳐져야 함을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¹⁶⁾.



그림 3-36. 지형의 높낮이를 석단과 화계라는 전통조경기법으로 대입시켜 경관짜임을 이룬 회원

16) 이유직, 2005, 환경과 조경 201호, 142-143쪽



그림 3-37. 전통 담장 밖에 펼쳐진 외부경관의 풍경미는 선경의 이상세계로 감지된다.

3절 서울 선유도 공원

1_ 개요

선유도(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는 한강 가운데 있는 몇 안 되는 섬 중의 하나이다. 한강이 우리에게 베푸는 여러 가지 고마움 중 선유도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강이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이다. 그 빈 공간이 주는 거리를 통하여 도심의 빌딩 숲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서울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땅의 형상을 새롭게 발견한다. 탁 트인 공간은 그동안 좁아졌던 우리의 시야를 자유롭게 열어주며 우리가 잠시 두고 온 도시와 그 안을 살아가는 일상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넓은 강물위에 떠 있는 섬인 선유도는 다리를 통해서 접근한다. 우리의 전통공간 구성에서 볼 수 있는 경계요소로서의 물과 그것을 건너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서울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마치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을 오가듯 우리의 마음과 시야는 새로워진다.

한강의 섬이라는 지리학적 관계와 더불어 선유도는 한강과 밀접한 인연을 갖고 있다. 선유정수장은 한강의 물을 직접 끌어올려 정수하던 곳으로 섬 전체가 물을 가득히 품고 있던 물의 섬이었다. 그러나 선유정수장이 선유도에 자리 잡

는 1970년대 후반은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한강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던 시기였고 개발사업으로 강변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한강은 더 이상 생명을 느낄 수 없는 오염된 물길로 전락했다. 이즈음 선유정 수장이 그 기능을 다하고 이전의 푸르름을 되찾아 가려는 상황 하에서 선유도의 공원화는 자연스럽게 한강과 환경 그리고 생태의 문제를 행해 방향을 잡았다. 선유정수장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으로 구성된 시설물들이 만들어내는 공간과 땅의 모양을 이용하여 선유도와 선유정수장이 간직한 기억과 환경, 자연,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선유도가 도시 내에서 가지는 지리적 공간적 잠재력을 드러내는 것과 함께 공원설계의 중심을 이루었다¹⁷⁾.

선유도 공원은 근대화의 산물인 수도공장의 황폐화된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디자인한 공원이다. 30년 가까이 영등포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해 온 정수장, 원래는 섬이 아니었으나 일제강점기의 큰 홍수 후 제방을 쌓기 위해 암석을 채취하면서 섬으로 변한 곳,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선이 노니는 봉우리”라는 이름처럼 빼어난 절경과 넉넉한 풍류를 자랑했던 곳이다.

이곳은 장소가 가지고 있던 옛 정수장의 흔적을 도입하여 과거와 현재의 ‘사이성’이라는 시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일종의 텍스트로서 사건들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장소는 과거의 흔적들과 그 위로 자라나는 식물들의 상호이질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차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녹슨 철판이 드러내는 붉은 녹과 산화된 콘크리트 기둥과 벽, 여기에 인용된 텍스트들은 서로를 지시하면서 각각이 흔적들이 가졌던 초기의 의도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요소라도 그것이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지는 존재로서의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요소도 그 절대적 가치로 두지 않고, 우연에 의한 불확정적으로 나타나고 모든 요소들이 혼합되어 병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장소의 성격을 갖는 공원은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물과 경관의 변형과 관계있으며, 오랜 부재 후에는 더욱 극적인 곳이 된다. 이곳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가 서로 겹쳐지면서 각기 다른 연대기적 시간 속에서 전시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각적인 것의 전복과 혹은 다양한 이해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 속으로 현장을 재구성하게 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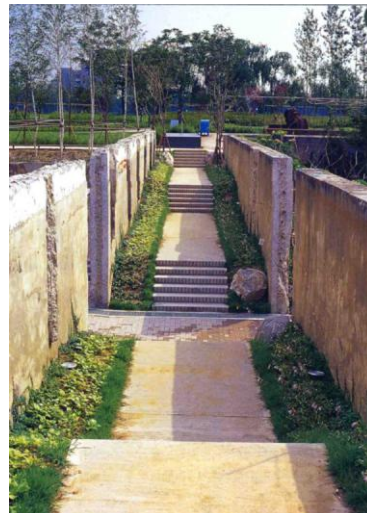


그림 3-38. 선유도공원(1): 과거의 흔적

17) 정영선, 2002, 선유도공원 설계, 생태건축강습회 자료집

18) 장일영, 김진선, 2006, 현대조경설계에 있어서 시각개념의 전개 양상-가시성에서 확장된 시각성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제34권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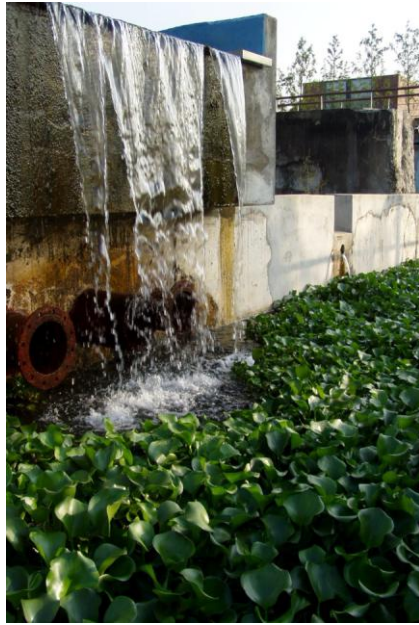


그림 3-39. 선유도공원(2): 과거의 흔적



그림 3-40. 선유도공원(3): 과거의 흔적

2_ 설계개념

선유교와 맞대고 있는 지극히 가벼운 느낌의 목재 데크로 불어오는 강바람, 한 번에 경험되는 서울의 풍경과 냄새, 정수장의 거친 콘크리트 잔해와 새로운 철재 재료의 동거가 만들어내는 몽타주, 밝음보다는 우울함에 가까운 메시지, 땀 흘리는 움직임보다는 엄숙한 성찰의 발걸음을 요구하는 사색의 원로 그것은 다분히 ‘미학적’이다. 미학적 판단은 논리적 판단이 아닌 ‘감성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감각을 통해 파고드는 선유도공원의 이 모호한 분위기를 어떠한 미학적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름다움(the beautiful) 및 픽취레스크(the picturesque)와 함께 18, 19세기의 3대 미적 범주의 하나였던 ‘숭고(the sublime)’에 가까울 지도 모르겠다. 폐허의 무거움이 연출하는 숭고함. 숭고만으로 선유도공원을 지배하는 감각의 아우라가 해명될 수 있을까? 디지털 카메라에 담아 온 다양한 앵글의 사진을 계속 반복시켜도 모호하고 애매한 감각이 시각적으로 재생되지 않는 것을 보면 선유도공원이 담고 있는 감흥의 열쇠는 공감각적 경험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미루나무가 불러들이는 바람 소리에 취해도 보고, 강 건너 탁 트인 전망을 즐기며 사색의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다. 바람 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때쯤 지하 공간으로 내려오면 놀라울 정도로 고즈넉한 정원이 기다리고 있다. 정수장 건물의 흔적들, 남아 있는 기둥과 벽, 그리고 물을 담아두었던 사각 공간 안에 자라는 식물들은 평온한 사색의 시간을 안겨준다. 낡은 것은 낡은 채로, 비어 있는 것은 빈 채로.” 안내소에서 얻을 수 있는 홍보 책자에 실린 글의 한 구절이지만 선유도공원을 지배하는 감각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과 보이지 않는 지층 곳곳을 시간과 역사와 기억이 관통하고 있다. 절경의 선유봉에서 잊혀진 섬으로, 다시 정수장으로, 그리고 공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만이 아니다. 사실 변화라는 두 글자로 요약되는 서울에서 선유도는 그나마 근대사의 변화 세례를 덜 받은 운 좋은 땅덩이가 아닐 수 없다. 선유도공원의 시간 암호가 매력적인 것은 시간의 경험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유도공원은 감각적인 기억의 메커니즘에 호소하고 있다. 허물어진 콘크리트, 거친 표면의 시멘트 기둥, 녹슬고 부식된 철제 배관 같은 파편화된 물체를 통해 시간의 아우라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하나의 층에 축이나 격자를 가지고 질서를 부여하는 수평적 공간 구성과 동선 시스템과는 달리 선유도공원은 수직적 공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여러 층의 공간과 뒤섞이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다양한 깊이의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두껍게 하기(thickening)”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입체적 디자인 전략은 공간 자체의 구성뿐만 아니라 그것의 경험과 이용 층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선유도공원의 핵심부라고 할 만한 시간의 정원은 두껍게 하기의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약품침전지라는 본래의 공간 조건을 살려 조성한 4미터 깊이의 선큰 공간에서는 소정원 여덟 개와 그것을 구획하는 콘크리트 기둥의 수직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위를 지나가는 지상 레벨의 목재 마루와 길에서는 아래에 펼쳐진 정원에 대한 호기심을 숨긴 채 한강의 바람과 냄새를 경험할 수도 있다. 아래층을 통해 계속 수생식물원 쪽으로 걸음을 옮길 수도 있지만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의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 수생식물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통과해서 녹색기둥의 정원으로 다시 한층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림 3-41. 선유도공원 과거의 흔적, 의미경관, 수경요소 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공간적 의미를 지닌다.



그림 3-42. 선유도공원 마당에 펼쳐진 수경시설은 기후변화와 물의 유입상황에 따라 또 다른 비워둠의 미학을 발견하게 된다.

시간의 정원을 예로 든다면, 아래층은 과거의 시간을, 위층은 현재의 시간을 구성하며 경험되는 시간과 깊이를 두껍게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이 두꺼운 공간은 경험자 나름의 해석을 열어놓고 있다. 아래층, 즉 지하 공간에서 과거의 층위를 경험하고는 가운데 새로 심겨진 방향식물과 텅굴의 초시간적 동거를 경험할 수도 있고, 위층, 즉 지상을 걸으며 현재의 시간 밑에 침전된 과거의 시간을 궁금함과 혼란함의 접점을 넘나들며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껍게 하기 전략은 시간의 차원과 결합되면서, 또 부지에 던져진 역사라는 조건과 복합되면서 선유도공원의 시간 지층을 더욱 깊이 있게 한다.

“두껍게 하기”와 함께 선유도공원에 의도된 시간 전략의 또 다른 축으로 “물성(physicality)의 노출”을 꼽을 수 있다. 울퉁불퉁한 생활처럼 드러난 콘크리트 벽과 기둥, 지워지지 않은 물의 얼룩과 녹슨 자국이 전해 주는 것은 쓸모없어 폐기된 산업의 잔재가 아니라 재료 자체의 물성이다. 그 물성은 또한 시간의 흔적을 가감 없이 노출시킨다. 노출된 물성과 그것에 녹아있는 시간의 이야기는 자연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의 산업 재료와 새로운 방식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은 식물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문화와 함께 자연의 역동성을 물질적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직각 방향으로 공원을 가로지르며 선 한강전시관 앞의 녹색기둥의 정원은 물성의 노출을 통해 시간을 성찰하고 자연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반성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19) 배정환, 2007, 조경의 시대 조경을 넘어, 도서출판 조경



제 4부 소결

제4부 소결

조경과 같은 환경디자인 영역은 물론 모든 예술 분야 활동에서 ‘우리 것과 한국적인 것’, 그리고 ‘전통성과 한국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오늘날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방향성’과 정체성 ‘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도된 본 연구는 심화연구 과제로 전통조경 및 현대조경의 대표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성에 대한 전통조경 대표 키워드를 도출하고, 한국적인 표현방법과 작정원리의 올바른 계승을 위한 연구결과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연구결과

첫째, 한국 전통조경에 작용된 선조들의 미의식과 관념세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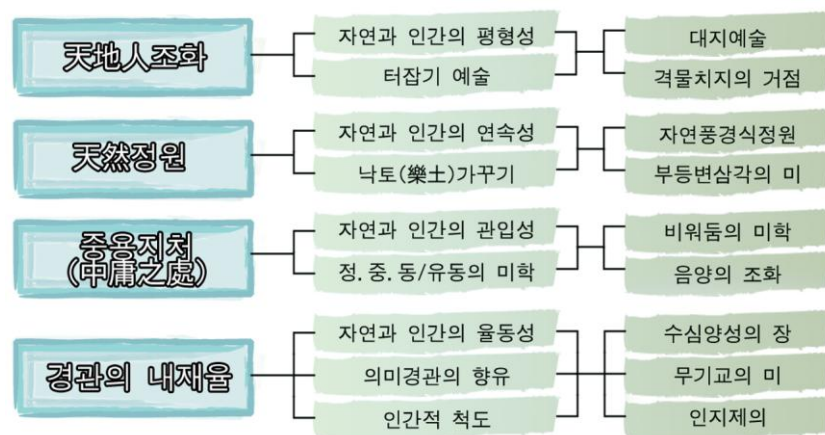
한국 전통조경의 가장 큰 특징은 산자수명한 자연환경조건을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 조화되도록 터를 잡아 가꾸는 것으로, 종교와 사상(자연숭배사상, 음양오행사상, 신선사상, 도가적 은일사상, 유가적 은둔사상, 풍수지리사상, 불교적 자연관 등)을 접합시켜 환경설계 원리로 승화시킨 자연관과 작정관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포근하고 아늑한 공간감을 느낄 수 곳에 자리 잡아 정원을 조성할 때는 생토(生土)에 의미를 부여하여 지형을 함부로 변형하지 않았으며, 물의 이용이나 꽃과 나무들의 형상도 자연의 법도와 원칙에 따를 뿐 과도한 인공적 조작을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전통조경에서 드러난 작정기법과 관련한 관념세계의 경우 ① 현실적 차안의 세계 : 은일, 은둔처, ② 초현실적 이상향의 세계 : 선경, 풍류처, ③ 종교적 피안의 세계 : 극락정토처, ④ 현세발복과 미래낙원의 세계 : 낙토 복지처 자리잡기와 가꾸기 등으로 요약된다.

둘째, 전통조경의 의미와 가치를 구체화 시킨 조형행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전통조경에서 중요한 관점은 어느 곳에 자리 잡기 하느냐 인데, 이러한 자리 잡기에는 천지인의 조화에 관점을 둔 격물치지의 거점이자 대지예술의 미학이 발견된다. 특히, 자리 잡은 터를 가꾸는 일에는 자연 속에 낙토를 경영하고 중용지처를 구축하는 과정의 연속인데, 부등변삼각의 미가 투영된 자연풍격식 정원을 조성하여 정, 중, 동의 직유적 아름다움은 물론 은유적 상징 미학을 체감하게 된다. 한편, 인간적 척도의 틀 속에서 무기교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의미경관을 향유하는 가운데 수심양성(修心養性)의 장을 구축하는 경관짜임의 내재움을 개입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전통조경의 의미와 가치를 투영시킨 경관기법은 사실적 경관인 실경(實景)과 의미적으로 느껴지는 경관인 의경(意景), 자연을 시지각적으로 즐기며 감상하는 가운데 학문 활동, 배틀이와 상화연, 유상곡수연, 거문고, 낚시, 말 타기, 그네타기, 활쏘기, 바둑 등의 행태가 어우러진 유락과 풍류행위가 다양하게 도입되는 유경(遊景), 멀리 조산과 안산은 물론 가까이에서 펼쳐진 만가지 꽃과 나무, 연못 등 원근(遠近) 경물은 물론 꽃구름과 신선숲, 무릉도원, 봉황숲, 동천세계 등 상상의 경관을 취하여 즐기는 차경(借景) 기법을 들 수 있다.

한편, 경물 감상의 주 대상이 되는 식물소재로는 계절변화를 느낄 수 있는 낙엽활엽수를 중심으로 화목과 과실수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소나무와 잣나무, 측백나무, 동백나무, 대나무를 비롯하여 백련, 모란,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버

드나무, 뽕나무, 배나무, 매화나무, 자두나무, 석류, 대추나무, 은행나무, 무궁화, 앵두나무, 포도나무, 파초, 진달래, 모란, 작약, 장미, 국화, 맨드라미 등이 애용되었다. 한편, 동물소재로 물고기, 백학, 원앙, 오리, 앵무새, 매미, 두견새, 공작, 원숭이 등을 들 수 있고, 시설소재로는 연못과 섬, 다리, 수문, 가산, 샘, 계류, 논, 우물, 단, 비각, 폭포, 곡수거, 화계, 담장, 굴뚝, 가산, 괴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조경식물은 풍수사상이나 신선사상, 음양사상, 유교적 규범(소나무, 매화, 국화, 대나무, 난초, 연꽃 등), 안빈낙도의 생활철학(국화, 버드나무, 복숭아나무 등), 은둔사상과 태평성대 희구사상(오동나무, 대나무 등) 등에 의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렸다. 즉, 고아, 부귀, 지조와 의리, 운치, 품격 등을 부여하고 손님과 벗으로 의인화하는 등 정신세계와 함축적인 윤리관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조작방법을 좋아하지 않았고 계절의 변화를 즐기면서 자연스러움을 그윽하게 감상하는 기법이었다. 외부환경은 음양사상에 의한 상화(相和) 개념, 풍수적 비보식재 등을 제외하고는 자연원생의 분위기를 차경(借景)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소나무, 버드나무, 회화나무, 신갈나무, 오동나무, 대나무 등이 건물 주위에 도입되었고 뜰과 후원에는 복사꽃, 매화 등의 화목류와 괴석과 가산, 석연지, 화계, 누정 등이 도입되기도 하였는데, 선경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신선풍의 작정미학을 감지하게 된다.

천원정원	➤	생토(生土), 차경(借景)	➤	차경정원
유우자연(融于自然)	➤	방지(方池), 원도(圓島)	➤	연못
自然의 축경(縮景)	➤	가산(假山), 괴석(怪石)	➤	괴석정원
인지제의(因地制宜)	➤	화계(花階), 화오(花塢)	➤	후원(後園)
유기적 경물, 풍류처	➤	누(樓), 정(亭)	➤	풍류정원
수심양성(收心養性)의 장	➤	곡(曲), 경(景)	➤	의원(意園)
생태적 상징기호	➤	식물(植物)	➤	화원(花園)

셋째, 전통조경 작정미학에 드러나는 창조적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작정미학과 관련한 선조들의 창조적 사고방식의 중점 키워드는 ① 자연과 화합하는 터잡기 예술 :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산수융결(山水融結)한 낙토(樂土), ② 형이상학적 관념체계가 반영된 작정 원칙 : 임원(林園), 비원(秘園), 지원(池園), 화원(花園), 의원(意園), 선경풍류처(仙境風流處), ③ 율동적인 경관인식 체계 : 경관과 관경(觀景), 차경(借景), 실경(實景)과 상징경(象徵景), 유경(遊景), ④ 환경윤리가 반영된 조경 재료 : 자연녹지축에 가꾸기 한 수목 석토(水木石土)의 생태정원, ⑤ 은유적 탐미관이 반영된 작정기법 : 방지원도(方池圓島), 화계와 화오, 누정(樓亭), 차경(借景), 조산(造山)과 괴석으로 어우

러진 축경원(縮景園), 부등변 삼각의 식재 및 배석법 ⑥ 자연의 관입(살창, 헛담, 취병, 곡수로, 비구, 물레방아, 샘 등) 그리고 ⑦ 채포(菜圃)와 과포(果圃), 약포(藥圃)를 가꾸며 과학기(양부일귀, 풍기대, 일영대, 측우기 등)가 도입된 실용 정원 등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자연과 화합하는 터잡기 예술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산수융결(山水融結)한 낙토(樂土)

형이상학적 관념체계가 반영된 작정 원칙

임원(林園), 비원(秘園), 지원(池園), 화원(花園), 의원(意園), 선경풍류처(仙境風流處)

움동적인 경관인식 체계

경관과, 관경(觀景), 차경(借景), 실경(實景)과 상징경(象徵景), 유경(遊景)

환경윤리가 반영된 조경 재료

자연녹지속에 가꾼 수목석토(水木石土)의 생태정원

은유적 탐미관이 반영된 작정기법

방지원도(方池園島), 화계와 화오, 누정(樓亭), 차경(借景), 조산(造山)과 괴석 등 축경원(縮景園), 부등변 삼각의 식재 및 배석법

자연의 관입

누정, 살창, 헛담, 취병, 곡수로, 비구, 물레방아, 샘 등

실사구시의 실용 정원

채포(菜圃)와 과포(果圃), 약포(藥圃)를 가꾸며 연못, 과학기(양부일귀, 풍기대, 일영대, 측우기 등)도입

넷째, 전통조경을 현대적 디자인 가치로 표현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전통조경 설계원칙과 작정기법 등의 원형적 인자 추출을 위한 과정은 함축된 문화사상적 틀을 기반으로 의미적 코드와 시각적 코드로 구분하여 이론과 실제적 양상으로 설계원칙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의미적 코드의 하위 키워드 개념으로는 ① 유기체적 특성(자연형태 모방, 자연과 인공의 유기적 통일성), ② 사이의 미(차경기법과 시지각적 연속성, 내외부 공간의 침투성), ③ 자연과 인간의 형이상학적 조화(자연주의 이미지 즉, 지모사상(地母思想), 지형순응, 형이상학적 의미경관 창출) 틀이 추출된다.

시각적 코드의 하위개념 키워드로는 ① 담장(살창과 헛담 포함), ② 후원(뒷뜰), ③ 마당과 뜰(庭과 園), ④ 식물, ⑤ 화계와 화오(화단 포함), ⑥ 정자(樓, 亭, 臺), ⑦ 연못, ⑧ 경관석(괴석, 석가산 포함), ⑨ 석지와 돌화, ⑩ 취

병(생울타리 포함) 등 10개 요소가 추출된다.

전통조경의 디자인적 가치와 경관미

구분	문화기호로서 한국전통공간	전통조경의 디자인적 가치	합축의 미, 경관의 미	
철학	우주관 * 理氣論 : 유기체적 특성/ 천인합일사상 * 주역 : 우주, 형이상학 * 음양오행론 : 氣의 구체화/ 순환론, 오행의 상생상극/ 만물의 생성과 소멸 * 전체와 부분의 전일적 세계관	종교관 * 불교의 연기론 * 유교의 仁義禮智 사상 * 도교의 무위자연 * 지모사상(地母思想)	자연관 · 토지관 · 환경관 * 도가적 은일사상/풍류 * 유가적 은둔사상 * 성리학적 격물치지 * 풍수적 배산임수/사신사 구조/우주질서와의 합일 * 에너지순환원리 자연을 변화와 생성으로 파악	문화적 적 틀
이론	형태언어 * 구조미와 삼재미/천지인합 일 * 투명성과 虛와 實의 중층 적 반복 공간형성의 원리 * 카오스모스적 질서와 理 의 중첩성 * 차경과 시지각적 연속성	형태구성 * 양식화 * 추상 * 재현, 직유 * 비유, 은유	문화적 상징성 * 가변성과 유연성 * 자연주의로 구현한 중의적 표현 * 변화와 운율 * 내외부의 연결과 확장 * 중용지처	의 미 적 코 드
실천	직설적 도해와 시각적 유사성 * 色 : 색의 관념성 * 形 : 자연의 원리에 순응 * 空 : 연상적 의미	규범과 가변성 * 공간구성체계: 증식과 분화 * 순환체계 : 흐름의 원통성 * 시각체계 : 정형성과 축질서 * 비례 및 척도체계 : 합규율성	상징 :의미 * 무늬 :생활에 대한 주관적 의식 * 색채 :음양오행 * 형태 :합축 * 장식 :공간에서 장소로 개념전이 * 재료 :음양오행	시 각 적 코 드

전통조경의 유형적 특성 : 의미적 코드

맥락적 특성	특징	해석체 interpretant	전통조경 대상체 Object	현대조경 표현체 Re-presentamen
유기체 적 특성	자연형태 모방	자연계의 형상(새, 무지개, 구름, 십장생 등이 상징하는 유동적 선과 형태를 시각적으로 유추)을 전통조경 형태에 반영 전통공간에서 구조와 장식의 합치를 꾀하는 방법		
	유기적 통일성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부분과 전체, 인간과 자연의 조 화로운 통일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연관		
			그림 4-1. 경복궁 자경전	그림 4-2. 파리공원
			그림 4-3. 소쇄원 매대	그림 4-4. 회원

사이의 美	차경과 시지각적 연속성	한정된 공간성을 확장하는 기법인 차경은 자연으로부터 적극적인 교섭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관원리 차경기법은 인공구축공간에서 자연의미를 체감하고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함 원근(遠近), 양부(仰俯)의 경관 차경		
	공간의 침투	“중첩과 관입”은 내부와 외부 사이의 관계를 단절로 보지 않고 개방적 연속으로 정의하는 공간관 침투의 공간개념은 마당과 뜰, 자연 등 외부공간과의 시각적 관계에 따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 내/외부공간의 시각적 관계는 반자연/반인공 등 시각적 틀을 구성하는 중간영역의 침투에 기인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 주의적 이미지	인위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을 존중하는 미의식 한국전통 조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자연과의 융합을 들 수 있음 수목석토(水木石土) 등 자연소재, 가공성의 최소화, 인위적인 조작을 취하지 않는 수목의 도입, 계절감의 고취 등 원생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정기법 생물다양성의 고려 등 생태적인 원리가 반영된 장소변영적 사고		
	지형순응	주변 자연환경 조건인 산수형국에 의미를 부여하고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조건에 은신하기 좋은 터를 잡아 자리잡기 목적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의 문제보다 어떠한 곳에 자리 잡느냐의 원칙이 더 잡기 가 본질 수용력 범위내의 토지이용, 물길과 마을길의 연계 자연지형조건에 밀착되어 건물과 마당, 그리고 뜰을 계단상으로 조성하여 영역성, 스카이라인 보존		
	의미경관 창출	풍수사상, 신선사상, 음양사상, 유교적 규범(소나무, 매화, 국화, 대나무, 난초, 연꽃 등), 안빈낙도의 생활철학(국화, 버드나무, 복숭아나무 등), 은둔사상과 태평성대 회구사상(오동나무, 대나무 등), 고아, 부귀, 지조와 의리, 운치, 품격을 부여한 경관짜임 풍수, 신선사상, 격물치지의 성리학, 풍류관 등이 반영된 연못, 누정, 괴석, 조산, 숲, 물 등의 도입		

전통조경의 유형적 특성 : 시각적 코드

조경 요소	전통조경: 대상체 Object	해석체 Interpretant	현대조경: 표현체 Representamen
담장 (살창과 헛담)	 그림 4-15, 소쇄원	자연과 외부세계와의 보호막 (흙과 돌, 점토, 식물 등) 인간적 척도, 높이가 사람을 압도하지 않음 환경심리학적 적정 폐쇄감 반영 재료, 질감, 색상, 무늬, 굴곡, 상징성 등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경관요소로 작용 아름다운 경관 감상, 자연의 관류를 위해 살창과 담을 두지 않는 헛담기법의 활용	 그림 4-16, 파리공원

후원	 그림 4-17. 윤증 고택	비산비야의 살림집 뒷뜰 경사구간에 도입 굴뚝과 우물, 장독대, 채원, 과원, 약포 등이 만들어지기도 함 자연과 인공을 이어주는 매개공간으로서 아름다움과 생활의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 원충공간으로서 산사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완화시켜주는 지혜의 산물	 그림 4-18. 희원
마 당 과 들	 그림 4-19. 윤증 고택	환경심리적으로 안마당에서 사랑마당과 중문마당을 거쳐 행랑마당 그리고 바깥마당으로 전개되는 공간의 유기적인 짜임구조는 영역성과 적정 폐쇄감 체감 통풍, 일조, 자연의 도입 등을 통한 주거 쾌적성제고 반 내부와 반 외부적인 비워둠의 미학, 그리고 다목적 용도 변용(관혼상제, 동선연결, 곡물건조 등)이 가능한 중용의 미학 공간	 그림 4-20. 파리공원
식물	 그림 4-21. 강릉 선교장	미적, 기능적, 실용적, 생태적 측면, 상징성 등 복합적인 고려 풍수, 신선사상, 음양사상, 유교적 규범(소나무, 매화, 국화, 대나무, 난초, 연꽃 등), 안빈낙도의 생활철학(국화, 버드나무, 복숭아나무 등), 은둔사상과 태평성대 회구(오동나무, 대나무 등) 등 의미경관 반영	 그림 4-22. 희원
화 계 와 화오	 그림 4-23. 소재원	자연과의 경계로서 경사 처리에 장식적인 처리가 가해진 조경시설(장대석이나 돌을 가지런히 쌓은 단에 꽃과 나무를 심음) 경사구간을 구조적으로 처리하여 목적공간의 안전성 도모 초화류 등 자연을 도입하여 계절감을 느끼며, 점경물, 과학기기(해시계 등) 등을 도입하여 실사구시적인 실용정원 도모	 그림 4-24. 희원
정자	 그림 4-25. 선교장 활래정	자연속에서 잠시 머물며 자연을 즐기고 자연과 일치를 도모했던 주객일체(主客一體) 거점처 시각적 틀짜기로 주위경관을 바라보고 즐길 경관의 객체로서 보여주는 관경(觀景)요소 산수체험과 시서화금(詩書畫琴) 등 풍류문화의 거점 높고 낮음, 멀고 가까운 경관을 즐김	 그림 4-26. 선유도 공원(선유정)
연못	 그림 4-27. 부용정	지형조건과 물의 유하 특성을 고려(생활용수 정화, 방화 및 농업용수, 침식방지) 미기후 조절, 생태적 건전성 유도 물고기와 수생식물, 그리고 수변식물을 도입하여 심미적 가치 제고 천원지방사상, 풍수지리적 관점 등 의미경관 요소로 작용	 그림 4-28. 선유도 공원

경관석(괴석)		경관가치가 있는 기이하게 생긴 자연석을 화계와 화오, 연못주변, 후원 등에 도입 좁은 공간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축경하여 재현한 경관요소 신선사상, 불로장생 사상 등 의미경관의 반영 형이상학적 선경의 이상세계 표현	
그림 4-29. 경복궁			그림 4-30. 희원
석 지와 돌확		돌을 다듬어 연못형태를 축소 재현한 지혜의 산물 물을 담아 연과 부엽식물을 곁들이며 고기도 키우고 하늘의 투명미를 감상하던 점경물 돌절구, 방화용수 및 생활용수로도 활용 안마당, 후원, 화계 등에 도입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만들어 1m 내외의 크기로 가공	
그림 4-31. 강진 청자박물관			그림 4-32. 희원
취병과 생울타리		취병은 외부공간을 구분하거나 차폐하기 위해 대나무 갯버들로 엮어 만든 격자형 창살 생울타리를 지칭, 여름에는 녹색의 담으로 겨울에는 대나무 울타리로 담으로 사용 무궁화, 탕자나무, 사철나무, 대나무 등을 열식으로 심어 가지런히 다듬어 가꾼 생울타리는 경계표시, 시각적 차폐, 동물침입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그림 4-33. 창덕궁 주합루			그림 4-34. 선유도 공원

특히, 이들 10개 요소로 대별되는 조경설계 키워드를 중심요소로 현대조경 표현체로서의 양식화, 추상화, 재현, 그리고 은유적으로 대입시킨 사례를 연역적으로 분석하였다. 전통조경 대상지로 궁궐조경 사례인 창덕궁 후원(비원), 별서 사례인 담양의 소쇄원, 살림집 사례인 강릉 선교장 등 3개 사례를 대표적으로 분석하였고, 현대 조경디자인에 발현된 사례 대상지로 서울 파리공원, 용인 희원, 서울 선유도 공원 등 3개 대표사례를 분석하였는 바 현재의 시대 가치로 재해석되어 표현된 10개 전통요소(담장, 후원, 마당과 뜰, 식물, 화계, 정자, 연못, 경관석, 돌확, 취병 등)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전통조경 디자인의 현대적인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풍수적 관점에서 중요시 다루었던 주변의 자연환경자원(山水, 바람)을 유효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원형지(生土)를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다. 생태적이며 쾌적한 문화공간 구축을 위해 물순환 시스템을 응용한 자연형 배수체계 그리고 자연소재(水, 木, 石, 土 등)의 적극 사용이 요구된다. 경관적 측면에서 주변의 자연경관을 생활공간 속으로 관입시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정자와 연못, 마을숲, 녹음수 등을 활용하여 경관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기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사진 뒤뜰을 시각적으로 가꾸면서 기능적으로 토양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화계조성 및 대숲, 소나무숲 등의 군락식재기법, 자연과 인공을 유기적으로 잘 이어주며 엮어주는 담 밑의 화

단조성, 자급자족적 친환경 거점공간인 텃밭과 장독대, 생태적 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연못과 마을숲, 생태적이며 실사구시적인 소재로 활용된 식물요소와 수경시설, 축경형 점경물 등 전통조경 설계요소들은 시대를 뛰어넘는 현대적 디자인 가치성 측면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라 하겠다.

2장. 연구결과의 요약

첫째, 한국 전통조경에 작용된 선조들의 미의식은 산자수명한 자연환경조건을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 조화되도록 터를 잡아 가꾸는 것으로, 종교와 사상(자연 숭배사상, 음양오행사상, 신선사상, 도가적 은일사상, 유가적 은둔사상, 풍수지리사상, 불교적 자연관 등)을 접합시켜 환경설계 원리로 승화시킨 선천적 대의성이라고 하는 자연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작정기법과 관련한 관념세계의 경우 ① 현실적 차안의 세계 : 은일, 은둔처, ② 초현실적 이상향의 세계 : 선경, 풍류지, ③ 종교적 피안의 세계 : 극락정토, ④ 현세발복과 미래낙원의 세계 : 낙토 복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전통조경의 의미와 가치를 구체화 시킨 조형행위는 어느 곳에 자리 잡기 하느냐 인데, 이러한 자리 잡기에는 천지인의 조화에 관점을 둔 격물치지의 거점이자 대지예술의 미학이 발견된다. 여기에는 자연 속에 인간을 접속시켜 낙토를 경영하고 중용지처를 구축하는 과정의 연속인데, 부등변삼각의 미가 투영된 자연풍격식 정원을 조성하여 정, 중, 동의 직유적, 은유적 아름다움을 체감하게 된다. 특히, 인간적 척도의 틀 속에서 무기교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의미경관을 향유하는 가운데 수심양성(修心養性)의 장을 구축하는 일정한 경관의 내재율을 개입시키고 있다.

셋째, 전통조경의 작정미학과 관련한 선조들의 창조적 사고방식의 중점 키워드는 ① 자연과 화합하는 터잡기 예술 :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산수용결(山水融結)한 낙토(樂土), ② 형이상학적 관념체계가 반영된 작정 원칙 : 임원(林園), 비원(秘園), 지원(池園), 화원(花園), 의원(意園), 선경풍류처(仙境風流處), ③ 율동적인 경관인식 체계 : 경관과 관경(觀景), 차경(借景), 실경(實景)과 상징경(象徵景), 유경(遊景), ④ 환경윤리가 반영된 조경 재료 : 자연녹지축에 가꾸기 한 수목석토(水木石土)의 생태정원, ⑤ 은유적 탐미관이 반영된 작정기법 : 방지원도(方池圓島), 화계와 화오, 누정(樓亭), 차경(借景), 조산(造山)과 괴석으로 어우러진 축경원(縮景園), 부등변 삼각의 식재 및 배석법 ⑥ 자연의 관입(살창, 헛단, 취병, 곡수로, 비구, 물레방아, 샘 등) 그리고 ⑦ 채포(菜圃)와 과포(果圃), 약포(藥圃)를 가꾸며 과학기기(양부일귀, 풍기대, 일영대, 측우기

등)가 도입된 실용 정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넷째, 전통조경을 현대적 디자인 가치로 표현한 의미적 코드의 하위 키워드 개념으로는 ① 유기체적 특성(자연형태 모방, 유기적 통일성), ② 사이의 미(차경기법과 시지각적 연속성, 공간의 침투성), ③ 자연과 인간의 조화(자연주의적 이미지 즉, 지모사상(地母思想), 지형순응, 형이상학적 의미경관 창출) 등이 추출된다. 한편, 시각적 코드의 하위개념으로는 ① 담장(살창과 헛담 포함), ② 후원, ③ 마당과 뜰(庭), ④ 식물, ⑤ 화계와 화오(화단 포함), ⑥ 정자, ⑦ 연못, ⑧ 경관석(괴석, 석가산 포함), ⑨ 석지와 돌확, ⑩ 취병(생울타리 포함) 등 10개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표 목록

No.	표 제목		
3-1	식재 장소에 따른 의기		
4-1	전통조경의 디자인적 가치와 경관미		
4-2	전통조경의 유형적 특성 : 의미적 코드		
4-3	전통조경의 유형적 특성 : 시각적 코드		

이미지목록

No.	이미지제목	이미지출처	소장기관
2-1	화천변에 자리한 안동 하회마을 전경	http://www.google.co.kr/imglanding?q	
2-2	화양구곡의 제4곡 금사담과 암서재		
2-3	논산 윤증고택 방지원도		
2-4	전라구례오미동가도		
2-5	경주 안압지		
2-6	죽계구곡 경(敬)		
2-7	영양의 서석지		
2-8	순천 낙안읍성 옛 지도(1872년)		
2-9	안동 하회마을 화천변에 만송정 송림		
2-10	순천 송광사(송보사찰) 전경		
2-11	송광사의 계담(溪潭)인 낙하담		
2-12	전통조경에 작용된 배후사상과 의식		
2-13	담양 명옥헌 별서 원림		
2-14	부여 공남지		
2-15	임실 방동마을 비보숲 장제무림		
2-16	논산 윤증 고택 화계		
2-17	물길과 마을길		
2-18	전통조경에 작용된 미의식과 키워드		
2-19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에서 차경되는 성주봉 전경	http://blog.daum.net/kelim/15712198	
2-20	안동 병산서원 존덕사 앞마당		
2-21	수원 화성행궁 정문 앞 느티나무 세 그루		
2-22	강릉 선교장 전경		
2-23	전통조경의 환경설계원칙과 경관 미학		
2-24	아산 외암마을 전경		
2-25	담양의 소쇄원 별서 제월당과 광풍		
2-26	백제 무왕 35년(634년) 기록에 근거해 복원된 부여 공남지		
2-27	경주 안압지		
2-28	전북모양의 유상곡수거 경주 포석정		
2-29	연못 안에 삼신선도를 둔 경북궁의 경회루		
2-30	안동 도산서원		
3-1	영양 서석지 연못과 경정		
3-2	한국 전통조경에 작용된 작정기법과 의미요소		
3-3	동궐도		고려대박물관 소장
3-4	부용정과 주합루		
3-5	애련정		

3-6	부채꼴 모양의 관람정		
3-7	옥류천 청의정		
3-8	옥류천 소요암		
3-9	담양 소재원도(瀟灑園圖)	민경현, 한국정원문화	
3-10	담양 소재원 제월당과 광풍각		
3-11	담양 소재원 화계(매대)와 담장		
3-12	담양 소재원 계정		
3-13	담양 소재원 오곡문(五曲門)		
3-14	담양 소재원에 구축된 담장		
3-15	강릉 선교장		
3-16	강릉 선교장 활래정과 사각형 연못		
3-17	강릉 선교장		
3-18	강릉 선교장(활래정)		
3-19	함양 정여창 고택		
3-20	윤증고택		
3-21	마을숲		(사진 : 강충세)
3-22	앞뜰에 애용된 매화		
3-23	뒷뜰에 애용된 대나무		
3-24	연못에 애용된 연꽃		
3-25	함안의 舞沂蓮塘圖		
3-26	담양 소재원 십장폭포		
3-27	담양 소재원		
3-28	함양 무기연당 석가산 기법		
3-29	부엽식물을 곁들인 점경물		
3-30	목동 파리공원 기본계획 조감도	www.lafent.com/board/board3.html	
3-31	파리공원		
3-32	파리공원		
3-33	파리공원 수경시설		
3-34	용인 회원의 연못과 담장		
3-35	용인 회원의 담장		
3-36	용인 회원의 석담과 화계		
3-37	용인 회원의 전통담장		
3-38	선유도공원(1) : 과거의 흔적		
3-39	선유도공원(2) : 과거의 흔적		
3-40	선유도공원(3) : 과거의 흔적		
3-41	선유도공원 과거의 흔적, 의미경관, 수경요소		
3-42	선유도공원 마당에 펼쳐진 수경시설		
4-1	경복궁 자경전		
4-2	파리공원		
4-3	담양 소재원 매대		
4-4	용인 회원		
4-5	양동마을 서백당		
4-6	용인 회원		
4-7	담양 소재원 광풍각		
4-8	용인 회원		
4-9	담양 소재원 독목교		
4-10	서울 선유도 공원		
4-11	담양 소재원		
4-12	서울 선유도 공원		
4-13	명옥헌		
4-14	용인 회원		
4-15	담양 소재원	http://blog.daum.net/dwban22/1963	
4-16	서울 파리공원	http://blog.naver.com/yamakasio?Redirect=Log&logNo	

		=120072146918	
4-17	논산 윤증고택		
4-18	용인 회원		
4-19	논산 윤증고택		
4-20	서울 파리공원		
4-21	강릉 선교장		
4-22	용인 회원		
4-23	담양 소재원		
4-24	용인 회원		
4-25	강릉 선교장 활래정		
4-26	서울 선유도 공원(선유정)	http://blog.daum.net/jun005709/7841471	
4-27	부용정	http://photo.naver.com/view/2008060219375145101	
4-28	서울 선유도 공원	http://blog.daum.net/jun005709/7841471	
4-29	경복궁		
4-30	용인 회원		
4-31	강진 청자박물관		
4-32	용인 회원		
4-33	창덕궁 주합루	http://blog.daum.net/dwban22/1963	
4-34	서울 선유도 공원	http://blog.daum.net/jun005709/7841471	